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入關 전 청의 對일본 통교 문제와 조선의 외교적 대응

-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 전후 왜정 보고의 성격 변화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정 상 원

入關 전 청의 對일본 통교 문제와 조선의 외교적 대응

-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 전후 왜정 보고의 성격 변화 -

지도교수 丘 凡 眞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정 상 원

정상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2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병자호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제 막 황제의 나라가 된 청이 추구한 목표는 단지 조선을 복속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청은 조선에 명과의 관계 단절을 강요하였고, 추후 조선군을 대명 전쟁에 참전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청의 시선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미쳤다. 당시 청의 세력 범위에서 일본과 접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청은 조선의 대일 관계를 통해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였다. 본고는 병자호란부터 입관 이전까지(1637~1644) 청과 조선의 외교에서 일본 문제가 다루어지는 양상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청의 대일 통교 문제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입관 전부터 청과 조선은 다양한 외교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빈번하게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이 중에는 조선이 청에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는 자문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선행 연구들은 이를 왜정자문(倭情咨文)이라고 지칭하고, 청의 대일 통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청-조선 외교의 전개와 왜정 보고가 상호 연동되었음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청-조선 외교에서 일본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조선이 왜정 보고를 수행한 전후 맥락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청의 대일 통교 시도는 처음부터 조선의 대일 관계 유지, 그리고 청-일 간 중개자로서 조선의 역할을 전제로 하였다. 청의 황제 홍타이지는 이른바 '정축약조(丁丑約條)'에서 조선 국왕 인조에게 여러 요구 사항과 함께, 일본의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내조(來朝)시키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에 청의 통교 의사를 전하지 않았고 줄곧 청-일 통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가 불러올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대한 청과 조선의 이해(利害)는 충돌하였다.

홍타이지가 '정축약조'에서 일본과의 통교 의지를 밝힌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 주선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일 방면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조선 조정은 청에 왜정을 보고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인조 16년(1638) 삼월 시마바라(島原)의 난에 관한 첩보가 조정에 전해지자, 조선은 근래 일본의 동태에 관한 자문을 작성하여 청의 병부에 보냈다. 이로써 조선은 청-일 통교 문제라는 '외교 사안'을 일본의 내란에 대한 보고라는 '군사 정보 사안'으로 갈음하였다.

숭덕 3년(1638) 오월, 청 황제 홍타이지가 대명 전쟁에 조선군 5천 명을 보내도록 요구하였음이 조선 조정에 전해졌다. 조선으로서는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 타개책을 강구해야 하였고, 왜정 보고가 가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조선이 섣불리 왜정의 우려를 내세운다면 청에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였다. 숭덕 3년(1638) 오월 25일자 왜정자문에서 조선은 굳이 동래부사의 보고를 장황하게 인용하는 형식으로 차왜(差倭)의 말이 계속해서 달라졌음을 청에 낱낱이 보여주었다. 이로써 조선은 최근 파악한 왜정을 충실히 알리면서도,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고 일본의 동태가 우려됨을 청에 전달하였다.

숭덕 4년(1639) 유월에는 청의 칙사가 차왜와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마침 동래부에 파견된 차왜는 조선에 무역 확대를 요청하면서, 막부에서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려는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에서 조선은 '일본의 침공'이 우려되는 것처럼 차왜의 발언을 편집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청-일 통교의 차단과 대명 전쟁 참전 회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은 대마도주의 서계(書契)를 왜정자문과 함께 청에 전달하였다. 현전하는 대마도주 서계의 만문 번역본을 보면, 일부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어 청이 서계의 해석에 실패하였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청이 서계를 해석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면, 독자적으로 일본과 통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숭덕 5년(1640) 이후 청과 조선이 모두 일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포착된다. 숭덕 7~8년 조선은 통신사 파견에 관한 내용을 청에 보고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내세웠다. 이 무렵 청은 통신사 파견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선에 일본

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청은 전에 없이 일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숭덕 4년(1639) 말부터 숭덕 7년(1642) 초 사이, 청과 조선의 일본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청과 조선의 외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은 남한산성을 수리한 것이 청에 발각되고 대명 전쟁에 군사를 보내었다. 이제 조선으로서는 더 이상 청에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조선은 일본이 상대하기 까다로우니 '현상 유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청에 시사하여, 청-일 통교를 막는 데에 집중하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은 청의 대일 방침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이 조선 방면의 안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선이 명-일 연합을 방조하거나 그것에 가담할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청이 명의 내부 사정을 탐지하여 명-일 연합에 관한 정황을 파악하였을 수도 있다. 일례로 숭덕 7년(1642) 초 과거 명군 최고 지휘관인 병부상서를 역임하였던 홍승주가 청에 귀순하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명과 일본 사이에 통교가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일본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갈수록, 청은 명과 일본의 군사 연합이 성사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였을 듯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입관 이전 청의 입장에서 대일 통교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부차적' 문제에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왜정 보고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하고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한다면, 청으로서는 명과의 연합이 우려되는 일본을 후방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명 전쟁 참전 이후 조선은 왜정 보고에서 일본과의 '우호'를 내세우며 '현상 유지'라는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구도에서 청이 무리하게 일본과의 통교를 성사시킬 필요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청은 조선을 통해 일본의 동향을 관찰하되, 공식 외교 관계의 수립은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주요어 :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중관계, 중일관계, 明淸交替, 에도막부 倭情咨文, 홍타이지

학 번 : 2020-21367

목 차

머 리 말 ····· 1

Ⅰ. 청-조선 관계에서 일본 변수의 등장과 왜정 보고 ··· 8
1.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와 조선의 입장 ····· 8
2. 조선의 청-일 통교 주선 회피와 왜정 보고 ····· 15

Ⅱ. 청의 대명 전쟁 참전 요구와 조선의 왜정 보고 ····· 27
1.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 문제와 왜정 보고의 연동 ····· 27
2. 숭덕 4년 왜정 보고의 정보 가공 ····· 38
3. 청의 일본 외교문서 독해력과 통교 역량의 한계 ····· 50

Ⅲ.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과 왜정 보고의 변화 ····· 58
1. 숭덕 7~8년 왜정 보고와 청·조선의 태도 변화 ····· 58
2. 변화의 동인 : 청·조선의 대일 '현상 유지' ····· 69

맺 음 말 ····· 78

참고문헌 ····· 81
부 록 ····· 87
Abstract ····· 90

표 목 차

[표 1] 청 숭덕 연간 조선의 왜정자문과 병부 회자 일람 ····· 19
[표 2] 대마도주 서계 원본과『淸太宗實錄』에 수록된
서계의 문장 비교 ····· 55

그 림 목 차

[그림 1] 대마도주 서계의 만문 번역본 ····· 53

머 리 말

숭덕(崇德) 원년(1636) 사월 11일, 후금(後金, Aisin Gurun)의 한(汗)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는 대청국(大淸國, Daicing Gurun)의 황제로 즉위하였다. 같은 해 십이월, 청 황제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공하여 군신 관계를 강요하면서, 조선에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였다. 명은 요동에서 청을 방어하고 내지의 농민 반란을 진압하느라, 청의 침공에서 조선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무렵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쇄국(鎖國)'이라 불리는 형태로 대외 통교 체제를 개편하고 있었다. 에도막부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그보다 앞서 단절되었던 명과의 국교는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대외관계를 재정비하였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동요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인을 제공하였던 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주지하듯이 1871년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가 체결되기까지 청과 일본 사이에는 국교가 부재하였다. 명이 일본과 책봉-조공 관계를 수립한 적이 있고, 그보다 앞서 원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 원정을 수행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청과 일본의 국교 부재는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본고는 청이 건국 직후 조선을 통해 일본과의 통교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청의 대일 통교 문제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병자호란 직후 청은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도록 요구하였다. 입관(入關) 이전 청의 세력 범위에서 일본과 접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청은 조선의 중개를 통해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대로 17세기 초부터 조선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북로(北虜)'와 '남왜(南倭)'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었다. 병자호란을 전후로 조선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해졌기에, 조선은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를 회피하려 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한동안 청과 조선 사이에서 '일본 문제'는 하나의 외교 현

안이 되었다. 입관 전부터 청과 조선은 다양한 외교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빈번하게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이 중에는 조선이 청에 일본의 정세[倭情]를 보고하는 자문(咨文)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구두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료가 현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이 말과 글로 청에 왜정을 보고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켜 '왜정 보고'라고 부르되, 왜정 보고를 담은 자문은 선행 연구의 용례에 따라 '왜정자문(倭情咨文)'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조선의 왜정 보고 혹은 왜정자문은 청의 대일 통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건국 직후 청은 사실상 조선에 의지하여 일본을 파악하였기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갖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클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청 초기 사료에서 일본에 관한 언급은 대단히 소략하기에, 청의 대일 통교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갖는 사료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연구자들은 조선의 대청 관계와 대일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로 왜정 보고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청에 대한 조선의 왜정 보고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는 조선의 대외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왜정 보고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우라 렌이치(浦廉一)의 연구는 후금-청과 조선의 외교에서 일본이 언급된 기사를 충실히 발굴하였지만, 왜정자문이 당대 현실 외교에서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1] 문영규의 연구도 『同文彙考』에 수록된 인조・효종 대의 왜정자문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독자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2] 한명기의 연구는 조선이 청의 외교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왜정자문을 활용하였음에 주목하여, 조선의 대청 외교에서 왜정 보고가 갖는 의미를 환기하였다.[3] 김태훈의 연구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워 청과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청에 "군비

1) 浦廉一, 「明末淸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 (一)・(二)」, 『史林』 19, 1934.
2) 문영규. 「倭情咨文을 통해 본 仁祖・孝宗代의 對外關係 硏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문영규의 연구는 『同文彙考』에 수록된 인조・효종 대 倭情咨文의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곳곳에서 적지 않은 오역이 확인된다.
3)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pp.297-359.

증강”을 허가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비슷한 맥락에서 김경록의 연구는『同文彙考』의 왜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이 소현세자의 귀국과 “군비강화”에 왜정을 외교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았다.[5] 이들 연구는 조선이 왜정 보고의 정보를 수집·작성한 주체라는 점을 중시하여,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서 왜정 보고의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조선의 왜정 보고가 청의 대일 정책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연구는 병자호란 이후 청의 대일 통교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조선의 왜정 보고가 청-조선 외교의 다른 현안과 연관되었음을 시사하였다.[6] 천원서우(陳文壽)의 연구는 조선의 왜정자문이 청의 일본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이 화이질서(華夷秩序)를 구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7] 홍성구의 연구는 조선의 왜정자문을 중심으로 청의 대일 통교 시도를 조망하는 한편, 청과 일본의 국교 부재가 “청의 화이의식(華夷意識) 변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하였다.[8] 청융차오(程永超)의 연구는 통신사(通信使) 관련 왜정자문을 분석하여, 청이 조선의 대일 외교를 통제하고 소위 “종속관계(宗屬關係)”를 형성하였다는 동의하기 힘든 결론을 제시하였다.[9] 쉐밍(薛明)의 연구는 옹정(雍正) 연간 이전의 청-일 관계를 조망하면서, 청이 일본을 파악하는 데에 조선의 왜정자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10] 이들 연구는 청의 일본 인식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

4) 김태훈,「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한일관계사연구』50, 2015.
5) 김경록,「17세기 朝·淸관계와 ‘倭情’의 군사·외교적 활용」,『군사』94, 2015.
6) 中村榮孝,「大君外交體制とその周邊」,『日鮮關係史の研究(下)』, 東京: 吉川弘文館, 1965.
7) 陳文壽,『近世初期日本與華夷秩序研究』,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2002, pp.122-190.
8) 홍성구,「淸 入關 前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再編과 日本」,『명청사연구』33, 2010.
9) 程永超,「通信使關係倭情咨文と明淸中國」,『史林』99, 2016(程永超,『華夷變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國三國關係史の研究』, 大阪: 淸文堂出版, 2021, pp.79-119에 재수록).
10) 薛明,『淸前期的中日關係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2014, pp.19-86. 청이 조선을 통해 일본과의 통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 여러 차례 단편적인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易惠莉,「論入關前後的淸與日本關係」,『學術月刊』, 2001-01; 柳嶽武,「淸初淸, 日, 朝鮮三國關係初探」,『安徽史學』, 2005-04; 王曉秋,「試論淸代中日關係的開端」,『鄭州大學學報』, 2008-02.

셋째는 동아시아 국가 간 정보 교류의 사례로 왜정 보고를 활용하는 연구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보 교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의 외국 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11] 반대로 일본에 관한 정보가 중국이나 조선에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마츠우라 아키라(松浦章)의 연구는 시마바라(島原)의 난에 관한 정보가 조선을 거쳐 청에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 간 정보 교류의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12] 기무라 가나코(木村可奈子)의 연구는 조선이 에도막부의 크리스트교 금제(禁制) 요청에 대처하는 한편, 청에 관련 정황을 보고하여 대청 외교의 현안에 대응하려 하였음을 밝혔다.[13] 선위후이(沈玉慧)는 숭덕(崇德) 연간부터 건륭(乾隆) 연간까지 청의 일본 정보 수집을 다루면서, 조선 역시 중요한 정보 수집 경로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14] 구미권 연구에서 왜정 보고를 언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점을 보완하여, 청의 대일 통교 문제와 조선의 왜정 보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첫째, 청-조선 외교와 왜정 보고의 전개가 상호 연동되었음을 규명할 것이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조선의 대일 외교에서 일어난 변화를 중심으로 왜정 보고의 전개를 서술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왜정자문에는 조선의 대일 외교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왜정 보고를 수행하는 대상이 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청-조선 외교의 맥락에서 왜정 보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청-조선

---

11) Toby, Ronald P.,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1984; 岩下哲典, 眞榮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院, 1997;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서울: 景仁文化社, 2012.

12) 松浦章, 「清に通報された「島原の亂」の動靜」, 『海外情報からみる東アジア: 唐船風說書の世界』, 大阪: 清文堂出版, 2009.

13) 木村可奈子, 「日本のキリスト教禁制による不審船転送要請と朝鮮の對清・對日關係: イエズス會宣教師日本潛入事件とその餘波」, 『史學雜志』 124, 2015.

14) 沈玉慧, 「從對日情報之蒐集與運用分析清朝對日政策」, 劉序楓 主編, 『亞洲海域間的信息傳遞與相互認識』,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18. 청의 일본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단편적인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다. 陳波, 「清朝與日本之間的情報搜集: 以清朝入關前後爲中心」, 『江海學刊』, 2014-04; 陳波・袁一帆, 「明清鼎革期間朝鮮與日本的交隣關係: 以情報交涉與文化角力爲中心」, 『學術研究』, 2020-06.

외교의 변화를 주된 서술의 축으로 삼음으로써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왜정 보고의 동인과 효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왜정 보고가 담고 있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츠우라 아키라의 연구가 시사하듯, 국경을 넘어 오고 가는 정보가 언제나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일부 연구에서 조선이 왜정을 '가공'하여 청에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지만,[15]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본고는 사료의 교차 검증을 통해 왜정 보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선의 '정보 가공'이 당대 현실 외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청-조선 외교에서 '일본 문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변화하였음에 주목할 것이다. 순치(順治) 7년(효종 원년, 1650) 청은 조선이 왜정을 허위로 보고하여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군병을 훈련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사문(查問)을 단행하였다. 일부 연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줄곧 청에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숭덕 7~8년 왜정 보고의 사례만 보아도 조선이 청에 시종일관 '일본의 위협'을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 본고는 각각의 왜정 보고가 수행된 전후 맥락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함으로써, 청-조선 외교에서 일본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청-조선 외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할 사료는 청과 조선이 주고받은 외교문서이다.[16] 선행 연구에서는 연대기 자료를 토대로 청-조선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조선에서 편찬한 외교 자료집인 『同文彙考』나 『通文館志』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들 사료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더 많은 사료를 통해 양국관계의 흐름을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청 측에 남아 있는 외교문서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청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의 국서를 모아 놓은 사료인 『朝鮮國來書

15) 김태훈, 2015, p.192; 薛明, 2014, pp.38-39.

16) 아래에서 제시한 사료들의 판본과 내력에 관해서는 張存武·葉泉宏 編,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1619-1643』, 臺北: 國史館, 2000, pp.1-9(이하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를 참고.

簿』·『朝鮮國王來書』,[17] 그리고 청의 내각대고(內閣大庫) 당안 중 조선 관련 외교문서를 정리한『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를 이용할 것이다.[18]

또한, 청에 전달된 왜정자문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데에 이용할 사료는 조선 예조(禮曹)에서 편찬된 대일 관계 등록류(謄錄類) 사료이다. 조선은 인조 대 이후 대일 외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동래부사(東萊府使)나 경상감사(慶尙監司) 등이 올린 보고서를 사안별로 모아 정리하였다. 대일 관계 등록류 사료는 중앙 조정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대일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계의 활용도가 적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이 청에 보낸 왜정자문과『別差倭謄錄』·『通信使謄錄』[19]의 기사를 대조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과 접근법을 바탕으로, 병자호란 이후부터 입관 이전까지(1637~1644) 청의 대일 통교 문제와 조선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입관 이전 청의 세력 범위에서 일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된 경로는 조선의 왜정 보고였다. 또한, 입관 이전 청은 명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대외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의 입관을 기점으로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서 고려할 요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입관 이전 조선이 청에 전달한 6건의 왜정자문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되,[20] 이 시기 청-조선

17)『朝鮮國來書簿』와『朝鮮國王來書』는 청의 文館과 內秘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의 국서를 모아 놓은 사료이다. 전자는 天聰 원년부터 崇德 6년의 문서를 수록하고 있고, 후자는 崇德 7년부터 崇德 8년의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朝鮮國來書簿』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朝鮮國王來書』는 1932년 故宮博物院文獻館의 影印本으로 확인하여 목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두 사료는『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에 표점이 된 상태로 수록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므로, 이하『朝鮮國來書簿』와『朝鮮國王來書』를 인용할 때에는『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의 페이지 수를 제시하기로 한다.

18)『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는 國立北平歷博物館院 소장된 鈔本을 1933년 重印한 것으로, 목차와 페이지 수가 표기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19)『別差倭謄錄』은 인조 15년부터 철종 7년까지의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마도의 외교 사절인 差倭가 동래부에 왕래한 사실과 관련한 문서를 禮曹 典客司에서 謄錄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東萊府使 또는 慶尙監司의 狀啓이며, 이에 대한 禮曹 및 備邊司의 回啓와 單子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通信使謄錄』은 인조 19년부터 순조 11년까지의 총 1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사 관련 문서를 禮曹 典客司에서 謄錄한 것이다. 통신사 파견 사유의 발생부터 파견 전의 교섭 과정, 귀환 후의 마무리까지 제반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대일 관계 謄錄類 사료에 관해서는 하우봉,「『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한국문화』12, 1991을 참조.

외교에서 일본이 거론된 사례를 함께 살필 것이다.

제Ⅰ장에서는 병자호란 직후 청과 조선의 외교에서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배경을 다룬다. 숭덕 3년(1638) 삼월 조선은 청에 대한 왜정 보고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은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라는 '외교 사안'을 일본의 내란에 대한 정세 보고라는 '군사 정보 사안'으로 갈음하였다. 이 시점에서 조선의 왜정 보고는 청과 일본의 통교를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Ⅱ장은 숭덕 3년(1638) 오월 이후 조선의 왜정 보고가 대명 전쟁 참전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었음을 확인한다. 숭덕 3년(1638) 사월부터 청이 조선에 대명 전쟁 참전을 압박하자, 조선은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 왜정 보고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하였다. 숭덕 4년(1639)의 왜정 보고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를 '가공'하여 청에 전달하였음이 포착되기도 한다. 제Ⅲ장에서는 숭덕 5년(1640) 이후 청과 조선이 모두 일본 문제를 대하는 양상이 달라졌음에 주목할 것이다. 청은 더 이상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선 역시 청에 대한 왜정 보고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내세우지 않았다. 청과 조선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일본 문제에 접근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병자호란 직후 청의 대일 통교 문제가 당시 청-조선 관계·조선-일본 관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이라는 별개의 사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4국 공존의 시대'가 만들어낸 다자 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0) 崇德 연간과 順治 연간 조선이 청에 倭情에 관해 전달한 咨文과 奏文은 총 14건으로 확인된다. 같은 시기 청이 조선에 倭情에 관해 전달한 回咨와 勅書는 6건으로 확인된다. 이 중 입관 이전인 崇德 연간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가 6건, 후자가 2건이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同文彙考』·『淸太宗實錄』·『淸世祖實錄』 등에 남아 있는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료에서 문건이 누락되어 현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Ⅰ. 청-조선 관계에서 일본 변수의 등장과 왜정 보고

1.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와 조선의 입장

병자호란은 청 황제와 조선 국왕 사이에 군신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막을 내렸다. 숭덕 2년(인조 15년, 1637) 정월 28일,[21] 청 황제 홍타이지는 이미 항복의 뜻을 밝힌 조선 국왕에게 국서를 보내어, 조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였다. 훗날 '정축약조(丁丑約條)'라고 불리게 되는 이 국서에서 언급된 각각의 요구 사항은 병자호란 이후 양국관계의 틀을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22] 주된 내용은 명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 청의 정삭(正朔)을 받들 것,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대명 전쟁에 병력을 조발할 것,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보낼 것, 성지[城垣]를 수축하지 말 것, 도망자와 올량합(兀良哈)[23]을 송환할 것 등이었다.[24]

이때 청은 바다 건너 일본과의 통교에도 관심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정축약조' 중에서 청이 일본과의 통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 (가) 일본과의 무역은 그대가 예전처럼 하도록 허락한다. 다만 그들의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내조(來朝)하게 해야 한다. 짐 또한 장차 저들에게 사신을 보낼 것이다.[25]

---

21) 본고의 날짜 표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본고가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하나의 연호로 날짜 표기를 통일할 경우 서술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맥락에 맞게 연호를 병용하되, 괄호 안에 西曆 연도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양력 표기와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만은 한글로 표기할 것이다. 음력 연말의 경우 양력으로는 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양력 연월일을 괄호 안에 표기할 것이다. 예시: 인조 15년 십이월 16일(1638년 1월 30일).

22) 구범진, 「병자호란 종전 시 홍타이지의 국서 <定約條詔>에 대한 문헌적 고찰: 실물 문서와 청조의 만문·한문 기록물의 비교 분석」, 『동아문화』, 2021, p.127.

23) 兀良哈은 17세기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인을 가리키는 말로, 瓦爾喀라고도 하였다. 청은 원주지를 떠나 조선 내지로 이주한 向化胡人도 兀良哈 혹은 瓦爾喀라고 불렀는데, 청은 조선에 이들을 송환하도록 요구하였다.

24) 『同文彙考』 別編 권2, 節使, 「定約條年貢諭」(崇德 2년 정월 28일), pp.1a-2a.

25) 『同文彙考』 別編 권2, 節使, 「定約條年貢諭」(崇德 2년 정월 28일), pp.1a-2a. "日本貿易, 聽爾如舊. 但當導其使者赴朝, 朕亦將遣使至彼也."; 이에 해당하는 만문 기록은 河內良弘 譯註·編著,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中國第一歷史檔案館蔵 : 崇德二·三年

입관 이전 청의 세력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청이 자력으로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천총(天聰) 5년(인조 9년, 1631) 후금에 보내는 국서에서. 조선은 “서쪽으로는 황조(皇朝, 명)를 섬기고, 북쪽으로는 귀국(貴國, 후금)과 화친하며,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교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었다.[26] 이를 인지한 청은 조선의 대일 관계를 이용하여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이 조선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일본과 통교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27] 당시 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상정 가능한 요인 중 하나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이다. 일찍이 누르하치는 임진왜란의 발발을 인지하고서 명에 원병 파견을 제안한 바 있었다.[28]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후금이 사르후 전투(1619)에 동원된 항왜(降倭)의 전투력과 무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29]

후금은 조선에서 명과 일본의 연합 가능성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기도 하였다. 천총 7년(인조 11년, 1633) 유월 18일, 조선에 파견된 후금의 사신 잉굴다이(Inggūldai, 英俄爾岱・龍骨大)[30]와 다이숭가(Daisungga, 代松

分』, 京都: 松香堂書店, 2010. p.81(이하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에서 확인할 수 있다. “jai Oodzi gurun i ishunde elcin hūda yaburengge fe an i yabu. Oodzi i elcin be yarume gajifi, minde acabume unggi. mini elcin be inu amasi julesi yabubuki.” 이하 각주에서 사료의 원문을 인용할 때 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 ]를, 사료에 缺落이 있을 경우에는 < >를 사용할 것이다.

26)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致書金汗拒借船抗議金兵入侵」(天聰 5년 유월 29일), pp.79-81.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임진왜란 이전 조선은 명에 대해 대일 통교의 정황을 숨기고자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명-조선 관계에서의 대일 통교와 청-조선 관계에서의 대일 통교는 전제부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민덕기, 「조선은 왜 일본과의 통교관계를 중국에 감추려 했을까?: 조선 前期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2, pp.99-134.

27) 선행 연구는 청의 대일 통교 시도에서 ‘華夷意識’・‘華夷秩序’라는 동인을 중시하였다. 청이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함으로써 명의 天下를 대신하여 자국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고는 ‘華夷意識’・‘華夷秩序’이라는 사상적 요인보다는, 입관 이전 청이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였던 현실적 동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청의 대일 통교 시도를 ‘華夷意識’・‘華夷秩序’와 관련지어 분석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陳文壽, 2002, pp.122-151; 홍성구, pp.81-110; 薛明, 2014, pp.19-34.

28) 『宣祖實錄』 권30, 25년 구월 17일.

29) 薛明, 2014, pp.20-22.

30) 본고에 등장하는 만주어 인명은 되도록 원어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주어 인명이 처음 나오는 경우 괄호 안에 만주어의 로마자 및 한자 전사를

阿)가 상주한 첩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국이 조선의 왕에게, “만주(=후금)에 재물을 어째서 주는가? (후금이) 이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구실로 불화(不和)하고서 왜(倭)에 군대를 청하라. 나 또한 도울 것이다. 만주를 어째서 믿는가? 만주는 그의 동류(同類) 울라[Ula]·하다[Hada]·여허[Yehe]·호이파[Hoifa]와 모두 화친하고서 결국에는 토벌하였다. 너희도 만주와 화친하면 언제라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었다. 그 말에 조선이 왜에 군대를 구하러 갔기 때문에, 왜에서 “4만의 군대로 도울 것이다”라며 글을 작성하여 보냈다. 또한 그 나라(=일본)의 안에 군대도 대거 모이게 하였다.[31]

명이 조선에 후금과의 관계 단절을 종용하였고, 조선을 통해 일본에 원병을 청하였다는 것이 이 첩보의 주된 내용이다. 위 인용문의 말미에는 일본이 명의 원병 요청에 ‘군대 4만’으로 돕겠다고 호응하였음도 언급되었다.

물론 명이 조선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는 위 첩보의 내용이 사실일 리는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명-조선-일본의 연합이 성사된다면, 후금으로서는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군사적·외교적 부담이 막대할 터였다. 당시 후금이 명-일본 관계나 조선-일본 관계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조선에서 입수한 위와 같은 첩보는 후금에 ‘막연한 공

병기하여 서술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만주어의 로마자 전사는 묄렌도르프(Möllendorff) 표기법에 따른다.

31)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京: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2003, pp.86-87. “jai Daiming(→Ming gurun), Solgo i han(→wang) de [takūrame], Manju de ulin ainu bumbi. ere ulin gaijarakū (kanangga) [kanagan] de eherefi Oose de cooha baisu. be inu dara. Manju de ainu agdambi. Manju ini duwali Ula, Hada, Yehe, Hoifa be gemu acafi dubederi[dubederi] dailahabi. suwe Manju de acaci atanggi bicibe terei adali ombikai seme takūrahabi. tere gisun de Solgo, Oose de cooha baihanara jakade, Oose duin tumen cooha aisilara seme bithe arafi unggihebi. jai ini gurun i dorgi cooha be inu ambula isabuhabi.” 위의 만문 전사에서 밑줄은 지워진 부분을 의미하고, (→)는 가필되었음을 의미한다.;『淸太宗實錄』권14, 天聰 7년 유월 18일. “又明國遣人諭朝鮮王云. 爾何故與滿洲財物, 可以不受爲詞, 卽與之絕. 爾如借兵倭國, 我亦相助. 滿洲於同類之國, 如烏喇、哈達、葉赫、輝發先曾講和, 後竟伐之. 爾若與之講和, 終蹈覆轍. 朝鮮信其言, 因借兵倭國, 倭國助以兵四萬, 彼亦屯聚士馬.”

포'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이 일본과의 통교를 성사시킨다면, 명과 일본의 연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청은 일본의 물산(物産)을 입수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다. 위의 인용문 (가)에서 청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먼저 언급하였다. 청은 후금 시절부터 조선을 통해 일본의 물산을 입수하고 있었다.[32] 일례로 천총 7년(1633) 정월 조선이 후금에 보내는 예물 목록에는 왜검(倭劍), 단목(丹木), 후추(胡椒)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또한, '정축약조'에서 조선이 매년 청에 진상(進上)하도록 규정된 물품 중에는 후추, 소목(蘇木), 수우각(水牛角)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조선이 일본을 통해 입수하는 동남아시아산 물품이었다.[34] 당장에 청이 일본의 물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대일 무역을 유지해야겠지만, 청이 일본과 직접 통교한다면 조선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도 일본의 물산을 입수할 수 있었다.

요컨대, 청의 대일 통교 시도는 처음부터 조선의 대일 관계 유지, 그리고 청-일 간 중개자로서 조선의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인용문 (가)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그대가 예전처럼 하도록 허락한다"라는 구절은 외견상 청 황제의 시혜성 조처이지만, 실상은 조선이 일본의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내조(來朝)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지만 청 황제의 구상대로 일본의 사신이 내조하고 청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이 중개자 역할을 다해야만 하였다. '정축약조'의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청의 대일 통교 문제 역시 조선의 입장과 대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갑작스러운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인조 15년(숭덕 2년, 1637) 삼월 20일, 인조는 조정 대신들을 인견하여 대명 전쟁에의 파병을 비롯한 청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조선이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는 일도 의제에 포함

32)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淸交替』, 東京: 汲古書院, 2018, pp.143-146.
33)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答金國增索土產書」(天聰 7년 정월 9일), pp.99-101.
34) 『同文彙考』 別編 권2, 節使, 「定約條年貢諭」(崇德 2년 정월 28일), pp.1a-2a.

되었다. 인조가 먼저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는 것에 난처함을 표하자, 이조판서 최명길(崔鳴吉)은 조선이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35] 이와 달리 우의정 이성구(李聖求)는 청이 다시 통교 주선을 요구한다면 '일본에 청의 통교 의사를 알리겠다'라고 답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조는 이성구의 의견에 허락의 뜻을 밝혔다.[36]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은 일본에 청의 통교 의사를 전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줄곧 청과 일본의 통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조선이 청과 일본의 통교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일 통교가 조선의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인조 17년(숭덕 4년, 1639) 칠월 1일, 인조는 "청이 일본과 통교하려는 것은 병기(兵器)를 무역하고자 함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최명길은 청과 일본이 통교하면 조선에 화가 미칠 것이라며 인조의 의견에 동조하였다.[37] 외교의 측면에서도 청-일 통교는 조선의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았다. 17세기 초부터 조선은 대륙과 일본의 사이에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위협을 명분으로 명의 군사 원조 요청을 회피하는가 하면,[38] 정묘·병자호란 소식을 최소한으로 제공하여 일본의 침략 및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바 있었다.[39] 그런데 청과 일본의 통교가 성사된다면, 조선은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불리함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또한, 위의 인용문 (가)에서 청이 언급하였던 '무역'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청과 일본의 통교가 조선의 무역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35) 『仁祖實錄』 권34, 15년 삼월 20일. "上曰, 彼有通信日本之言, 何以爲答耶? 鳴吉曰, 此則決不可許也. 上曰, 彼欲必通於日本, 則事極難處矣."

36) 『承政院日記』 제56책, 인조 15년 삼월 20일. "上曰, 日本通信一事, 彼已丁寧言之, 不可置之尋常, 而其間事勢, 多有難處, 何以爲之? 聖求曰, 彼若問之, 則通諭之意, 答之, 何如? 上曰, 依爲之."

37) 『仁祖實錄』 권39, 17년 칠월 1일. "上曰, 昨日宴時問答之事, 卿等詳聞之耶? 其所言通倭一事, 必非偶然. 其意必欲交結, 貿用兵器也. 鳴吉曰, 此必貽患於我國. 彼人例以密語爲致情, 若以難處之意密言, 而使之歸告皇帝如何."

38) 『光海君日記』 권128, 10년 오월 22일.

39) 조선은 정묘·병자호란으로 국력이 소진된 상황을 틈타 일본이 침입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시기 조선이 대마도로의 정보 유출에 대처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박정슬, 「명·청교체기(1637~1647년)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보 활용: 대마도와의 교섭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64, 2018을 참고.

었다. 조선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물산을 수입하여 후금-청에 수출하였고, 중국에서 비단·약재·생사(生絲) 등을 입수하여 일본에 공급하고 있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이러한 구도에서 중계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였다.[40] 하지만 청과 일본이 통교한다면 조선이 중계무역으로 누리던 이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정리해보면,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가 불러올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대한 청과 조선의 이해(利害)는 충돌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에 대해 명백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청-일 통교 주선에 대한 주도권 역시 청에서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숭덕 2년(인조 15년, 1637) 구월 6일, 청은 對조선 외교를 맡아 처리하던 잉굴다이와 마푸타(Mafuta, 馬夫大·馬福塔)를 소현세자 일행이 인질로 머물고 있던 심관(瀋館)에 보내어 '정축약조'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그중에는 청과 일본의 통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조선 측은 '일본과 사신의 왕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교 주선을 회피하였다.

> 용골대·마부대가 또 말하길, "일본의 사신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통교하고 싶다는 뜻은 일찍이 화약(和約)을 맺을 때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신들이 **"일본은 바닷길이 매우 멀어 우리나라 사신이 10년에 한 번 왕래하는데, 그 나라는 장삿배만 왕래하고 사신은 근래 나온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용골대·마부대가 그러냐고 하면서 별다른 말이 없이, 왜사(倭使)가 오면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알리기를 바랐습니다.[41] (밑줄과 강조는 필자)

심관 측의 변명은 절반만 사실이었다. 임진왜란 종결 이후 조선은 대략

40) 辻大和, 2018, pp.143-145.

41)『瀋陽狀啓』정축년 구월 6일. "龍馬又言, 日本使出來乎? 我國欲爲通信之意, 曾於約條時言之矣. 臣等答曰, **日本海路甚遠, 我國使臣十年一番往來, 彼國則只商買舡往來, 使臣則近無出來之事矣.** 龍馬唯唯別無他語爲白乎矣, 倭使若來, 則欲使我國通于此處是白齊." (밑줄과 강조는 필자)

10년마다 국왕사(國王使)를 파견하였고,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파견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있었다.[42] 하지만 근래 일본의 사신이 나온 일이 없다고 변명한 것은 사실과 달랐다. 병자호란 직후인 인조 15년(1637) 오월, 대마도가 전쟁이 끝난 것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동래부에 차왜(差倭) 아리타 모쿠베(有田杢兵衛; 조선 사료에서는 藤智繩)를 파견하였음이 사료로 확인되기 때문이다.[43] 이 시기 조선과 일본의 외교는 대마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대마도의 차왜는 사실상 외교 사절에 해당하였다.[44]

조선이 청에 일본과의 교류를 숨기려 한들, 청이 언제까지나 조선의 변명에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청의 칙사가 심양과 한양 사이를 빈번하게 오고 가는 사이, 대마도의 차왜도 동래부에 빈번하게 파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조선 조정은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는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도록 하는 등 기밀 유출 방지에 심혈을 기울였다.[45] 그럼에도 청의 칙사가 사행 도중에 차왜의 파견 소식을 접하거나, 조선이 일본과 교류하는 정황을 감지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숭덕 2년(인조 15년, 1637) 시월 26일, 청 황제 홍타이지는 인조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기 위해 칙사를 파견하였다.[46] 조선 조정은 수개월 전부터 책봉을 위해 칙사가 파견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47] 비변사는 청의

---

42) 임진왜란 종결 이후 조선은 일본에 1607년 · 1617년 · 1624년 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하였고, 1636년 이후부터는 通信使를 파견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후 국내의 '반일 감정'과 명의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 일본에 파견하였던 조선 국왕사인 '通信使'라는 명칭 대신에 '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피로인 쇄환' 등의 전후처리를 위해 일본의 요청에 '회답'하는 조선 국왕의 사절임을 천명하였다. 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파주: 경인문화사, 2019, pp.21-58.

43) 『別差倭謄錄』 권1, 정축년 오월 13일. 본고에 등장하는 일본어 인명과 지명은 원칙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에 따른다. 단, '대마도'만은 한국어 독음으로 표기할 것인데,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의 외교를 전담하였던 대마도의 정치적 · 지리적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대마도가 조선에 파견하는 差倭의 이름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조선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해당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괄호 안에 조선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병기하였다.

44) 差倭는 대마도에서 보낸 사절을 의미하며, 막부 쇼군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大差倭와 대마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小差倭로 구별되었다. 홍성덕,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pp.169-174.

45) 『承政院日記』 제58책, 인조 15년 윤사월 22일.

46) 『淸太宗實錄』 권39, 崇德 2년 시월 26일.

칙사가 일본과의 통교를 거론한다면, 임진왜란 때 명이 사신을 보내어 일본을 귀순시키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자고 제안하였다.[48] 실제로 한양에 도착한 청의 칙사는 조선 측에 후추를 조달하도록 요구하면서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거론하였다. 조선 측은 일본이 바다 건너에 있어 통교하기가 어렵고, 다만 대마도가 비교적 가까워 단목(丹木), 후추, 도검 등을 조선의 미곡(米穀)과 무역한다고 답할 뿐이었다.[49]

2. 조선의 청-일 통교 주선 회피와 왜정 보고

청 황제가 '정축약조'에서 일본과의 통교 의지를 밝힌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조선은 청과 일본의 통교 주선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인조 15년 십이월 16일(1638년 1월 30일) 차왜 우치노 콘베(內野權兵衛; 조선 사료에서는 平成連)가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혹은 平義成)의 서계(書契)를 지참하고 동래부에 당도하였다.[50] 차왜는 대마도주의 서계와 함께 외교 의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별단(別單)을 동래부에 전달하였다.[51] 흔히 '7조목 서계'라고 불리는 별단의 내용은『仁祖實錄』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 차왜 평성련(平成連, 우치노 콘베)이 와서 7조목의 일로 말하였다. 첫째, 교역하는 물화가 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통교가 끊어져서 그렇습니까, 북쪽 오랑캐의 난리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둘째, 조선 사신이 일본에 들

47)『承政院日記』제60책, 인조 15년 팔월 30일;『瀋陽狀啓』정축년 구월 6일.
48)『承政院日記』제61책, 인조 15년 시월 22일. "日本通諭之事, 則其國以海外絶域, 傲然自大, 昔在小邦被兵之時, 南朝欲其歸順, 委遣使价, 而乃敢加之以侮辱, 今日區區所慮, 正在於此, 此大朝之所當商量者也."
49)『承政院日記』제62책, 인조 15년 십일월 23일.
50)『仁祖實錄』권35, 15년 십이월 16일.
51) 이훈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도가 조선에 외교 의례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조청관계를 직접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己酉約條(1609) 이후 축소된 무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며, 셋째는 외교문서 상의 '羈縻관계적 표현'을 삭제하여 대마도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이훈은 이를 통해 대마도가 막부에 자신의 외교 역량을 내세우려 하였다고 보았다. 이훈, 2019, pp.214-215.

어오면 상단(上壇) 사이에서 절하는데, 일본에서 보낸 사신은 모래밭[沙中]에서 절을 하니, 예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해마다 쌀과 콩을 내려주는데 '사(賜)'자를 쓰지 마십시오. 넷째, '봉진가(封進價)' 석 자도 써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서한 가운데 대마도는 '귀주(貴州)'라고 칭하십시오. 여섯째, 사선(使船)이 와서 정박하는 곳을 돌로 쌓아 풍파를 면하게 하십시오. 일곱째, 돌로 쌓는 것이 쉽지 않으면 관사를 개축하십시오.[52]

인조 16년(숭덕 3년, 1638) 정월 24일, 조선 조정은 대마도의 외교 의례 개정 요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53] 인조는 일본이 침입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4] 그러면서 인조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임진왜란 때 명의 선례를 따라, 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조선에 구원병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55] 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은 상소문을 통해 '7조목 서계' 중 "물화가 전과 같지 않으니 중국[大唐]과 소통하지 않아 그런 것인가?"라는 대목이 제일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병자호란과 가도(椵島) 함락을 사실대로 알려 대마도의 이해를 구해야 일본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6]

같은 해 정월 26일에는 인조가 대신들을 인견하고서, 서계의 내용을 청에 보내어 "(차왜가) 긴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트집 잡는 정황이 이상하다"라고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공조판서 구굉(具宏)은 왜정

52)『仁祖實錄』권36, 16년 정월 22일. "差倭平成連來, 以七條事言之. 一曰, 交易物貨, 不如舊, 唐路不通而然耶? 因北狄之難耶? 二曰, 朝鮮使价入日本, 則拜於上壇之間, 日本送使, 則拜於沙中, 未知禮樣如何. 三曰, 歲賜米、太, 勿書賜字. 四曰, 封進價三字, 亦不可書. 五曰, 書翰中, 對馬島稱以貴州. 六曰, 使船來泊處, 以石築之, 俾免風波. 七曰, 石築未易, 則改築館宇云."; 『別差倭謄錄』1권, 무인년 정월 29일에도 위와 같은 差倭의 발언이 別單으로 정리되어 있다.

53) 이하의 서술은 이른바 '7조목 서계'의 처리에 관한 조선 조정의 논의 중에서 청의 대일 통교 문제와 연관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7조목 서계'의 처리에 관한 조선 조정의 전반적인 논의는 김태훈, 2015, pp.194-198를 참고.

54)『承政院日記』제63책, 인조 16년 정월 24일.

55)『仁祖實錄』권36, 16년 정월 24일. "上曰, 我國爲倭所有, 則只隔一帶水, 淸國危矣. 後患不可不慮, 必盡力救之. 壬辰之亂, 天朝之來救, 豈徒爲我國乎? 其勢然也."

56)『承政院日記』제63책, 인조 16년 정월 26일.

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힐문 받을 것을 걱정하며 인조의 제안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이홍주는 청이 왜정 보고를 계기로 일본과 통교하려 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우윤(右尹) 여이징(呂爾徵)은 청이 삼남(三南)에 군사를 주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고, 대사헌(大司憲) 이목(李穆) 역시 여이징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군과 육군을 정비하여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시점에서 왜정 보고는 실행되지 않았고, 인조가 일본의 침입을 철저히 대비하도록 명하는 데에 그쳤다.[57]

사료에 나타나는 발언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 인조가 청에 왜정을 보고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일본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조선은 과거 명에 대해서도 왜정 보고를 수행한 적 있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 명에 일본의 침입이 우려된다고 보고하였고,[58] 임진왜란 이후에도 명에 비정기적으로 왜정을 보고하였다.[59] 조선이 명과 청 각각에 왜정 보고를 수행한 맥락에는 차이가 있지만,[60] 일본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인조는 정월 29일 병자년 통신사로 파견하였던 임광(任絖)을, 이월 7일에는 경상감사(慶尙監司) 이경증(李景曾)을 각각 인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물으며 신중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답하였고 연해 지역의 방비에 대해서 논의할 뿐이었다.[61] 다만 이월 10

57)『承政院日記』제63책, 인조 16년 정월 26일.
58)『宣祖修正實錄』권25, 24년 사월 1일;『明神宗實錄』권242, 萬曆 19년 십일월 4일.
59) 임진왜란 종결 이후 조선과 일본의 통교 재개 국면에서, 명이 조선에 왜정 보고를 요구한 경위와 양상에 대해서는 辻大和, 2018, pp.45-65를 참고.
60) 양자의 차이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요구의 맥락이다. 명이 일본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전쟁 상황이나 전쟁 직후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선이 回答兼刷還使 파견에 앞서 명에 奏文을 보냈던 것도, 戰後 통교의 재개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보고 대상의 일본에 대한 이해도이다. 명은 청과 달리 일본 정보를 수집할 복수의 경로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 셋째, 정보 보고의 동기이다. 청에 대한 조선의 왜정 보고는 통교 주선 요구를 무마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동인이었다. 이와 달리 명에 대한 왜정 보고는 '조선이 일본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처럼 명과 청에 대한 조선의 왜정 보고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양자를 직접 연관 짓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61)『仁祖實錄』권36, 16년 정월 29일, 이월 7일.

일, 청에 주청사(奏請使)로 갔다가 돌아온 최명길은 일본이 침입할 경우 청에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왜정을 보고해야 한다는 데에 인조와 뜻을 같이하였다.[62]

이 무렵 한양 도성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63] 같은 해 삼월 6일 의주부윤(義州府尹) 임경업(林慶業)이 장계를 올려, "명이 일본, 유구(琉球), 안남(安南), 서양(西洋) 등에 청병(請兵)하여 청에 대항하려 한다"라는 풍문을 조정에 보고하였다.[64] 삼월 13일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 정양필(鄭良弼)이 에도막부 초기 가장 큰 규모의 민중 반란이었던 시마바라(島原)의 난에 관한 정황을 보고하였다.[65] 이어서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이의립(李義立)도 부산첨사(釜山僉使) 정원필(鄭元弼)의 보고를 받아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탐문 내용을 장계하였다.[66]

불과 두 달 만에 조정 안팎에서 대일 방면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청에 왜정을 보고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조선 조정의 여론은 일변하였다. 같은 해인 인조 16년(숭덕 3년, 1638) 삼월 20일, 비변사가 청 황제에게 소환되어 심양에 갈 예정인 유림(柳琳)을 통해 구두로 관련 정황을 알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인조는 구두가 아니라 자문(咨文)으로 청에 왜정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재자관(齎咨官)을 정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같은 날 비변사는 신속히 일본에 관한 정보를 보고 받기 위해 한양과 동래부 사이에 마발(馬撥)을 배치하자고 건의하였고, 인조는 이를 허락하였다.[67]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청에 대한 왜정 보고는 입관 이전까지 총 여섯 차례 이루어졌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62)『仁祖實錄』권36, 16년 이월 10일.
63)『仁祖實錄』권36, 16년 이월 10일, 삼월 15일.
64)『仁祖實錄』권36, 16년 삼월 6일.
65)『仁祖實錄』권36, 16년 삼월 13일. 참고로 시마바라의 난은 寬永 14년(1637) 시월 25일부터 寬永 15년(1638) 이월 28일까지, 肥前의 島原와 肥後의 天草 일대에서 일어난 민중 반란을 가리킨다.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라고도 한다. 두 지역의 領民은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라는 소년을 맹주로 삼아 봉기하였고, 幕府軍과 諸藩兵에 의해 진압되었다. 민중 반란(一揆)인 동시에 크리스트교 신앙을 구심점으로 삼은 반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에도막부는 이를 계기로 크리스트교 禁制를 강화하였다. 시마바라의 난의 전개 과정은 松浦章, 2009, p.98을 참고.
66)『別差倭謄錄』권1, 무인년 삼월 19일.
67)『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삼월 20일.

<표 1> 청 숭덕 연간 조선의 왜정자문과 병부 회자 일람

No.	『同文彙考』	발신* (연/월/일)	『來書簿』·『王來書』	수신* (연/월/일)	『淸實錄』	내용
1	報日本吉伊施端作變及館倭動靜咨	3/3/?	朝鮮國王爲傳報倭情(島原之役)事與兵部咨文	3/4/14	3/4/17	시마바라의 난 발발과 진압, '7조목 서계'의 의례 개정 요구
2	報日本誅滅施端餘黨咨	3/5/25	朝鮮國王爲申報倭情事致兵部咨文	3/7/3	없음	시마바라의 난 잔당 소탕, 쇼군의 병세
3	없음	4/8/13	朝鮮國王倭情事與兵部咨文/又附倭國與朝鮮國書	4/9/9	4/9/11	야나가와잇켄 이후 교역 재개 요청 대마도주 서계 원건
4	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	7/3/2	朝鮮國王爲倭情事與兵部咨文	7/3/29	7/3/29	쇼군의 후계자 탄생 축하를 위한 통신사 파견 요청
4-1	兵部知會詳閱日本情形咨***	7/4/1	없음	미상	7/4/1	통신사 파견을 조선 국왕의 판단에 맡김
5	因致賀致祭兼察情形發遣信使咨	8/2/1	朝鮮國王爲遣使日本與兵部咨文	8/3/1	8/3/1	통신사 파견 관련 교섭 내용과 파견 계획
5-1	兵部知會遣使日本詳察情形咨***	8/3/3	없음	미상	8/3/1	交隣의 도보다 정세를 살피는 일이 중요함
6	報信使回還及倭國聞見情形咨	8/12/22	없음	미상	없음	통신사의 귀국 보고

출처: 이 표는『同文彙考』,『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淸太宗實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각 문건의 제목은『同文彙考』와『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을 따른 것이다.

* 왜정자문의 발신 일자는『同文彙考』·『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를 근거로 하였고, 수신 일자는『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에 따랐다. 연도의 숫자는 숭덕 기년을 따른 것이고, 날짜는 음력 월일을 의미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하였다.

** 문서 4에서『同文彙考』에 수록된 자문은 문서 5에 인용된 일부를 뽑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원건의 일부에 불과하다(각주 192번 참조). 반면에『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자문은 원건의 전체를 옮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 문서 4-1과 5-1은 조선이 보낸 왜정자문에 대한 청 병부의 회자(回咨)이다. 조선이

청 병부의 회자를 수신한 일자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왜정 보고를 담은 숭덕 3년(1638)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은 조선이 왜관을 통해 전해 들은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문은 삼월 13일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를 인용하여, 조선이 시마바라의 난 소식을 파악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었다.[68] 『同文彙考』와 『朝鮮國來書簿』에서 확인되는 숭덕 3년 삼월 자 왜정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9]

조선 측은 동래부의 왜관으로부터 일본에 반란이 있었다는 첩보를 접하였다. 동래부는 역관을 차왜의 우두머리인 우치노 콘베에게 보내어 관련 사실을 탐문(探問)하였다. 차왜는 그해 정월 남만(南蠻)에서 유입된 '길이시단(吉伊施端, christian의 음차)'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이후 차왜를 재차 탐문하였더니, 반란 세력이 '30여만 명'에 이르러 막부는 '80여만 명'을 진압에 동원하였는데, 막부군 안에 분란의 소지가 있었고 반란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월 27일 마침내 반란 세력을 소탕하였다고 하였다.[70] 차왜에게 다시 관련 정보를 캐묻자, 자신도 조선에 나와 있어

---

68) 崇德 3년 삼월 자 왜정자문에서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정보는 모두 東萊府使 鄭良弼의 장계를 인용하여 서술되었다. 그런데, 인용된 東萊府使 鄭良弼의 보고 후반부는 釜山僉使 鄭元弼의 馳報를 받아 慶尙左水使 李義立이 올린 狀啓인 『別差倭謄錄』 무인년 삼월 19일 기사와 일치한다. 이는 東萊府使의 장계와 釜山僉使의 보고 모두 같은 譯官의 手本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인 듯한데, 이를 토대로 동래부에서 입수한 일본 정보가 대일 외교를 담당한 官府 사이에서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69)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日本吉伊施端作變及館倭動靜咨」(崇德 3년 삼월), pp.49a-51a;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傳報倭情(島原之役)事與兵部咨文」(崇德 3년 사월 14일), pp.276-278. 이하 崇德 3년 삼월 자 왜정자문에 대한 서술은 이 기사에 따른 것이다.

70) 松浦章은 조선 측이 차왜를 통해 전해들은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정보는 몇 가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선 일본 측 사료와 연구를 종합해보면, 당시 반란 세력은 약 3만에서 3만 7천 명이었고 막부군의 수는 대략 12만 명이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반란 세력과 막부군의 규모는 상당히 부풀려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마바라의 난의 발발 시점은 寬永 15년(1637) 정월이 아니라, 寬永 14년(1636) 시월 25일이었다. 조선 측이 큰 관심을 보인 막부군 내의 분란에 관한 정보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다. 당시 薩摩守었던 시마즈 미쓰히사(島津光久)는 막부군 내에 자신이 부여받은 지위에 불만이 있어 철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시마즈 이에히사(島津家久)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막부 측의 허락을 얻어 귀환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마도를 거쳐 조선에 전달된 시마바라의 난 정보에는 적지 않은 왜곡이 내포되어 있었다. 松浦章, 2009, pp.96-99, p.120의 각주 89번.

본국에서 보낸 서신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여기까지가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이다.

자문은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를 받아 본 의정부(議政府)의 발언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 본국이 왜(倭)와 통호(通好)한 지 40여 년이지만, 평조흥(平調興, 즉 柳川調興)이 참소한 이래로 의심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병자년(1636) 사월[*sic.*][71] 통신사 임광(任絖) 등이 돌아온 후에는 서울 안팎의 인심이 날로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작년 십이월에는 왜차(倭差) 평성련(平成連)이 또 무단으로 나왔는데 기색이 전과 아주 달랐습니다. 당화(唐貨)가 오지 않음을 은근히 허물 삼고, 종래에 뜰에서 배례하던 의례를 개정해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니, 본국이 이에 의심이 없을 수 없어 순검사(巡檢使)를 파견하여 해상의 방비를 순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이남 각지의 성지(城池)를 수축하여 대비하려 하였습니다. …… [중략] …… 이제 또 갑자기 왜에서 변란이 발생했다는 말이 나오니 그 말의 앞뒤가 다릅니다. 두왜(頭倭)와 졸왜(卒倭)가 전하는 것 또한 어긋나는데, 왜인이 교활하고 간사하며 (그들의) 말이 종잡을 수 없음이 실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라 안의 변란은 곧 그들이 숨겨야 할 것인데, 이제 이웃 나라에 말하여 듣게 함은 어째서겠습니까?[72]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은 청에 대한 첫 왜정 보고에서 일본과의 통교

---

71) 崇德 3년 삼월 자 왜정자문에서 조선은 통신사 任絖 등이 '병자년 사월'에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任絖 등의 통신사행은 병자년 즉 인조 14년 팔월 11일 한양을 떠나, 이듬해인 인조 15년 이월 25일에 부산포로 귀국하였다. 병자년 통신사에 관해서는 三宅英利,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서울: 이론과실천, 1991, pp.172-204를 참고.

72)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傳報倭情(島原之役)事與兵部咨文」(崇德 3년 사월 14일), p.278. "本國與倭通好四十餘年, 自平調興構(說)[讒]以來, 便有疑阻之端. 丙子年四月通信使任絖等回還後, 京外人心日益疑懼. 上年十二月倭差平成連又無端出來, 氣色與前頓異. 以唐貨不來, 隱然爲咎, 至於請改從來拜庭之禮. 本國於是不能無疑, 差遣巡檢使巡, 審海上防備. 又修築漢水以南各處城池, 以爲待變計. …… [중략] …… 今又卒發倭中生變之說, 而其言前後不同. 頭倭與卒倭所傳, 又每每參差, 倭人狡詐, 言語變幻, 固其常態. 至於國中之變, 乃渠等所當隱諱者, 而今乃顯言於鄰國之聽者, 何也?" 『同文彙考』와 『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왜정자문은 대체로 문면이 일치하나, 오탈자·이체자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 각주에서 왜정자문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를 기준으로 한다.

를 분명히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최근 대일 관계가 평탄하지 않음을 전달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침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왜인이 교활하고 간사하며, (그들의) 말은 종잡을 수 없음이 실로 언제나 그렇습니다[倭人狡詐, 言語變幻, 固其常態]"라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왜가 일본 내의 변란을 조선에 알린 것은 변방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려는 계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자문은 동래부에 추가 탐문을 명하였으니, 실상을 포착하는 대로 상국(上國) 즉 청에 보고하겠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청이 정부 차원의 경로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것은 숭덕 3년(1638)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이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번 왜정자문에서 일본을 어떤 모습으로 청에 '소개'하였을까?

우선 조선은 숭덕 3년(1638)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에서 시마바라의 난을 '7조목 서계' 관련 외교 갈등보다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인조가 청에 대한 왜정 보고를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7조목 서계'의 처리를 논의하던 인조 16년(숭덕 3년, 1638) 정월 26일의 당상(堂上) 회의 자리였다. 조선 조정이 시마바라의 난에 관해 인지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같은해 삼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왜정자문에는 시마바라의 난이 '7조목 서계'와 관련한 외교적 갈등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분량상으로도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가 자문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7조목 서계'에 관한 내용은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되어 있다.

조선이 청에 대해 왜정 보고를 수행한 계기는 '7조목 서계'와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었다. 이 중 조선의 대일 외교에서 더욱 중요한 현안은 '7조목 서계'에 대한 처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마도의 외교 의례 개정 요구에 대한 조선 조정의 답변이 곧 향후 조선-일본 외교에서 전례(典例)가 될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시마바라의 난이 조선의 대일 관계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차왜가 처음부터 변란의 종식을 분명히 하였거니와, 일본 내의 변란이 조선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크

지 않았다. 다만, 조선 조정은 차왜가 일본의 내란을 조선에 알린 저의를 의심하여 남변의 방비를 가다듬었다.[73] 실제로 『仁祖實錄』·『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 등에서는 조선 조정이 '7조목 서계'관련 의례 개정 요구를 시마바라의 난보다 더 빈번하고 더 중요하게 논의하였음이 드러난다.[74]

하지만 청의 입장에서 둘 중 더 흥미를 느낄 만한 사건은 시마바라의 난이었다. 앞서 서술하였듯 청이 일본과의 통교에 관심을 보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명과 일본의 군사적 연합에 대한 경계였다.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발생한 내란이 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리는 없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병력 "8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면, 일본이 당장 명과 연합하기 위해 국외로 파병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터였다.

청-일 통교의 측면에서도 시마바라의 난은 주목할 만한 정보였다. 일본이 국내에서 대규모 반란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청과의 통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은 일본과 통호(通好)한 지 "40여 년"이지만, 최근에는 일본과 갈등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조선은 차왜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이 통교에 응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통교할 만한 상대도 아님을 청에 시사하였다.

조선이 발송한 첫 번째 왜정자문의 수신처가 청의 '병부(兵部)'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청과 조선의 외교에서 일본 문제가 대두한 계기는 청이 조선에 대일 통교 주선을 요구한 데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청에 일본에 대해 자문(咨文)을 보내야 한다면, 청-일 통교라는 '외교 사안'을 담당하는 예부(禮部)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였다. 그런데도 조선이 청의 병부를 수신처로 하여 왜정자문을 보냈다는 것은 보고의 내용을 '군사 정보'로 상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은 첫 번째 왜정 보고를 담은 숭덕 3년(1638)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에서 시마바라의 난을 전면에 내세움

73) 『備邊司謄錄』 제5책, 인조 16년 삼월 20일.

74) 『仁祖實錄』에는 崇德 3년 삼월 자 왜정자문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東萊府使 鄭良弼의 보고가 전부 생략되어 있다(『仁祖實錄』 권36, 16년 삼월 21일).

으로써, 청의 대일 통교 문제라는 '외교 사안'을 일본의 내란 소식에 대한 보고 즉 '군사 정보 사안'으로 갈음하였던 것이다.

숭덕 3년(인조 16년, 1638) 사월 14일, 청은 조선의 첫 왜정 보고를 자문의 형태로 접수하였다.[75] 당시 심양에 체류하고 있던 사은사(謝恩使) 신경진(申景禛)의 보고에 따르면, 청은 왜정자문의 내용에 대해 의심스러워 하였다고 한다. 신경진 등이 "이처럼 믿지 못하면 차후에 다시 (왜정에 관해) 자문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 청 측에서는 "모든 일은 거짓인지 사실인지 반드시 결말이 난다"라고 답하였다.[76] 또 신경진이 심양에서 보낸 장계에는 잉굴다이와 마푸타가 "왜정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속히 보고하라"라고 요구하였음이 언급되기도 하였다.[77] 『淸太宗實錄』에 "조선이 왜국의 내란 등에 관한 일을 보고하였다"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78] 청이 조선의 첫 번째 왜정 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대상은 역시나 시마바라의 난이었던 듯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이 병부에서 조선의 왜정자문을 접수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이 조선의 왜정 보고를 일본과의 통교를 위한 '외교 사안'으로 인식하였다면, 조선에 왜정자문의 수신처를 예부로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관 이전 청은 조선이 발송한 여섯 건의 왜정자문을 모두 병부에서 접수하였다.

---

75) 홍성구는 『朝鮮國來書簿』와 『淸太宗實錄』에서 '崇德 3년 삼월 자 왜정자문'의 접수 일자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의 '崇德 3년 사월 14일'이 사실에 가깝다고 서술하였다(홍성구, 2010, p.98의 각주 47번). 두 사료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朝鮮國來書簿』의 '崇德 3년 사월 14일'은 청의 內秘書院이 해당 자문을 접수한 날이고, 『淸太宗實錄』의 '崇德 3년 사월 17일'은 청 황제 홍타이지에게 해당 자문의 내용을 상주한 날이라고 추정된다. 『朝鮮國來書簿』의 해당 자문 앞에 "본원에서 번역하고 상주하였다[在本院譯奏]"라고 附記된 것으로 보아, 두 날짜의 차이는 홍타이지에게 상주하기 위해 조선의 왜정자문을 만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한다.

76) 『承政院日記』 제64책, 인조 16년 오월 11일.

77) 『備邊司謄錄』 제5책, 인조 16년 오월 10일.

78) 『淸太宗實錄』 권41, 崇德 3년 사월 17일. "李倧家長(劉士誠)[柳時成], 來報倭國內亂等事. 並隨從人, 亦各賜貂皮銀兩有差, 仍賜宴於館舍.";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pp.336-337. "Oose ini dorgi be, i facuhūrambi seme mejige (alanjima) [alanjime] jihe. wang ni giyajan Lio Sy Ceng de šangname buhengge, bai seke sunja, menggun orin yan, fomcoi jibsihai giyaban gūlha emu juru, buya ilan niylama de menggun sunjata yan. šangnaha inenggi hengkileme jihe hafasa be, genere doroi ini tataha yamun de, aliha amban Mandargan tuwame sarilaha."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이 무렵 조선의 관서와 경기 일대에 파다하던 '명이 일본에 청병(請兵)하였다'라는 소문이다. 소문의 근원지는 조선의 서해안에 출몰하는 명의 한선(漢船)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명 조정의 일각에서는 산동 방면의 수군을 통해 조선과 연합하여 청의 배후를 공략하자는 일명 '연선도노(聯鮮圖奴)'의 복안(腹案)이 제기되었고, 명은 조선에 간헐적으로 선박을 보내어 '비밀접촉'을 이어가고 있었다.[79] 같은 해 사월 17일에도 의주부윤 임경업이 한선이 출현하여 명의 서신을 전달하려 하였음을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비변사는 한선과 접촉한 사실을 청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에서 조선이 명의 일본 청병 소문을 숨겼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80] 이후 좌의정 최명길이 임경업의 군관을 통해 청이 명의 '일본 청병'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발언하자, 인조는 청이 소문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81]

청이 조선에 퍼진 명의 '일본 청병' 소문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때마침 조선에서 접수한 '일본의 내란 소식'은 중요한 '군사 정보'였다고 생각된다. 청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통교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였을 수도 있겠으나, 당장에 명-일 연합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는 것이 급선무일 터였다. 이에 청 측은 조선이 전한 "왜국의 내란 등에 관한 일"에 관심을 보이며 후속 보고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청에 대한 조선의 왜정 보고는 시작부터 '군사 정보'로 취급되었다.

---

79)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pp.236-249. 병자호란 직후 명의 總兵 陳洪範이 요동반도 연해 섬들에 머물면서 가도의 탈환 및 조선과의 연합을 기도하였지만, 명 조정 내부의 반대와 조선 조정의 소극적 태도로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명은 병부상서 陳新甲의 주도로 부총병 王武緯를 登州에 배치하여 조선과의 연합을 도모하였다. 崇禎 13년(1640) 팔월부터 崇禎 15년(1642) 칠월까지, 王武緯는 '宣諭朝鮮副總兵'으로서 세 차례 조선으로 출항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王剛, 「明末王武緯出使朝鮮與"聯鮮圖奴"之議」, 『溫州大學學報』, 2011-05, pp.111-116과 이재경, 2017, pp.254-265를 참고.

80) 『承政院日記』 제64책, 인조 16년 사월 18일.

81) 『承政院日記』 제65책, 인조 16년 오월 2일. 임진왜란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명이 일본에 원병을 청한다는 것은 당대인에게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趙絅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이 일본과 연대하여 청에 대항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았고, 조선 역시 일본과 연대하여 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仁祖實錄』 권36, 16년 오월 13일.

안타깝게도 청이 조선의 첫 번째 왜정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위의 내용이 전부이다. 왜정 보고를 수행하기 이전 조선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우려하였던 바와 달리, 청이 왜정 보고를 계기로 조선에 대일 통교 주선을 요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삼남에 군사를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지만,[82]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청은 조선의 왜정 보고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의 진위를 의심할 뿐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82)『承政院日記』제63책, 인조 16년 정월 26일.

Ⅱ. 청의 대명 전쟁 참전 요구와 조선의 왜정 보고

1.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 문제와 왜정 보고의 연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축약조(丁丑約條)'에서 청은 대명 전쟁에 조선의 병력을 징발하겠다고 공언하였다.[83] 청으로서는 병자호란을 계기로 외번 몽고(外藩蒙古)의 병력 파견 의무를 새롭게 제도화하였던 만큼,[84] 조선에도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과하려 하였을 것이다. 청에 조선군의 대명 전쟁 참전은 군사적·외교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조선군이 참전한다면 대명 전쟁의 명분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청군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도 있었다.[85]

조선이 대명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곧 명과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였다. 물론 조선은 이미 병자호란 직후 청군의 일원으로 가도(椵島)의 명군을 공략하는 데에 참여한 적 있었다. 그러나 인조가 말한 대로 가도 공략전에의 참전은 "중원을 침범"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86] 조선 조정에서는 명과 적대하는 것이 '의리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명이 조선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87] 조선으로서는 청의 참전 요구를 무마할

---

83) 『同文彙考』 別編 권2, 節使, 「定約條年貢諭」(崇德 2년 정월 28일), pp.1a-2a. "朕若征明朝, 降詔遣使, 調爾步騎舟師, 或數萬, 或刻期會處, 不得有悞. 朕今回兵, 攻取椵島, 爾可發船五十隻, 水兵鎗砲弓箭, 俱宜自備.";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p.80. "bi, Ming gurun be dailaki seme sinde joo bithe unggime elcin takūrame yafahan morin i cooha, cuwan i mukei cooha tuttu tumen unggi, tere inenggi tenteke bade isinju seme boljoho de, bilaha coohai ton, isinjire inenggi erin be ume jurcere. te cooha bedereme nikan i Pi doo be darime gaimbi. susai cuwan i miociyang beri jafaha cooha be tucibu."

84) 청이 외번몽고의 병력을 동원한 경위에 대해서는 丘凡眞·李在璟, 「崇德元年(一六三六)の外藩蒙古会盟と丙子胡乱」, 『史林』 100, 2017을 참조.

85) 한명기, 2009, pp.214-227. 청 황제 홍타이지는 병자호란 직후인 崇德 2년 칠월 26일 錦州 일대의 방어를 담당하던 명의 總兵 祖大壽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조선의 군대가 보병전 수행과 조총 사용에 능하여 城池를 공략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淸太宗實錄』 권37, 崇德 2년 칠월 26일).

86) 『仁祖實錄』 권34, 15년 삼월 20일.

87) 이재경, 2017, pp.267-269.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참전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책이었다. 이에 인조 15년(숭덕 2년, 1637) 구월, 인조는 전란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병력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청 황제 홍타이지에게 호소하였다.[88]

같은 해 십일월, 청 황제 홍타이지는 "징병은 시세를 헤아려 시행할 것[徵兵自當量時勢]"이라고 답하였다.[89] 인조는 당장 병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에 안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90] 하지만 당시 청군은 금주(錦州)·송산(松山) 일대에서 명군과 대치하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내몽골 초원을 거쳐 명의 내지를 침공하기도 하였다.[91] 청의 대명 전쟁이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청은 언제든 다시 조선에 대명 전쟁 참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결국 병자호란 직후 조선의 대청 외교에서 대명 전쟁 참전 문제는 중대하면서도 긴급한 현안이 되었다.

주목할 점은 조선 조정 내에서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워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려는 구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인조 15년(숭덕 2년, 1637) 구월 11일, 좌의정 최명길이 "왜정이 평소와 다르니 남변의 방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여 청의 파병 요구를 회피할 명분으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청이 수군이나 선박의 조발을 요구한다면 일본의 침입 우려를 핑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조판서 이시백(李時白) 역시 청에서 자주 왜정을 물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명길의 제안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일본을 구실로 참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속임수임이 드러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92]

그런데 숭덕 3년(인조 16년, 1638) 오월 2일, 조선 조정은 사은사로 심양에 간 신경진의 장계로 청 황제의 파병 요구를 전달받았다. 인조는 "남변의 우환이 있어 핑계 댈 말이 많으니 속히 사신을 보내어 처리하라"라고

---

88)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奏爲徵兵疑懼事」(崇德 2년 십일월 7일), pp.242-244.
89)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2년 십일월 17일), pp.38-39.
90) 『仁祖實錄』 권36, 16년 이월 10일.
91) 崇德 연간 청의 대명 전쟁에 대해서는 閻崇年, 『淸朝開國史 3』,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pp.201-255를 참고.
92) 『承政院日記』 제56책, 인조 15년 구월 11일.

지시하였다.[93] 인조가 그동안의 신중론을 철회하고 왜정을 핑계로 파병을 무마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청 황제의 파병 요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된다. '정축약조' 이후 조선은 내심 파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앞서 청 황제 홍타이지가 "징병은 시세를 헤아려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한 칙서를 내렸고, 신경진은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심양에 파견되어 있었다.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청 황제의 갑작스러운 파병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오월 11일 인조는 심양에서 돌아온 신경진을 인견하여, 청 황제가 대명 전쟁에 조선군 5천 명을 조발할 것이고, 해당 병력을 안주(安州)와 의주(義州) 사이에 대기시키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인조는 신경진에게 청의 대명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을 자세히 물으며 청 황제의 파병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하였다.[94] 좌의정 최명길은 청이 조선군을 이끌 "부장(副將)" 급의 지휘관으로 지목한 유림을 평안병사(平安兵使)로 삼아 약간의 군병을 이끌고 가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인조는 이 역시 명과의 전쟁에 군사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답하였다.[95] 조선으로서는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 타개책을 강구해야 하였고, 왜정 보고가 가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었다.

인조 16년(숭덕 3년, 1638) 삼월, 조선이 왜정 보고를 시작한 계기는 일본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과 일본의 통교를 차단하기 위함이 주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 황제의 파병 요구가 구체적으로 전해진 이상, 조선이 왜정 보고를 수행하는 데에 고려할 요인은 그뿐이 아니었다. 이제 조선으로서는 청과 일본의 통교를 차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왜정 보고를 활용할 동기가 생겼다. 조선 조정은 같은 해 오월 25일, 두 번째 왜정 보고(<표 1>의 문서 2)를 서둘러 실행하였다.

이번에는 비변사가 먼저 왜정 보고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같은 해 오월

93)『承政院日記』제64책, 인조 16년 오월 2일.
94)『承政院日記』제64책, 인조 16년 오월 11일.
95)『仁祖實錄』권36, 16년 오월 11일,

10일, 비변사는 청이 지난번 왜정자문에 대해 후속 보고를 요구하였음을 언급하며, 근래 올라온 동래부사의 장계를 토대로 왜정자문을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96] 오월 19일, 비변사는 청에서 왜정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문의 조어(措語)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계문(啓聞)하였다.

>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떠도는) 말이 청나라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올해 삼·사월 이전에는 온 나라가 흉흉하여 동요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낸 자문 내용을 저들이 실제 그렇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 이후로는 민심이 꽤 진정되어 다들 올해는 반드시 남변의 우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을 저들이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잘 살펴서 조어(措語)하지 않으면, 저들이 '봄에 왜(倭)에 대해 보고한 말은 모두 본국에서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징병을 정지시키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는 말을 전부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97] (밑줄과 강조는 필자)

같은 기사에서 인조는 삼월에는 "축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었고, 징병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답하며, 청이 왜정 보고의 내용을 의심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98] 그 사이 심양에서는 잉굴다이와 마푸타가 심관을 찾아 왜정에 대한 후속 보고를 재촉하였다.[99]

비변사에서 지적한 대로 두 번째 왜정 보고의 관건은 왜정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에 있었다. 앞서 조선 조정이 염려하였던 것과 달리, 대마도의 의례 개정 요구는 일본의 군사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음력 오월에 접어들어 장마철이 되면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하였다.[100] 후술하겠지만 조선 조정은 차왜에게서 시마바라

---

96)『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10일.

97)『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19일. "本國閭巷之言, 無不入於淸人之聽. 今年三四月以前, 則擧國洶擾, 故前去咨文, 彼以爲實然矣, 自今月以後, 人情頗定, 皆今年則必無南患, 此言彼無不聞之理, **今若不能審爲措語, 則彼將曰, 春間倭報之言, 皆出本國築城停兵之計云乎**, 則前頭所言, 皆不入耳, 甚爲可慮." (밑줄과 강조는 필자)

98)『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19일.

99)『瀋陽狀啓』무인년 오월 18일.

100)『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10일;『承政院日記』65책 인조 16년 오월 19

의 난이 완전히 평정되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일본에 우려할 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없음을 인지하기도 하였다.[101] 객관적으로 일본의 동태에 예측 불가능한 지점이 줄어들자, 조선은 이전처럼 '일본의 침입 우려'를 왜정 보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없었다.

그 결과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로 작성된 왜정자문(<표 1>의 문서 2)은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 4건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시마바라의 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였다.[102] 자문에 인용된 삼월 22일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에 따르면, 같은 달 15일 비변사는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정보의 허실을 가늠하기 위해 동래부에 한 가지 방책을 지시하였다.

> 왜인이 전후로 말한 바가 같지 않고 평성련(平成連, 우치노 콘베)과 졸왜(卒倭)의 말이 매번 그 뜻에 차이가 있으니 (속셈을) 헤아릴 수 없다. 거짓이든 사실이든 이미 도적을 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람을 대마도에 보내어 축하하는 것이 예에 마땅한 바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그 실상(實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홍희남(洪喜男) 등에게 (대마도에) 사람을 보내는 건을 관왜(館倭)에게 말하게 하여 그가 답하는 바를 살피라.[103]

이에 따라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시마바라의 난이 평정된 것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내겠다고 제안하자, 차왜 우치노 콘베는 막부에서 변란 소식을 허락 없이 이웃 나라에 전한 죄를 물을 수 있다며 한사코 만류하였다. 곧이어 역관 홍희남 등이 시마바라의 난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막부군 내의 분란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처결되었는지를 묻자, 차왜 우치노 콘베

일.

101)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日本誅滅施端餘黨咨」(崇德 3년 오월 25일), pp.51a-54a;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申報倭情事致兵部咨文」(崇德 3년 칠월 3일), pp.285-288.

102)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日本誅滅施端餘黨咨」(崇德 3년 오월 25일), pp.51a-54a;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申報倭情事致兵部咨文」(崇德 3년 칠월 3일), pp.285-288. 崇德 3년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의 내용에 대한 서술은 후자의 기사에 따랐다.

103)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申報倭情事致兵部咨文」(崇德 3년 칠월 3일), p.285. "倭人前後所言旣不同, 而平成連與卒倭之言, 每每參差其言, 有不可測. 而虛實間, 旣聞滅賊之言, 則差人島中以致賀意, 禮所當然, 而亦可因此得其實狀. 先令洪喜男等將此送人一款, 言於館倭, 以觀其所答."

는 제법 성실히 답변하였다.

이번 왜정자문에는 “관백(關白)”[에도막부의 將軍, 이하 본문에서는 ‘쇼군’]의 병세에 관한 내막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삼월 25일 동래부사 정양필은 “쇼군이 작년 봄부터 병세가 낫지 않아 오랫동안 정무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대마도 측의 발언을 보고하였다. 사월 11일 동래부사 정양필의 보고에서는 쇼군의 병세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사월 1일 비변사는 동래부에 다시 한번 역관 홍희남을 보내어 쇼군의 쾌유와 반란의 평정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의 파견을 대마도 측에 제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차왜는 쇼군이 “민심을 시험하고자 병을 핑계 삼았음[欲探試下情 , 故爲托病]”을 밝히며 축하 사절의 파견을 극구 만류하였다.[104)]

이외에도 오월 7일 동래부사의 보고에는 대마도주가 갑자기 쇼군의 명으로 에도에 소환되었다는 등의 정황이 거론되었다. 자문은 일본의 동태가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축하 사절의 파견을 명분 삼아 차왜를 압박하여 시마바라의 난과 쇼군의 병세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었다.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2)에서 조선은 구태여 동래부사의 보고를 장황하게 인용하는 형식으로 차왜의 말이 계속해서 달라졌음을 청에 낱낱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님’을 강조한 숭덕 3년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의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최근 파악한 왜정을 충실히 알리면서도,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고 일본의 동태가 우려됨을 청에 전달하였다. 이번 왜정자문의 수신처는 전과 마찬가지로 청의 병부였다.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2)[105)]은 진주사

---

104) 당시 에도막부의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이다. 이에미쓰는 元和 9년(1623) 막부 쇼군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병환이 있었지만, 寬永 14년(1637) 초부터 寬永 15년(1638)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정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병에 시달렸다. 특히 寬永 14년 시월까지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같은 해 십일월 9일 시마바라의 난 발발 소식을 접수하여 정무에 복귀하였고, 이듬해 정월 27일에는 막부 의례에도 참석하였다. 藤井讓治,『德川家光』, 東京: 吉川弘文館, 1997, pp.118-124.

105) 崇德 3년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은 中國國家博物館 編,『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明淸檔案卷(淸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p.12-13에 「後金崇德六年

(陳秦使) 홍보(洪霦)의 편에 부쳐졌다. 그에 앞선 같은 달 18일, 인조는 비변사에 문답 별단을 갖추어 올리도록 하였는데, 진주사 홍보가 입조(入朝)하였을 때 청 측의 질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106] 비변사는 그중 왜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을 제안하였다.

> 만약 왜정에 대하여 물으면 대답하기를, '지난번 자문에 진술하였던 도원(島原, 시마바라)의 변란은 지금까지 그 사실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봄 이후로 방비(防備)를 새롭게 하여 변란에 대비하도록 신칙(申飭)하고 있는데, 바닷길이 멀리 막혀 있어 왜적의 동태를 상세히 들을 방법이 없다. 변방에서 공연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확실하지 않은 말들은 감히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 만약 분명한 소식이 있게 되면 본국에서 즉시 자문을 보내어 보고할 것이다.'라고 해야 합니다.[107]

비변사는 왜정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언을 피하도록 주문하였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왜정 보고의 형태가 말이든 글이든 조선은 한결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번 왜정자문이 별도의 재자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주사 홍보의 편에 함께 부쳐졌다는 사실이다. 진주사 홍보는 청 황제의 파병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조선의 사정을 알리러 파견되었고, 해당 내용을 전주(轉奏)하도록 요청하는 예부 자문은 이번 왜정자문과 같은 날인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로 작성되었다.[108] 같은 해 칠월 3일, 진주사 홍보는

三月朝鮮國王爲申報倭情差陪臣左贊成洪寶賚兵部咨文」라는 제목으로 그 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목에는 두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後金이 아니라 淸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왜정자문의 작성일자가 '崇德 6년 삼월'이 아니라 '崇德 3년 오월 25일'이라는 점이다. 해당 왜정자문의 작성일자를 잘못 표기한 것은 문서 말미에 "연월이 전과 같다[年月同前]"라고 하였을 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朝鮮國來書簿』에는 陳奏使 洪霦가 가져간 崇德 3년 오월 25일 자 예부 咨文이 바로 앞에 수록되어 있어, 해당 왜정자문이 같은 날인 崇德 3년 오월 25일 자로 작성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06)『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18일.

107)『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오월 20일. "若問倭情, 答曰, 頃日咨文中所陳島原生變虛實, 至今未能的知, 本國自今春之後, 申飭防備日新待變, 而海路隔遠, 凡係敵情, 未由詳聞, 至於邊上虛驚不的之言, 不敢取實, 前頭如有的聞, 則本國, 當卽移咨爲報云云."

108)『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徵兵事致禮部咨文」(崇德 3년 칠월 3일), pp.281-285.

징병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예부 자문과 함께 왜정자문을 청에 전달하였고, 만문(滿文)으로 번역하여 상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109] 조선이 이번 왜정 보고를 수행한 계기가 청 황제의 파병 요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징병령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파견한 진주사 편에 왜정자문이 부쳐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물론 조선은 징병령 철회를 요청하는 예부 자문에 왜정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예부 자문에서 조선이 징병령 철회를 요청한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난 해인 숭덕 2년 십일월 17일 자 칙서에 "징병은 시세를 헤아려 시행할 것"이라는 청 황제의 발언이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가뭄과 기근이 심하여 파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110] 청 황제의 파병 요구가 조선에 전해진 것을 계기로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2)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병령 철회를 요청하는 자문에 왜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조가 일본을 구실로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11] '일본의 침입'에 대한 우려가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할 명분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인조로서는 청-일 통교 문제라는 또 하나의 외교 현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왜정을 핑계로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려 한다면, 청에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로 간주할 소지가 다분하였다. 최악의 경우 조선은 대명 전쟁에도 군사를 파견하고, 청과 일본의 통교가 성사되는 것도 감내해야 할 터였다.

결과적으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징병령 철회를 요청하는 예부 자문에 '왜정의 우려스러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왜정자문에서도 대명 전쟁 참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에 조선은 두 자문을 같은

109) 『瀋陽狀啓』 무인년 칠월 3일.
11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徵兵事致禮部咨文」(崇德 3년 칠월 3일), pp.281-285.
111) 『承政院日記』 제56책, 인조 15년 구월 11일.

날 작성하여 같은 날 청에 전달하였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조선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명 전쟁 참전 문제에 왜정 보고를 활용하는 '우회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이 이처럼 신중을 거듭하여 징병령의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사 홍보가 가져온 자문은 청 황제 홍타이지에게 상주되지 못하였다. 같은 해 칠월 10일, 범문정(范文程)·잉굴다이·마푸타 등은 심관을 찾아 진주사 홍보가 가져온 자문과 칙서의 초본(草本)을 내보이며, "자문이 매우 마땅하지 않아 감히 황제께 올리지 못하고 말로만 아뢰었다"라고 전하였다. 청 측은 자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소현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진주사가 가져온 방물(方物)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얼마 후 청 측은 다시 심관을 찾아 세자와 대군, 진주사 홍보 등을 꿇어 앉히고,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고 쉽게 말을 잊고 빨리 약조를 배반하는가?"라는 청 황제의 말을 전하였다.[112)]

같은 날 청 황제 홍타이지는 조선의 파병 회피 시도를 강하게 질책하는 칙서를 내렸다. 홍타이지는 이 칙서에서 '정축약조' 중 조선군의 징발에 관해 명시된 내용을 상기시키며, "징병은 시세를 헤아려 시행하겠다고 하였지, 징병을 면제하겠다는 말이 (지난해) 칙서에 있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앞서 잉굴다이와 마푸타가 구두로 전한 '조선군 5천 명을 국경 근처에 대기시키라'라는 명령은 문자화되어 칙서에 명시되었다. 칙서의 말미에는 남한산성에서의 항복과 심양에 인질로 머무르는 두 왕자를 벌써 잊었느냐는 협박성 발언까지 포함되었다.[113)] 이튿날인 칠월 11일, 진주사 홍보는 심양에서 내쫓겨 귀국길에 올랐고,[114)] 홍타이지의 칙서는 홍보에 의해 조선 조정에 전해졌다.[115)]

조선의 '참전 회피 시도'가 만들어낸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이번 왜정 자문에 대한 청 측의 반응은 사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2)은 홍

112)『瀋陽狀啓』 무인년 칠월 10일;『瀋陽日記』 무인년 칠월 10일.
113)『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3년 칠월 10일), pp.44-46.
114)『瀋陽日記』 무인년 칠월 11일.
115)『仁祖實錄』 권37, 16년 칠월 24일.

타이지 재위 기간에 조선이 보낸 왜정자문 중 유일하게『淸太宗實錄』에 수록되지 않았다. 청에서 조선이 가져온 두 건의 자문을 홍타이지에게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조선이 청에 보낸 두 건의 숭덕 3년(1638) 오월 25일 자 자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청 황제의 질책을 담은 칙서의 내용이 조선 조정에 전해지자, 조선은 그토록 회피하고자 하였던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팔월 6일 잉굴다이와 마푸타는 조선군이 팔월 23일까지 심양에 도착하도록 요구하면서, 청 황제가 정한 군기(軍期)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116] 팔월 13일, 기한을 맞추는 데에 급급하였던 인조는 우선 임경업에게 팔월 23일까지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심양에 가서 본진이 곧 당도할 것임을 알리게 하였다.[117] 한편, 인조는 명과 조선 사이의 연락책이었던 명의 총병 진홍범에게 파병이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도록 하였다.[118]

팔월 27일, 요토(Yoto, 岳托)와 두두(Dudu, 杜度)가 이끄는 청군의 선봉이 출발할 때까지 조선군이 도착하지 못하자, 잉굴다이와 마푸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심관을 찾아 조선군의 도착을 독촉하였다.[119] 결국 구월 4일 도르곤(Dorgon, 多爾袞)이 이끄는 청군의 후진(後陣)마저도 출발해버리자, 같은 날 잉굴다이와 마푸타가 심관을 찾아 격노를 표출하였다.[120] 홍타이지의 명을 받은 마푸타는 이튿날 뒤늦게 봉황성(鳳凰城)에 도착한 조선군에 "너희 나라 군사는 이제 쓸 데가 없으니 데리고 돌아가라. 가까운 때에 응당 사관(査官)을 보낼 것이다"라고 일갈하였다.[121]

조선은 같은 해인 숭덕 3년(1638) 구월 17일 자 자문을 통해 출병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영의정 최명길을 심양에 보내어 사정을 해명해야 하였다.[122] 시월 9일 청 황제 홍타이지는 자신의 출정을 하

116)『瀋陽日記』무인년 팔월 6일.
117)『備邊司謄錄』제5책, 인조 16년 팔월 13일. 의부주윤 임경업은 심양과의 밀무역이 발각되어 유배 중이었는데, 청의 파병 요구로 사정이 급해지자 助防將으로 敍用되었다.
118)『仁祖實錄』권37, 16년 팔월 23일.
119)『瀋陽狀啓』무인년 구월 3일
120)『瀋陽狀啓』무인년 구월 8일.
121)『瀋陽日記』무인년 구월 5일;『仁祖實錄』권37, 16년 구월 18일.
122)『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朝鮮國王爲師期延誤事與兵部咨文」(崇德 3년 시월

루 앞두고서 호부승정(戶部承政) 잉굴다이와 예부승정(禮部承政) 만다르한(Mandargan, 滿達爾漢·滿月介)을 최명길에게 보내어 이번 원정[123]이 끝난 이후에 논죄할 것이라는 대답을 전하였다.[124] 조선은 청 황제 홍타이지의 대명 전쟁 참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비록 이번 작전에 조선군을 동원하지는 못하였지만, 청으로서는 조선이 대명 전쟁에 군사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축약조' 이후 조선이 줄곧 주장하던 대로 군사를 보낼 상황이 여의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청 황제 홍타이지는 이듬해인 숭덕 4년(인조 17년, 1639) 정월, 조선에 수군 1천 명을 동원하여 러푸툰(Lefu tun, 熊島)에 기거하는 키야하찬(Kiyahacan, 慶河昌·加哈禪) 일당을 토벌하도록 하였다.[125] 조선은 같은 해 삼월 22일부터 사월 25일까지, 포수(礮手) 4백 명과 전수(箭手) 1백 명으로 구성된 군사 5백 명과 병선(兵船) 112척을 동원하여 작전을 수행하였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을 청에 보고하였다.[126] 이를 계기로 청은 조선이 보유한 수군과 포수의 실력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27]

8일), p.303.

123) 청군은 崇德 3년 구월부터 崇德 4년 삼월까지 북경 주변과 산동 齊南 일대를 침공하여 대대적인 약탈전을 수행하였다. 『瀋陽日記』에 따르면 청 황제 홍타이지 역시 같은 해 시월 10일 錦州·寧遠 방면으로 직접 出陣하여 십일월 28일 귀환하였다. 閻崇年, 2014, pp.229-237.

124)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 3년 시월 9일), pp.632-634.

125)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4년 정월 18일), pp.54-55. 청의 병부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이 자문에 따르면, '慶河昌 일당'은 오늘날 연해주 일대인 極東 지방에서 모피를 바치는 거주민이었지만, 만주어로 'Lefu tun'이라 불리는 熊島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청에 進貢하지 않고 함경도 慶興 등지에 왕래하며 조선과 교역하였다. 'Kiyahacan'은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167445-001에 등장하는 만주어 이름이고, 위 崇德 4년 정월 18일 자 병부 자문에서는 '慶河昌', 『淸太宗實錄』에서는 '加哈禪'이라고 각각 음차하여 표기되었다.

126) 『淸太宗實錄』 권46, 崇德 4년 오월 4일;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回報島役事與兵部咨文」(崇德 4년 유월 26일), pp.343-345. 조선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청 황제 홍타이지의 명령에 따라 키야하찬 일당에 대한 토벌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불과 3개월여 전 조선군이 대명 전쟁에의 출병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계승범은 조선이 이번 작전에 '예외적으로' 적극성을 보인 이유로 "정벌의 대상이 명이 아니고 오랑캐였다"라는 점을 꼽으면서, "출병의 목적이 다른 오랑캐를 치는 것이었으므로, 君父의 나라인 명을 처야했던 이전 사례들과는 달리 조선 조정은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조선 지배층의 중국 인식』, 서울: 푸른역사, 2009, p.233).

2. 숭덕 4년 왜정 보고의 정보 가공

숭덕 4년(인조 17년, 1639) 유월 4일, 청 황제 홍타이지는 인조의 계비 조씨(趙氏)를 왕비로 책봉하기 위해 호부참정(戶部參政) 마푸타와 형부참정(刑部參政) 바하나(Bahana, 巴哈納)를 파견하였다.[128]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동래부에는 차왜의 선발대가 나와 있었고, 이들은 야나가와잇켄(柳川一件)[129]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차왜가 나올 것임을 알렸다.[130] 우의정 심열(沈悅)은 칙사와 차왜가 조선에 머무르는 시기가 겹치면 서로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차왜를 빨리 접대하여 돌려보내자고 하였다.[131] 비변사 역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의 칙사 일행이 근래 도성에 떠도는 "차왜가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등의 와언(訛言)을 듣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또 비변사는 지난해 오월 이후 왜정 보고가 없어 청이 의심하는 듯하니, 근래의 왜정을 자문으로 작성하여 보내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일단 보류하라고 명하였다.[132]

---

127) '정축약조'에서 청은 일본에 관련한 언급을 전후로 兀良哈의 刷送을 요구하였다. 그 중 일본을 언급한 문장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東邊의 兀良哈 가운데 저쪽으로 달아나 사는 자들은 다시 더불어 무역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다면 바로 잡아 보내야 한다[其東邊兀良哈, 避居於彼者, 不得復與貿易. 若見之, 便當執送.]"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東邊의 兀良哈'이란 청이 조선에 刷送을 요구한 向化胡人과는 구별되는 집단으로, 'Lefu tun'에 도망하여 살면서 함경도 慶興 등지에 왕래하던 키야하찬 일당 등을 지칭한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구절에서 "저쪽[彼]"을 문맥상 일본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정축약조'에서 청이 일본에 관심을 보인 이유 중 하나가 키야하찬 일당을 토벌한 것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28) 『淸太宗實錄』 권47, 崇德 4년 유월 4일.

129) 柳川一件은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사이의 세력 다툼 중에 폭로된 일명 '국서개작사건'을 말한다. 寬永 12년(1635)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직접 판결을 내려,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는 종전대로 대마도를 지배하고 對조선 외교를 전담할 수 있게 되었고,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쓰가루번으로 유배되었다. 이를 계기로 막부는 對조선 통교제도를 쇄신하였다. 쇼군의 외교상 칭호는 '日本國大君'으로 결정되었고, 일본 국서에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대마도의 외교를 담당하던 사찰 以酊菴의 주지로 南禪寺를 제외한 京都五山의 승려들이 교대로 파견되었다. 이를 '以酊菴輪番制'라고 하며, 막부는 이를 통해 對조선 외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柳川一件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書き替えられた國書: 德川・朝鮮外交の舞台裏』, 東京: 中央公論社, 1983을 참고.

130) 『別差倭謄錄』 권1, 기묘년 유월 7일.

131) 『承政院日記』 제69책, 인조 17년 유월 10일.

132) 『承政院日記』 제69책, 인조 17년 유월 17일.

같은 해 유월 25일, 청의 칙사가 한양에 도착하였다.[133] 이튿날 청의 칙사를 영접하는 하마연(下馬宴) 자리에서 인조가 지난해 출병 기한을 어긴 것에 대해 언급하자, 칙사 마푸타는 가을에 사관이 별도로 나올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마푸타는 지난 중원 침공 때 북경(北京)·영원(寧遠)·금주(錦州) 등지에서 청군이 거둔 승리를 거론하며, 앞으로의 대명 전쟁에 조선의 기병(騎兵)·보병(步兵)·선척(船隻)을 조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기조(李基祚)는 "왜국의 정세가 전과 달라 방비가 급하니 남방의 주사(舟師, 수군)를 내어쓰기 어렵다"라고 답할 것을 인조에게 제안하면서, 얼마 전 비변사에서 왜정 보고를 제안한 것도 같은 의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청의 칙사가 황제의 명으로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왜정을 거론하여 회피하려 든다면 "공갈하는 계책[恐喝之計]"으로 여길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134]

유월 29일 익일연(翌日宴) 도중에는 청의 칙사 마푸타가 "듣자 하니 왜사(倭使)가 (조선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나보게 하여 교린(交隣)의 길을 열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차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무마하였다.[135] 다음날 인조는 조정 대신을 인견하여 칙사의 '왜사 접견 요구'에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인조는 칙사의 대일 통교 발언이 우연이 아니며, 청이 일본의 병기(兵器)를 무역하려 한다고 보았다. 그러자 영의정 최명길은 청과 일본의 통교가 반드시 조선에 화를 미칠 것이라고 하며, 조선이 중간에서 통교를 주선하기에 난처하다는 뜻을 청 황제에게 알리자고 주장하였다. 최명길은 또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청의 통교 의사를 알리는 한편, 청에 핍박받는 조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일본이 조선을 도울 리 없다고 하며 반대하였다.[136]

한편, 선발대가 예고한 시기보다 조금 늦은 인조 17년(숭덕 4년, 1639) 칠월 21일 대마도의 차왜가 동래부에 도착하였다.[137] 차왜 시마오 콘노스

133)『仁祖實錄』권38, 17년 유월 25일.
134)『承政院日記』제69책, 인조 17년 유월 26일.
135)『承政院日記』제69책, 인조 17년 유월 29일. "巳時, 上幸南別宮, 行翌日宴, 勅使[曰], 得聞倭使出來云, 使吾儕相見, 以開交隣之道. 上曰, 時未出來."
136)『仁祖實錄』권39, 17년 칠월 1일.

케(嶋雄權之介; 조선 사료에서는 平智連)와 아리타 모쿠베는 조선의 예조 참의(禮曹參議)·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각각 작성된 간에이(寬永) 16년(1639) 오월 자 대마도주의 서계를 전하였다. 해당 서계는 야나가와잇켄이 수습되었음을 알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례 송사(送使)와 그에 수반한 무역의 재개를 바라는 내용이었다.[138]

차왜는 야나가와잇켄 이후 중단되었던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와 겐포(玄方) 몫의 무역을 이정암(以酊菴)의 명목으로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차왜는 야나가와잇켄이 발발한 을해년(인조 13년, 1635) 이래 야나가와 시게오키와 겐포 몫의 공무목(公貿木, 일본과의 공무역에 지불 수단이 되는 목면)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향후 추가로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동래부의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이정암의 명목으로 사선(使船)을 보내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미지급된 공무목을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동래부와 차왜 사이에는 신경전이 벌어졌다.[139]

경상좌수사 이의립은 차왜가 요구한 사항이 조정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부산첨사 정원필의 보고를 인용하여 장계를 올렸다. 이 장계는 동래부의 역관이 차왜와 접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왜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담겨있다.

(A) 도주(島主)께서 기꺼워하지 않을 것이나 억지로 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장수들이 귀국이 몇 해 전 전란을 입은 일을 듣고 여러 번 도주에게 묻기를, "조선이 전란을 입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나라와 교분이 깊어 모른 척할 수 없으니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도주께서 답하여 "이미 강화하여 적병이 물러갔습니다."라

137)『別差倭謄錄』권1, 기묘년 칠월 28일.

138)『別差倭謄錄』권1, 기묘년 칠월 30일. 인조 17년 대마도 측의 정례 송사 및 무역 재개 요구는 에도막부의 對조선 무역량 증가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에도막부는 같은 해 칠월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는 조처를 반포하기에 앞서, 대마도주에게 나가사키에서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국산 약재·생사·비단 등을 조선에서 수입하도록 하였다. 같은 이유로 에도막부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와 사쓰마에도 무역량의 증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木村可奈子, 2015, p.6를 참조.

139)『邊例集要』권2,「送使」, 己卯년 칠월.

> 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새어나간다면 도주께서는 (사실을) 숨겼다는 문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주화(主和)한다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답서가 (우리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대군(大君, 쇼군의 외교적 칭호)께 고하여 '조선이 몇 해 전 전란을 입은 뒤 팔도(八道)의 형체가 없어져 접대하기 어려운 듯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도주께서는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140] (밑줄과 강조는 필자)

인용문 (A)의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장수[我國年少將官]"란 막부의 고위 관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141] 물론 당시 일본 국내에 실제로 조선을 구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용문 (A)에 나타난 발언을 통해, 차왜가 조선 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하였다는 사실이다. 막부가 논의하였다고 하는 조선에 대한 '원조'는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

이듬해인 인조 18년(1640) 사월, 조선이 문위역관사(問慰譯官使)로 파견한 홍희남과 대마도주의 대화를 보면, 막부의 '원조'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다. 이때 대마도주는 홍희남에게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주는 조선이 청의 침공을 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막부의 "출병(出兵)"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142] 이를 통해 인용문 (A)에서

---

140)『別差倭謄錄』권1, 기묘년 칠월 30일. "島主之榮幸, 雖不快許, 不可强請. **我國年少將官等及聞, 貴國年前被兵之事, 常常探問於島主曰, 朝鮮被兵的實則, 與我國交道甚好, 不可越視不援乎.** 島主答, 以已講和退兵爲言爲有置, 萬一如此之事漏泄則, 島主難免其隱諱之責, 常億悶慮, 欲免主和朝鮮之任. 今番回書不從則, 以此爲證, 將告于大君曰, 朝鮮年前被兵後, 八道無形, 似難接待. 是如云則, 島主多有發明, 深可好也." (밑줄과 강조는 필자)

141)『別差倭謄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차왜가 조선을 대화상대 하면서 대마도를 가리켜 "我國"이라는 표현을 쓴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別差倭謄錄』권1, 기묘년 칠월 30일 기사에서 차왜는 쇼군이 대마도주에게 하달한 對조선 외교에의 지시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장수[我國年少將官]"는 막부 측 인사라고 보아야 하고, 조선에 대한 원조 논의 역시 대마도 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부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참고로 박정슬, 2018, p.89에서도 조선 원조 논의의 주체를 "막부의 젊은 관리"라고 보았다.

142)『仁祖實錄』권40, 18년 오월 15일. "島主曰, 關白政尙嚴峻, 執政皆俊傑. 初聞貴國被

거론된 막부의 '원조'란 조선에 '출병'하는 것이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143]

사실 대마도의 차왜가 막부의 '출병' 의사를 조선에 전한 사례는 이전에도 왕왕 있었다. 인조 5년(1627) 삼월, 동래부의 왜인이 정묘호란의 발발을 인지하고서 전란 소식을 대마도주에 알리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논거로 제시한 것이 대마도주가 나서서 막부의 '출병'을 무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44]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정묘호란의 종식을 알리며 내원(來援)하지 말도록 하는 한편, 당시 진행 중이던 공무목을 둘러싼 갈등을 대마도에 유리하게 처리해주었다.[145]

인조 7년(1629) 윤사월에는 대마도에서 파견된 겐포(玄方)가 상경(上京)하여, 쇼군이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대마도주가 나서서 이를 무마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자리에서 겐포는 쇼군이 오랑캐를 섬멸하고 명에 충성을 표하여 조공의 길을 열고자 함을 전하였다.[146] 겐포의 발언은 과거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내세웠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조선 조정은 대마도주에 서계를 보내 "요동을 평정하고 명에 조공하겠다[平遼通貢]"라는 발언을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하였다.[147]

병자호란이 종식된 직후인 인조 15년(1637) 이월에도, 동래부의 왜인은

兵, 莫不扼腕, 有乘時出兵之議. 吾圖之, 事遂寢. 然而關白常以吾爲疑, 故卽今方遣近臣於此, 使之暗察島中形勢, 兼探貴國事情. 若以貴國之事, 一一轉報關白, 則必致生事矣."

143) 인조 21년 이월 인조는 출발을 앞두고 있던 통신사 三使를 인견하여, 일본이 조선과 청의 관계에 관해 질문할 것에 대비한 지침을 일러주었다. 이때 上使 尹順之가 "저들이 만약 '귀국이 청국에 침략당하였으니 交好의 도리상 무심할 수 없다. 우리가 장차 出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또한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인조는 '일단은 扶持하고 있고 또한 兵禍를 입은 피해가 없으니 出兵하여 구원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청국이 한창 강성하니 섣불리 범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조선 조정이 대마도의 '원병' 파견 발언을 대단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仁祖實錄』 권44, 21년 이월 20일.

144) 『仁祖實錄』 권15, 5년 삼월 11일. "慶尙監司金時讓馳啓曰, 倭人聞西賊犯邊, 轉相驚告曰, 今可秘報調興, 預自周旋. 不然, 年少喜事之人, 必爭先出援, 小島先被蹂躪之禍. 且聞刷還飄風船, 自本島出來, 聞奴賊深入宣川之說, 已漏於島中云. 前日遼東陷奴之日, 關白責調興以趁不告知, 及聞遼東本非朝鮮之地, 竟不治罪. 若不臨機善處, 雖調興亦無如之何. 云."

145) 『仁祖實錄』 권15, 5년 삼월 25일.

146) 『仁祖實錄』 권20, 7년 윤사월 27일.

147) 『仁祖實錄』 권20, 7년 유월 1일.

대마도에 전란 소식을 알려 조선을 '원조'하고자 함을 밝혔다. 하지만 조선은 적을 이미 토벌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하였다. 같은 해 삼월, 왜인이 적이 물러갔는지를 다시 묻자 조선은 군병을 모아 패퇴(敗退)시키고 강화하였다고 답하였다.[148] 이렇듯 대마도는 조선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막부의 '출병' 의사를 거론하여 교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전후 맥락을 종합하였을 때, 조선은 인용문 (A)에서 나타난 차왜의 발언을 막부의 '출병'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생각된다. 불과 40여 년 전 임진왜란을 경험한 조선으로서는 차왜가 막부의 '원병' 파견 의사를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었다. 대마도 역시 조선이 막부의 '출병'을 경계한다는 점을 모를 리 없었다. 차왜는 막부의 '원조' 논의를 빙자하여 대마도가 일본의 조선 침공을 무마하고 있음을 내비쳤던 것이다. 이렇듯 막부의 '원병' 파견은 표면상 '호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본의 조선 '침공'을 시사하는 '위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인조 17년(숭덕 4년, 1639) 칠월 말, 동래부와 차왜의 교섭에서 논의된 사안은 송사(送使)와 무역의 재개였다. 하지만 조선으로서는 막부의 '출병' 가능성을 시사한 차왜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당 발언은 조선의 대일 외교에서는 물론, 대청 외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었다. 청의 칙사가 다시금 대명 전쟁에 조선군을 징발할 것임을 알린 상황에서, 차왜의 발언에서 감지되는 일본의 '출병' 가능성은 '남변의 우려'를 내세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두 차례의 왜정보고와 발언의 정합성을 기할 수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27일, 청의 칙사 마푸타가 국경을 넘어 귀환하면서 차왜에 관한 소식을 심양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왜차(倭差)가 중원(中原)의 명을 듣고 장차 조선에 나오려 한다고 들었는데 소식이 있거든 모두 즉시 심양에 통보하라"라는 것이었다.[149] 여기에서도 알

148)『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정축년 이월, 삼월.
149)『仁祖實錄』권39, 17년 칠월 27일. "馬使又密語于臣曰, 聞倭差聽命於中原, 將欲出來云. 凡有消息, 皆卽通報瀋中云."

수 있듯이, 청은 여전히 일본이 조선을 통해 명과 연계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150] 청의 칙사가 왜사(倭使)와의 접견을 요구한 것에 더하여, 일본의 동향을 심양에 알리도록 한 이상, 조선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였다.

역시 같은 달 30일, 조선 조정은 차왜와의 접견 내용을 담은 경상좌수사의 장계를 접수하였고, 대마도주 서계의 내용도 함께 받아보았다.[151] 나흘 뒤인 팔월 4일, 비변사는 이 사안을 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래부사의 장계를 기다려 청에 자문을 보내자고 건의하였다. 인조가 이를 허락함에 따라 승문원(承文院)이 왜정자문의 작성에 착수하였다.[152]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153]의 주된 내용은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무역 갈등에 관한 서술이었다. 해당 자문은 팔월 6일 동래부사의 첩정(牒呈)을 받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장계를 인용하면서,[154] 차왜의 발언을 전하는 데에 절반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

---

150) 한편, 영의정 최명길은 "칙사가 떠난 뒤에 倭를 청해서 오려 한다느니, 江都에 들어가 보전하려 한다느니 하는" 訛言이 한양 도성 안에 떠돌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해당 기사의 문맥상 "請倭"의 주체는 명보다 조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청의 칙사가 사행 중에 이러한 訛言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仁祖實錄』 권39, 17년 칠월 23일; 『承政院日記』 제70책, 인조 17년 칠월 23일.

151) 『仁祖實錄』 권39, 17년 칠월 30일; 『別差倭謄錄』 권1, 기묘년 칠월 30일.

152) 『承政院日記』 제70책, 인조 17년 팔월 4일.

153)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은 浦廉一, 1934b에서 언급된 바 있다. 岩井茂樹는 국내 학술대회에서 이 자문을 專論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이 처음으로 언급된 사례는 홍성구, 2010, p.101로 보이며, 여기에서는 이 문건을 '제3차 왜정자문'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이후 국내 학계의 왜정자문 연구는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同文彙考』에 해당 자문이 누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본고는 청 측 사료인 『朝鮮國來書簿』와 『淸太宗實錄』을 통해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의 전문을 확인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倭情事與兵部咨文」(崇德 4년 구월 9일), pp.352-354에 수록된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의 전문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4) 조선의 대일 외교 체계에서 東萊府使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慶尙監司(=慶尙道觀察使)를 거쳐 중앙 조정에 보고하였다. 광해군 대 이후에는 義州府尹의 관례에 따라 倭人의 情狀에 관계되는 사안이면 慶尙監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왕에게 狀啓할 수 있는 권한을 東萊府使에게 부여하였다. 다만 東萊府使가 국왕에게 直啓한 후에는 慶尙監司에게도 따로 보고하여, 慶尙監司가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강일, 「동래부사와 대일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8, 2012, pp.298-299).

그런데 이 자문에는 "本年八月初六日, 東萊府使李民寏牒呈, 據慶尙道觀察使李命雄狀啓, 節該……" 라고 되어 있어, 東萊府使의 牒呈이 慶尙道觀察使의 장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서 송달 구조는 조선의 대일 외교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

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왜정자문의 초점은 차왜의 공갈과 협박을 보여주는 데에 맞춰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이처럼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왜정이 우려된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를 회피할 수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정축약조'에 명시된 통교 주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특히나 근래 청의 칙사가 조선 국왕 앞에서 왜사와의 접견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선은 현시점에서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어야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위협'은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할 구실이 될 수 있었다. 숭덕 3년(인조 16년, 1638) 오월, 청 황제의 참전 요구가 조선에 전해졌을 때도, 인조는 일본에 대한 방비를 이유로 대명 전쟁에의 파병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구사하려 하였다.[155] 특히 청이 눈독을 들이는 조선의 수군과 선박의 조발을 회피하는 데에 '남변의 방비'가 명분이 될 수 있음은 최명길과 이기조가 각각 다른 시점에 지적한 바 있었다.[156]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근래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음을 청에 인지시켜야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막부의 '출병' 가능성을 시사한 차왜의 발언이다. 청-일 통교의 차단과 대명 전쟁 참전의 회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왜의 발언은 더없이 훌륭한 왜정 보고의 소재였다.

므로, "本年八月初六日, 據慶尚道觀察使李命雄狀啓, 東萊府使李民寏牒呈, 節該……"가 되어야 할 것이다. 『淸太宗實錄』 권48, 崇德 4년 구월 11일 기사에서도 東萊府使의 牒呈이 慶尙道觀察使의 狀啓보다 앞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청 측에서 해당 자문을 잘못 베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참고로 다른 왜정자문은 대체로 議政府狀啓가 東萊府使의 보고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에는 議政府狀啓가 나타나지 않는다.

155) 『承政院日記』 제64책, 인조 16년 오월 2일.

156) 『承政院日記』 제56책, 인조 15년 구월 11일; 『承政院日記』 제69책, 인조 17년 유월 26일.

(B) **귀국이 병란을 입은 후 일본국에는 와언이 심히 많아 나이가 어리고 일 치르기 좋아하는 무리가 공상(功賞)을 바라고 예측할 수 없는 말을 하며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도주(島主)는 힘을 다하여 주선하여 동쪽에서 막고 서쪽에서 막으며 시일을 끌었습니다.** 도주가 귀국을 위하는 정성을 귀국에서 어찌 다 알겠습니까. 도주가 저희에게 말하길, "이번에 청한 사선(使船)을 보내는 일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억지로 청할 필요는 없으니 속히 돌아오라. 대군(大君)께 직접 고하면 조선과 주화(主和)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57] (밑줄과 강조는 필자)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의 일부인 인용문 (B)에 묘사된 차왜의 발언과, 앞서 경상좌수사 장계의 일부인 인용문 (A)에 나타난 차왜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의 밑줄 친 부분에는 막부가 조선에 대한 '원조'를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있지만, (B)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B)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일 치르기 좋아하는 무리가 공상을 바라고 예측할 수 없는 말을 하며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라는 서술이 추가되어, 일본에 조선 '침공'을 원하는 세력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A)와 (B)의 밑줄 친 부분 뒤에는 공통적으로 대마도주가 조선을 위해 일본 내의 군사적 움직임을 무마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막부 내의 조선 '원조' 논의를 언급한 (A)의 맥락에서는 대마도주가 나서서 막부의 '원병' 파견을 무마하였다고 읽힌다. 하지만 일본 내의 '군사적 움직임'만을 시사한 (B)에서는 대마도주의 행동이 막부의 조선 '침략'을 차단한 것으로 읽힐 개연성이 크다. 차왜가 대마도주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조선을 압박하는 것은 같지만, 각각의 문맥에 따라 전해지는 함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이번 왜정자문에서 차왜의 발언 중 막부의 조선에 대한

157)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倭情事與兵部咨文」(崇德 4년 구월 9일), p.353. "**自貴國被兵之後, 日本國中訛言甚多, 年少喜事之輩希望功賞, 做出不測之言, 處處蜂起. 而島主竭力周旋, 東遮西攔, 拖引時月.** 島主爲貴國之誠, 貴國何以盡知之哉. 島主謂俺等曰, 今此所請送船事, 若未蒙許, 則不必強請, 快速回棹. 直告大君, 庶克(王)[主]和朝鮮之責."(밑줄과 강조는 필자)

‘원조’ 논의를 여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158] 첫째로, 막부의 ‘원조’ 논의를 여과한 것은 조선의 인식 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조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마도는 이전부터 조선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막부의 ‘원병’ 파견을 거론하였다. 조선은 이를 대마도가 조선 ‘침공’을 시사한 것으로 여기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당시 조일 외교의 맥락을 인지하였을 때, 차왜의 발언 중 조선에 대한 ‘원조’ 논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였다.

왜정 보고의 대상이 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조선이 차왜의 발언을 ‘가공’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청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에 있었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청은 조일 외교의 맥락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이 인용문 (A)에서 차왜가 시사한 막부의 ‘원병’ 파견이 명실(名實)이 상부하지 않는 발언임을 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일본 내에 조선에 대한 ‘원조’ 논의가 있었다는 차왜의 발언을 그대로 자문에 옮긴다면,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청에 보내는 왜정자문에 막부의 ‘원조’ 의사를 거론한 차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다면, 조선이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왜정 보고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저해될 것이었다.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의 작성 시점에서, 조선의 대청 외교는 청-일 통교 문제와 대명 전쟁 참전 문제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었다. 때마침 일어난 대마도와의 무역 갈등은 두 가지 어려움을 한 번에 해소할 왜정 보고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청에 대항하여 조선을

158) (A)의 慶尙左水使 狀啓는 釜山僉使 鄭元弼의 보고를 인용하였고, (B)의 慶尙道觀察使 狀啓는 東萊府使 李民宬의 牒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別差倭謄錄』에는 인용문 (B)의 출처인 ‘팔월 6일’ 東萊府使 李民宬의 牒呈이 남아 있지 않아, (B)를 ‘조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의 작성 시점에서 조선 조정이 두 건의 보고를 모두 받아본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각주 69번에서 설명하였듯이 東萊府使와 釜山僉使의 보고는 같은 역관의 手本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이 차왜의 발언 중 막부의 조선에 대한 원조 논의를 의도적으로 ‘여과’하여 청에 전하였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조’할 수 있다는 언급이 전해진다면, 조선이 내세운 ‘일본과의 갈등’ 혹은 ‘남변의 우려’는 모두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차왜의 발언 중 막부의 조선에 대한 ‘원조’ 논의를 여과하였고, 이번 왜정자문에는 차왜의 협박성 발언만이 한껏 부각되었다.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을 작성하는 데에 조선이 신중을 거듭하였음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세렴이 승문원의 뜻으로 아뢰기를, “주청(奏請) 자문 가운데 타당하지 못한 곳을 성교(聖敎)에 따라 고쳐 부표하였습니다. …… [중략] …… 서계의 문자를 해석함은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 의심하여 묻는다면, 일본인은 원래 글이 짧아 해석해 알지 못하므로 전부터 차인(差人)이 오면 으레 말로 서로 소통한다고 운운해야 합니다. 가령 저들이 글 중의 말에 대해 의혹을 품는다면 <원문 결락> 감히 이를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알았다. **올라온 날짜가 지연된다면 일이 성의가 없는 듯하니 장계의 발송 일자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159] (밑줄과 강조는 필자)

인조가 왜정자문의 작성 과정에서 일일이 수정을 명하였음은 다른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160] 또한, 위의 인용문 중 밑줄 친 부분에는 인조가 자문에서 등장하는 장계의 발송 일자까지 바꾸도록 지시하였음이 드러난다.[161] 요컨대, 조선은 대청 외교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왜정 보고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에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

159) 『承政院日記』 제70책 인조 17년 팔월 12일. “金世濂, 以承文院意啓曰, 奏請咨文中未妥處, 依聖敎改付標矣. …… **[중략]** …… 而書契文字解釋, 則益爲無味. 彼若疑而有問, 日本之人, 元來文短, 未得解見, 故自前差人之來, 例以言語相通云云. 使彼疑惑於書中之語, 亦或<缺>計, 敢此申稟. 傳曰, 知道. **上來日子遲延, 則事似歇後, 狀啓發送日子, 不可不改矣.**” (밑줄과 강조는 필자)

160) 인조가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명령을 내렸음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제70책, 인조 17년 팔월 11일, 12일, 13일.

161) 정확한 내용은 사료의 제약으로 알 수 없으나, 장계의 발송 일자와 자문의 작성일자 사이에 차이가 크면, 청이 보고를 지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전자를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의 최종 재가를 거쳐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로 작성된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은 내관 현덕성(玄德成)과 사약(司鑰) 장순익(張巡翼)에 의해 심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해 구월 9일 아침 청 측에 왜정자문을 전달하였고,[162] 이틀 후인 구월 11일에는 청의 병부가 이 내용을 홍타이지에게 상주하였다.[163] 조선 측은 청의 조선어 통사인 정명수(鄭命壽)에게 왜정자문에 대한 반응을 물었으나, 그는 "사정을 알았을 뿐 회자(回咨)할 일이 없다"라고 답할 뿐이었다.[164] 아쉽게도 이번 왜정 보고에 대한 청의 직접적인 반응은 이 기록밖에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앞서 청의 칙사 마푸타가 "왜차(倭差)가 중원(中原)의 명을 듣고 장차 조선에 나오려 한다고 들었는데 소식이 있거든 모두 즉시 심양에 통보하라"라며 명과 일본의 연계를 경계한 바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팔월 말, 청은 명에서 파견한 한선(漢船) 30척이 조선 방면으로 향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 조선에 추포(追捕)를 요청하였다. 청 황제 홍타이지는 특히 가도(椵島) 방면에 화기(火器)를 많이 배치하여 한선의 접근을 막도록 요구하였다.[165] 조선은 평안병사 임경업을 필두로 하여 서해 연안의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선의 출현을 확인하고서 이를 청의 병부에 보고하였다.[166]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청은 한편으로 명이 조선 방면에 한선을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에서 일본의 동태가 우려스럽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디까지나 정황상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시점에서 청은 왜정 보고에서 감지한 '일본의 군사 동원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162) 『瀋陽日記』 기묘년 구월 8일; 『瀋陽狀啓』 기묘년 구월 10일.
163) 『淸太宗實錄』 권48, 崇德 4년 구월 11일.
164) 『瀋陽狀啓』 기묘년 구월 10일.
165)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4년 팔월 24일), pp.80-81.
166)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平安道節度使爲軍務事呈兵部」·「朝鮮國王爲軍務事與兵部咨文」(崇德 4년 구월 17일), pp.365-366.

3. 청의 일본 외교문서 독해력과 통교 역량의 한계

청은 조선에서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과 함께, 간에이(寬永) 16년(1639)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이하 대마도주 서계)[167]의 원본을 전달받았다. 조선이 왜정자문과 함께 대마도주의 서계 원본을 청에 보낸 것은 이후 한 차례밖에 확인되지 않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168] 청이 일본의 외교문서를 입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청에 전달된 대마도주 서계의 원본과 그에 대한 만문 번역본은 현재 대만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169]

숭덕 4년(1639)의 왜정 보고에 대한 청의 내부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사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마도주 서계와 그에 대한 만문 번역본의 존재는 청의 대일 통교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대마도주 서계와 만문 번역본을 분석하여, 당시 청이 일본과

---

167) 임진왜란으로 중단된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재개된 이후 대마도주의 서계는 통상 禮曹參議·東萊府使·釜山僉使를 수신자로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寬永 16년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의 경우도 禮曹參議·東萊府使·釜山僉使에게 별도의 문건이 작성되었다. 『同文彙考』에는 대마도주가 禮曹參議·東萊府使·釜山僉使에게 보내는 서계가 각각 생략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답서도 확인할 수 있다(『同文彙考』 附編 권12, 進獻, pp.7a-9a). 조선이 청에 보낸 대마도주의 서계는 이중 禮曹參議에게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 '대마도주 서계'가 지칭하는 것은 禮曹參議에게 작성된 寬永 16년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를 가리킨다.

168) 順治 3년 십이월 10일 자 왜정자문에 따르면, 조선은 이때 다시 한번 대마도주 서계를 청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왜정자문은 청이 오늘날 연해주 일대에 표류한 일본인을 조선이 轉送하도록 한, 이른바 '韃靼漂流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청은 표류민 전송을 계기로 일본의 통교 의사를 살피고자 하였으나, 에도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던 중 대마도주가 조선에 보낸 서계에서 청을 '韃靼國'이라고 지칭하였고, 조선은 이를 알리기 위해 청에 서계 원본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同文彙考』 原編 권78, 倭情, 「報島倭書契誤稱韃靼字咨」(順治 3년 십이월 10일), pp.5b-6b; 『通文館志』 권9 「紀年」 인조 24년).

한편, 김태훈은 조선이 崇德 7년의 왜정자문과 함께 '倭書契의 원본을 동봉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그 근거로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崇德 7년 이월 24일), pp.54a-54b를 제시하였다(김태훈, 2015, pp.187-188). 이 문건에는 差倭가 書契를 지참하고 出來하였다는 언급만 있을 뿐, 청에 대마도주 서계의 원본을 보냈다는 언급은 없다. 다른 어떤 사료에서도 崇德 7년의 왜정자문에 대마도주의 書契를 동봉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169) 寬永 16년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의 원본은 [그림 1]의 內閣大庫檔案 219829-001이고, 그에 대한 만문 번역본은 [그림 2]의 內閣大庫檔案 167568-001이다. 두 문건이 대만중앙연구원에 소장된 내력은 岩井茂樹, 2004, pp.87-88을 참고.

통교하기 위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마도주 서계의 원문을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조선의 예조참의 앞으로 작성된 대마도주 서계의 원문과 그에 대한 국문 번역이다.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成，奉書+朝鮮國禮曹大人閣下．維時暑月鬱伊，台候若何．共惟][170]+本邦益固金湯，+貴國彌安盤石，千里其致一也．先是乙亥載一件坦夷之後，所返獻之送使，幷以酊送使，+貴國答書之情由，稟奏于+東武+執事，即今攀舊例可圖議之+休命玆已受矣．自今更始以須差使船，故姑先容．仍么麼土宜具在別幅，伏冀采納．餘摠悉差使口布．爲+國順時自愛．惶恐不宣．寬永十六己卯歲五月 日 對馬州太守拾遺平．('+'는 존경의 의미로 줄을 바꾸어 쓰는 極行을 의미한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성이 조선국 예조 대인(=예조참의) 각하께 서신을 보냅니다. 여름 더위에 대인의 체후(體候)는 어떻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더욱 굳건하고 튼튼하며, 귀국은 더욱 평안하기가 반석 같으니, 천 리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을해년(1635)의 일이 진정된 후에, 반환하여 바친 (柳川調興과 玄方 몫의) 송사(의 圖書)를 이정암(以酊菴) 송사(의 圖書)로 합치겠다는 귀국 답서의 뜻을 동무(東武)의 집사(執事)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제라도 구례(舊例)에 따라 헤아리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막부의) 높으신 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사행선을 보내기 시작하려 하니, 우선 먼저 허락해주십시오. 이에 몇몇 토산품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다 차사(差使)가 구두로 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함에 시기에 순응하며 스스로 아끼십시오. 황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간에이(寬永) 16년 기묘년 오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平). (문서 좌측의 別錄은 생략).[171]

---

170) 寬永 16년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의 실물 사료인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219829-001에는 [ ]의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同文彙考』附編 권12, 進獻,「島主請復流芳院以酊菴送使船書」(寬永 16년 己卯 月日), pp.7a-7b와『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又附倭國與朝鮮國書」(崇德 4년 구월 9일), pp.354-355를 통해 해당 부분을 복원하였다. 문서 좌측의 別錄을 포함한 寬永 16년 오월 자 대마도주 서계의 전문은【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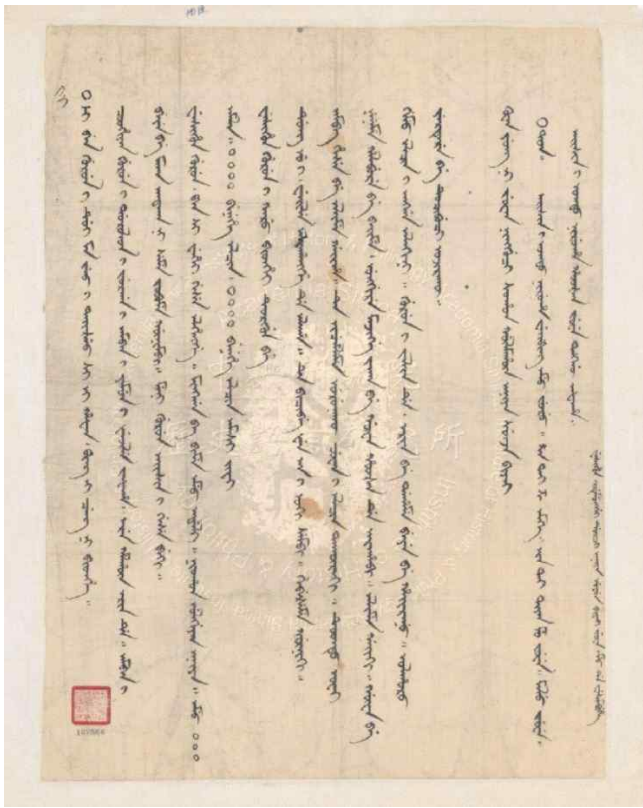
청과 조선이 외교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자문과 달리,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는 외교문서인 서계는 내용이 소략하고 의례적인 표현이 많았다. 사실상 조일 외교의 실무는 구두 교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72] 결정적으로 당시 조일 외교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대마도주 서계의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팔월 10일 비변사는 청에 대마도주의 서계 원본을 청에 보내자고 제안하였다.[173] 이튿날 인조는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해석을 청에 보내도록 하였다.[174] 하지만 승문원은 서계의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청이 질문할 경우 "일본인이 원래 글이 짧아 해석해 알지 못하니 전부터 차인(差人)이 오면 으레 말로 소통한다"라고 답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175] 결국 서계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은 자문의 후반부에 "대군(大君)"·"조흥(調興)"·"현방(玄方)"이 각각 누구인지와 을해년(乙亥年, 1635)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여, 청이 왜정자문을 독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조선은 대마도주 서계를 청에 보내면서도, 청이 이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청 측은 홍타이지에게 상주하기 위해 조선이 보낸 대마도주의 서계를 만문으로 번역하였다. 조선의 예상대로 청이 대마도주 서계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음은 [그림 1]의 만문 번역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은 대마도주 서계의 만문 번역본을 묄렌도르프(Möllendorff)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로 전사하고 번역한 것이다.[176]

---

171)『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又附倭國與朝鮮國書」(崇德 4년 구월 9일), pp.354-355.
172)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서울: 景仁文化社, 2011, pp.152-159. 대마도주 書契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이훈의 연구에 따랐다. 특히 17세기 전반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문서 외교와 書契의 양식에 관해서는 제2장 「조·일관계의 안정과 서계 양식의 변화」를 주로 참고하였다.
173)『仁祖實錄』권39, 17년 팔월 10일.
174)『承政院日記』제70책, 인조 17년 팔월 11일.
175)『承政院日記』제70책, 인조 17년 팔월 12일.
176)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167568-001.



[그림 1] 대마도주 서계의 만문 번역본

Ži Ben gurun i Dui Ma jeo i taišeo si i hafan, Bing I Ceng ni bithe. +Coohiyan gurun i dorolon i jurgan i amban i yamun i fejile jafaha. ere halhūn erin de, amban i beye be maka antaka ni seme jobome gūnimbi. meni gurun aisin i gese beki, wesihun gurun pan si wehi gese elhengge, minggan ba bime emu adali. niohon ulgiyan aniya, **emu ○○○ amala, ○○○○ benehe elcin, ○○○○ benehe elcin amasi jifi +wesihun gurun i karu bithei turgun be +Dung u i, weile alihangge de alaha**. te bicibe fe an i oki sembi. hebešeme gūniki +amba hese be alime gaiha. te icemleme urunakū cuwan i elcin takūraki. tuttu ofi neneme halbure be baime, unggire majige jaka be gūwa hoošan de arahabi. alime gaiki. gūwa be gemu elcin i angga alakini. gurun

i jalin de, erin be dahame beye be hairanu. olhoro yertere be tucibuci ojirakū. kuwan yung ni juwan ningguci sohon gūlmahūn aniya sunja biyai. (이하 別錄 생략)
[wesihun erdemungge duici aniya uyun biyai juwan emu de wesimbuhe][177]

일본국의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관(拾遺官), 평의성(平義成)의 글. 조선국의 예부의 대인의 아문(衙門)의 아래에 바칩니다. 이 더운 때에 몸이 혹 어떠한지 염려하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쇠(金)같이 견고하고, 귀국은 반석[pan si] 돌과 같이 평안한 것 천 리이며 하나같습니다. **을해(乙亥)년, 한 ○○○ 후, ○○○○ 보낸 사신, ○○○○ 보낸 사신 돌아와서 귀국의 답서의 사정을 동무[Dung u]의 일 맡은 자[weile alihangge]에 보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례(舊例)대로 하고자 합니다. 논의하여 헤아리도록 하라는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여 꼭 배(船)로 사신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낸 약간의 물건을 다른 종이에 썼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다른 것을 모두 사신이 구두로 알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함에 때에 따라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무섭고 두렵기를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관영(寬永) 16년 기묘(己卯)년 오월의. (이하 別錄의 번역은 생략)
[숭덕 4년 구월 11일에 상주하였다.] (밑줄과 강조는 필자)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만문 번역본에는 일부 구절이 "OOO" 형태의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번역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계 원본과 만문 번역본을 대조해보면, 해석에 실패하여 공란으로 처리한 부분이 각각 "을해년의 사건[乙亥載一件]"[178]·"반환한 송사[所返獻之送使]"[179]·"이정암[以酊]"[18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에도의 막부를

177)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167568-001의 [ ]는 다른 문장과 눈에 띄게 필체가 다른데, 이는 청 황제 홍타이지에게 해당 문건을 상주한 뒤에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178) 을해년은 서력으로 1635년, 일본 달력으로 寬永 12년으로 柳川一件이 있었던 해이다.
179) 야나가와잇켄 이후 대마도는 조선에서 送使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명목으로 발급해 주었던 柳川調興, 玄方, 流芳(柳川調興의 조부 柳川調信의 法名)의 圖書를 반납하였다.
180) 대마도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사찰을 말한다. 1635년 柳川調興의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에도막부는 以酊菴에 京都 4산(天龍寺, 建仁寺, 相國寺, 東福寺)의 碩學僧을 輪番으로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작성·감찰하도록 하였다.

가리키는 “동무(東武)”는 “Dung u”로 음차하였고, 막부의 집정 대신이라 할 수 있는 로쥬(老中)를 가리키는 “집사(執事)”는 “weile alihangge” 즉 ‘일 맡은 자’라고 기계적으로 번역하였다.[181] 이 외에도 곳곳의 표현이 어색하게 혹은 잘못 해석되었다.

물론 청의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번역 실패를 한문에서 만문으로 언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한문으로 작성된 『淸太宗實錄』은 대마도주 서계의 문장을 어떻게 옮겨 놓았을까? 다음은 대마도주 서계 원본의 문장과 『淸太宗實錄』 숭덕 4년 구월 11일에 수록된 대마도주 서계의 문장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대마도주 서계 원본과 『淸太宗實錄』에 수록된 서계의 문장 비교

대마도주 서계 원본*	『淸太宗實錄』 숭덕 4년 구월 11일 기사*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成， 奉書朝鮮國禮曹大人閣下.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官平義成，奉書朝鮮國禮曹大人閣下.
維時暑月鬱伊， 台候若何， 共惟]**本邦益固金湯，貴國彌安，盤石千里，其致一也.	維時暑月鬱抑，台候若何，共惟本邦益固金湯，貴國彌安，磐石千里，其致一也.
先是乙亥載一件坦夷之後， 所返獻之送使，幷以酊送使.*** 貴國答書之情由，稟奏于東武執事. 即今攀舊例可圖議之，休命玆已受矣.***	先是乙亥載，遣去使臣回時，以***貴國答書之情由，稟奏於東武執事. 即令攀舊例，可圖議之.
自今更始，以須差使船，故姑先容. 仍么麼土宜具在別幅， 伏冀采納. 餘摠悉差使口布. 爲國順時自愛，惶恐不宣. (이하 別錄은 생략)	自今更始，須差使船，故姑爲先容，附去土宜具在別幅，伏冀采納. 總悉差使口布. 爲國順時自愛，惶恐不宣. (이하 別錄은 생략)

출처: 이 표는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219829-001·『朝鮮國來書簿』·『同文彙考』·『淸太宗實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81) 청에서 執事를 번역한 단어인 ‘weile alihangge’는 만주어 사료에서 일반적으로 ‘벌 받은 자’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만주어 어휘 ‘weile’에 벌(罪)과 일(事)의 뜻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만주어에서 執政貝勒은 ‘doro jafaha beile’에, 執政大臣은 ‘doro jafaha amban’에 대응한다. 따라서 막부의 집정대신을 나타내는 執事를 ‘weile alihangge’로 옮긴 것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왼쪽의 ‘대마도주 서계 원본’은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219829-001의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제시한 것이다. 오른쪽의 ‘『淸太宗實錄』 숭덕 4년 구월 11일 기사’는 『淸太宗實錄』(乾隆 三修本)에 수록된 대마도주 서계의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제시한 것이다.

** 대마도주 서계의 실물 사료인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219829-001에는 [ ]의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본고는 『同文彙考』와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를 토대로 해당 부분을 복원하였다.

*** 밑줄과 강조 표시한 부분은 양자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淸太宗實錄』에서도 만문 번역본이 공란으로 처리한 “을해년의 사건[乙亥載一件]”·“반환한 송사[所返獻之送使]”·“이정암[以酊]”은 생략되었다. 대신 “보낸 사신이 돌아왔을 때[遣去使臣回時]”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자구가 삽입되었다. 이외에도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자구를 추가한다거나, 막부의 명령을 ‘휴명(休命)’이라고 높여서 말한 구절이 삭제되는 등의 출입이 있었다.[182)]

대마도주 서계의 한문을 별개의 언어인 만문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음은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한문으로 작성된 『淸太宗實錄』이 대마도주 서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애초에 한문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淸太宗實錄』이 한문 원문을 참조는 하였지만 만문 번역문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183)] 이를 고려하였을 때 순치 연간에 『淸太宗實錄』을 편수한 이들도 만문 번역본의 이해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만문 번역본의 공란과 오역은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청이 대마도주 서계를 해석하는 데에 실패한 결과로 보

182) <표 2>에서 제시한 ‘『淸太宗實錄』 숭덕 4년 구월 11일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가 저본으로 삼은 乾隆 三修本 『淸太宗實錄』에 따른 것이다. 康熙 重修本 『淸太宗實錄』의 해당 기사는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附屬 漢字情報研究センター東方學デジタル圖書館의 內藤文庫本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乾隆 三修本에서 삭제된 “休命玆已受矣”이 남아 있는 것 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順治 初纂本 『淸太宗實錄』은 臺北 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어 열람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183) 구범진, 2021, pp.137-155. 張存武도 『淸太宗實錄』이 조선에서 보낸 국서를 수록할 경우, 한문으로 작성된 조선의 국서 원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조선의 국서를 만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재차 한문으로 重譯하였다고 보았다. 張存武·葉泉宏 編,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1619-1643』, 臺北: 國史館, 2000, p.7.

아야 한다.

만약 청이 대마도주 서계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조선 측에 문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숭덕 7년(1642) 삼월의 왜정 보고에 대해 청은 심관을 찾아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의 내용과 일본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청이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과 대마도주 서계에 대해 조선 측에 문의하였다는 사실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이 자문의 말미에 "그들의 서신에 말과 글이 난삽한 것을 보니 거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觀其書辭文字僻澁, 殆不可曉]"라고 언급한 것이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숭덕 4년(1639) 구월 청의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해석 실패는 청과 일본 사이에 '언어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당시 청이 일본과 소통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한문이 전부였다. 하지만 청은 대마도주 서계를 해석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의 소통이 용이하지 않음을 실감하였을 듯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이 시점에서 청이 보유한 일본 정보의 양과 질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청이 대마도주의 서계를 해석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면, 독자적으로 일본과 통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Ⅲ.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과 왜정 보고의 변화

1. 숭덕 7~8년 왜정 보고와 청 · 조선의 태도 변화

숭덕 4년(1639) 이후 청은 한동안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선은 청에 왜정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인조 19년(숭덕 6년, 1641) 시월, 대마도가 쇼군의 후계자 탄생[184]을 알리며 구두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조선이 막부 쇼군의 후계자 탄생을 위해 국왕사를 파견한 일은 전무후무하였다. 게다가 대마도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기에, 조선은 통신사 파견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185]

이듬해인 인조 20년(숭덕 7년, 1642) 이월, 대마도는 차왜 다이라 나리타카(平田將監; 조선 측 사료에서는 平成幸)를 동래부에 보내었고, 대마도주의 서계를 통해 재차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186] 조선은 대마도주의 서계에 막부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구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여 쇼군의 후계자 탄생을 축하하기로 하였다.[187] 이번 통신사의 파견이 성사된다면, 병자호란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조선 국왕 명의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될 터였다.

한편, 조선은 통신사 파견을 청에 보고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였다. 물론 숭덕 3년(1638) 삼월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에서 조선은 병자년(1636)에 임광(任絖)의 통신사행이 있었음을 거론하였다.[188] 하지만 이

184) 참고로 일본 측이 '若君'이라고 칭하는 大君의 아들이란, 훗날 에도막부의 4대 쇼군이 되는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이다.

185)『通信使謄錄』권1, 신사년 시월 14일, 26일.

186)『通信使謄錄』권1, 임오년 이월 13일, 21일.

187) 에도막부는 쇼군의 후계자, 즉 若君의 탄생을 정권의 승계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이와 관련한 각종 의례나 행사에 전국의 大名를 동원하였다. 이번 통신사행의 유치 역시 정권의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에도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사당인 日光山 東照宮의 준공을 기념하는 의례에 필요한 御筆, 詩文, 예물 등을 지원해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자발적인' 통신사 파견을 유치하여 쇼군과 막부에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三宅英利, 1991, pp.209-215; 이훈, 2019, pp.218-226.

188)『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傳報倭情(島原之役)事與兵部咨文」(崇德 3

후 왜정 보고에서 조선은 줄곧 일본과의 '갈등'을 청에 내세웠다. 조선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면 청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지 모를 일이었다. 또한, 청이 이번 통신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다시 요구한다면 이 역시 조선을 곤란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조 20년(숭덕 7년, 1642) 이월 23일, 조선 조정은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에 관한 내용을 자문으로 작성하여, 동궁 내관이 심양에 들어갈 때 부쳐 보내기로 하였다.[189]

숭덕 7년(1642) 삼월 2일 자로 작성된 이번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도 수신처는 청의 병부였다.[190] 자문은 장황한 장계의 인용을 통해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숭덕 7년(1642) 삼월 2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의 말미에서 인용된 의정부의 발언이다.

> 저들은 불사[佛宇]를 융성하게 짓고 문구(文具)를 숭상하는데, 요행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루만짐[撫弄]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웃나라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그들의 마음에 따라 일을 성사하도록 돕는 것이 실로 기의(機宜)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라는 바는 모두 처리하기 어렵거나 따르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왜의 성질이 교활하고 옹졸하여 공갈의 말을 늘어놓는데,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들의 환심을 잃을 것이 염려됩니다. 우선 그들의 바람대로 요청을 들어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191]

년 사월 14일), p.278.

189) 『備邊司謄錄』 제7책, 인조 20년 이월 23일.

19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倭情事與兵部咨文」(崇德 7년 삼월 29일), pp.470-474. 三宅英利, 1991, p.210과 程永超, 2016, p.831은 모두 『淸太宗實錄』 권59, 崇德 7년 삼월 29일 기사의 서두에 있는 "朝鮮國王李倧移咨達部"라는 문장에서 部를 '禮部'로 잘못 해석하였다, 단순 착오이겠지만, 통신사 파견이라는 외교 사안이 청의 예부가 아니라 병부에 보고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 왜정자문이 가진 '군사 정보'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선은 이어지는 두 건의 왜정자문도 청의 병부를 수신처로 하여 작성하였다.

191)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倭情事與兵部咨文」(崇德 7년 삼월 29일), p.474. "彼方隆創佛宇, 文具是尚, 慶幸生男, 撫弄爲樂. 其在鄰國之道, 惟當順適其心, 助成其事, 實合機宜. 且其所欲者, 俱非難辦難從之物. 況倭性巧詐褊急, 多張恐喝之語, 今若不許, 亦慮失其歡心. 姑依其願, 許以准請."

숭덕 7년(1642) 삼월 2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192]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포함되었으나, '일본과의 갈등'이나 '일본의 침입 우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은 "이웃나라의 도리[鄰國之道]"를 거론하며 통신사 파견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자문에 인용된 장계의 내용은 『別差倭謄錄』이나 『通信使謄錄』의 해당 기사와 비교하였을 때, 문맥을 바꾸거나 사실을 과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193]

같은 해 이월 25일 비변사는 왜정자문에서 일본이 통신사 파견를 요청한 일만을 언급하고, 차왜가 교섭 과정에서 조선을 협박[恐嚇]한 일을 빼버린다면, 변방의 정세를 알리는 왜정 보고의 본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계문(啓聞)하였다. 인조는 오히려 자문의 말이 너무 번잡하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194]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막부의 '원병' 파견 논

192) 崇德 7년의 왜정자문은 『朝鮮國王來書』와 『同文彙考』에 서로 다른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朝鮮國王來書』의 해당 자문은 崇德 7년 '삼월 2일' 자로 작성되어 삼월 29일 청측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崇德 7년 이월 24일), pp.54a-54b는 崇德 7년 '이월 24일' 자로 작성되었고 전자에 비해 길이가 1/4 정도에 불과하다. 松浦章는 이를 별개의 두 문서로 보고, 입관전 왜정자문이 6건이 아니라 7건이라고 표기하였다(松浦章, 2009, pp.86-87). 홍성구는 '제4차 왜정자문'에 두 종류의 원문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同文彙考』 崇德 7년 이월 24일 자 자문이 『朝鮮國王來書』 삼월 2일 자 자문의 草本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였다(홍성구, 2010, p.102의 각주 66번).

崇德 7년의 왜정자문은 『淸太宗實錄』 권59, 崇德 7년 삼월 29일에도 수록되었는데, 이 기사는 『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왜정자문에 대응한다. 후술하겠지만 崇德 7년의 왜정자문에 대한 청의 반응을 고려해보아도, 『同文彙考』의 崇德 7년 이월 24일 자 자문은 청에 전해졌다고 볼 수 없다. <표 1>에서 언급하였듯이, 『同文彙考』의 崇德 7년 이월 24일 자 자문은 崇德 8년 이월 1일 자 자문의 서두에 인용된 부분을 뽑아 옮겨 輯佚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朝鮮國王來書』의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자문이 청에 전해진 왜정자문이라고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93) 물론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왜정자문에서도 조선이 差倭에게서 얻은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맥을 바꾸는 수준의 가공은 포착되지 않는다. 일례로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자문에는 차왜 다이라 나리타카(平成幸)가 "淸國의 소식"을 물어오며 정보의 출처로 나가사키의 漢船을 제시하였음이 언급되었다. 자문에는 차왜가 探問한 "淸國의 소식"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別差倭謄錄』의 해당 기사를 보면 "淸國의 소식"이 "중원(=明)이 크게 승리하여 遼東의 길을 열고 조선에 사신을 보내었다"라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자문에 반영하지 않은 듯하다. 『別差倭謄錄』 권1, 임오년 이월 13일.

194) 『備邊司謄錄』 제7책, 인조 20년 이월 25일.

의를 인지하고서도 청에 보내는 왜정자문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일본과의 '갈등'을 내세우려 하였다. 그런데 이번 자문에서는 조선이 양국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국왕사를 파견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 게다가 인조는 그동안의 왜정 보고에서와 달리 차왜와의 마찰을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하였다. 왜정 보고의 주안점이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내세우는 것에서 양국의 '화호'를 부각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자문 작성일자의 바로 다음 날인 삼월 3일, 인조는 대신들을 인견하여 왜정 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영의정 이성구(李聖求)는 관서 지방에 떠도는 일본의 동태에 관한 이야기가 심양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으니 사실대로 자문을 보내자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청이 왜정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산천(山川)·도리(道里)·인물이 어떤지 알고자 함일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뒤이어 이성구는 일본이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는 것도 청의 사정을 듣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195] 병자호란 이후 청이 일본을 거론할 때마다 인조는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삼월의 인조는 청이 일본과 통교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고, 조선의 왜정 보고를 통해 일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길 바랄 뿐이라고 보고 있었다.

조선의 왜정 보고에 대한 태도 변화는 숭덕 7년(1642) 삼월의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뿐만 아니라, 이후 두 건의 왜정자문(<표 1>의 문서 5와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숭덕 8년(1643) 이월의 왜정 보고는 같은 해 정월 23일 인조가 비국 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우의정 심기원(沈器遠)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되었다. 인조는 통신사 파견 내용을 심양에 자문으로 보내자는 심기원의 제안에 "신사(信使)가 길을 떠난 뒤에 알리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답하였다.[196] 통신사 파견을 위한 교섭 과정과 앞으로의 파견

---

195)『仁祖實錄』권43, 20년 삼월 3일. "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問之曰, 今以淸國咨文, 論議各異, 何者爲是? 領議政李聖求曰, 關西之人, 亦以倭情有騷屑之端云, 瀋中豈有不知之理? 臣則以爲, 據實移咨爲當. 上曰, 彼之求見文書者, 其意欲知日本山川、道里及人物之如何耳. 聖求曰, 日本之請使, 亦非爲通信也, 必欲聞淸國事情也." (밑줄과 강조는 필자)

196)『仁祖實錄』권44, 21년 정월 23일 戊午. 인조의 발언과 달리 이번 왜정자문은 통신사가 출발하기 전인 崇德 8년 이월 1일 자로 작성되었다. 해당 자문은 같은 해 이월 28일 심양에 들어간 賓客 李昭漢과 輔德 朴遾 일행에 의해 청에 전달되었고, 이틀 뒤인 삼월 1일 청의 병부에 접수되었다.『瀋陽日記』계미년 이월 28일;『瀋陽狀啓』계미

계획을 골자로 한 이번 왜정자문은 숭덕 8년(1643) 이월 1일 자로 작성되었다.[197]

숭덕 8년(1643) 이월 1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5)에서도 “이웃 나라의 정신[鄰邦情信]”이 강조되었다. 다만, 조선은 이번 자문에서도 통신사 파견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마찰을 거론하며 일본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언급을 잊지 않았다.[198] 자문에 인용된 정월 7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보고는 『通信使謄錄』에 수록된 동래부사의 장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일치함이 확인된다.[199] 자문의 말미에는 이번 통신사 파견이 “이웃 나라와의 화호와 우의[鄰好厚誼]”를 위함이며, 일본의 사정이 전과 달라짐이 있어 이를 살피고자 한다는 조선 국왕의 서술이 있다.[200]

숭덕 8년 십이월 22일(1644년 1월 31일) 자로 작성된 왜정자문(<표 1>의 문서 6)은 통신사 윤순지(尹順之)가 부산진(釜山鎭)에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201] 직전 왜정자문(<표 1>의 문서 5)에서 일본의 사정을 살피고자 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조선은 앞서 인조가 발언한 대로 “일본의 산천(山川)·도리(道里)·인물”을 소개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이번 왜정자문을 작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자문의 내용은 인조 21년(숭덕 8년, 1643) 사월 24일 부산포를 떠나 같은 해 시월 29일 돌아올 때까지 통신사의 여정을 간추려

년 삼월 2일.

197)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因致賀致祭兼察情形發遣信使咨」(崇德 8년 이월 1일), pp.56a-56b;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遣使倭日本與兵部咨文」(崇德 7년 삼월 1일), pp.505-507.

198) 조선은 예물 목록 등 차왜의 요구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회답하였으나, ‘若君致書’와 ‘空張別幅’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若君致書’는 쇼군의 후계자인 若君의 탄생이 이번 통신사행의 목적이니만큼 조선 국왕 명의로 若君 앞에 국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空張別幅’은 若君에게 보내는 예물 별폭을 두 장 작성하되, 그중 한 장은 물목을 기재하지 않고 조선 국왕의 御寶만 날인된 빈 종이를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若君致書’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되지 않았고, ‘空張別幅’ 역시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거부되었다. 이훈, 2019, pp.234-235.

199) 『通信使謄錄』 권1, 계미년 정월 10일.

20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遣使倭日本與兵部咨文」(崇德 7년 삼월 1일), p.507. “當職爲照因事, 送使致賀、致祭等事, 實符鄰好厚誼, 且彼國事情與前稍異, 因此懇請入送使价, 兼察情形, 亦合便宜.”

201)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朝鮮國王爲赴日通信使回還事與兵部咨文」(崇德 8년 십이월 22일), pp.56b-57a; 崇德 8년 십이월 22일 자 왜정자문은 『朝鮮國王來書』나 『淸世祖實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청에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202] 일본에 관한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거리가 4천 리 정도라는 점, 과거에는 통신사가 도착하면 군용(軍容)을 성대히 보였으나 이번에는 병기[兵仗]가 전혀 없었다는 점, 대마도주가 통신사 일행에게 멋대로 행동하였다는 점, 일본의 백성과 물산이 성대해졌다는 점 등이 전부였다.[203] 조선은 이번 왜정자문에서도 "일본의 사정이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많다[倭國事情, 雖未能測知]"라고 언급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교린의 후례로 서로를 대하였다[以交鄰厚禮相待]"라는 긍정적인 언급으로 끝을 맺었다.[204]

한편, 인조가 간파한 대로 이 무렵 청에서도 일본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숭덕 4년(인조 17년, 1639)을 마지막으로, 입관 이전까지 청이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는 장면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로부터 청이 대일 통교 문제에서 관심을 거두었다는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 청은 전에 없이 일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숭덕 7년(1642) 삼월 29일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을 접수한 청은 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청 황제 홍타이지의 성지(聖旨)가 인용된 병부의 회자가 있었다.[205] 회자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일본에 대한 홍타이지의 관심이 직접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숭덕 7년(1642) 사월 1일 자 청 병부의 회자(<표 1>의 문서 4-1)에 인용된 성지는 다음과 같다.

---

202) 통신사 일행의 여정은『仁祖實錄』,『承政院日記』,『別差倭謄錄』, 그리고 통신사의 사행록인『癸未東槎日記』(민족문화추진회 編譯,『(國譯)海行摠載Ⅴ』,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5, pp.221-3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崇德 8년 십이월 22일 자 왜정자문의 몇몇 날짜는 다른 사행 기록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203) 崇德 8년 십이월 22일 자 왜정자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癸未東槎日記』에는 통신사 일행이 여정 내내 일본의 국내 정세를 파악하는 데에 공력을 기울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인조가 귀국한 통신사를 인견하여 보고받은 내용 역시 왜정자문의 그것보다 자세하였다(『仁祖實錄』권44, 21년 십일월 21일 辛亥).

204)『同文彙考』別編 권4, 倭情,「朝鮮國王爲赴日通信使回還事與兵部咨文」(崇德 8년 십이월 22일), p.57a. "臣等竊照, 倭國事情, 雖未能測知, 且以交鄰厚禮相待, 無他緊要聞見."

205)『同文彙考』別編 권4, 倭情,「兵部咨會朝鮮詳閱日本情形咨」(崇德 7년 사월 1일), p.54b;『淸太宗實錄』권60, 崇德 7년 사월 1일.

(자문에 나타난) 일본의 정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말이 비록 대단히 사납지는 않으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은 이웃 나라이니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헤아려 행하도록 하라. 여러 소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라.[206]

홍타이지의 성지는 왜정자문에 나타난 차왜의 언행을 경계하면서도, 통신사의 파견을 은근히 독려하는 의중을 내비쳤다. 흥미롭게도 성지의 내용 중에 통신사 파견을 기회로 삼아 청과 일본의 통교를 주선하라거나, 일본에 청의 통교 의지를 전하라는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왜정자문에 대한 청의 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瀋陽狀啓』와 『瀋陽日記』에는 잉굴다이・범문정・처르거이(Cergei, 車爾格・陳檀阿馬・賤他馬)[207] 등이 심관을 찾아 왜정자문의 내용을 상세히 묻는 모습이 등장한다. 특히 범문정은 들고 온 자문을 일일이 손으로 짚어가며 한역(漢譯) 김귀인(金貴仁)에게 읽게 하고는 다음의 내용을 질문하였다고 한다.[208]

처음에는 자문에 나오는 지명인 "유도(杻島)"・"나가사키(長崎)"・"다대포(多大浦)" 등을 묻더니, "대군(大君)"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황(天皇)"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등지승(藤智繩)"・"최의길(崔義吉)"・"홍희남(洪喜男)"・"이장생(李長生)" 등 자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묻기도 하였는데, 일본과 왕래하는 배가 몇 척이나 되는지, "서계(書契)"란 무엇인지, "도주(島主)"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강(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과 "수길(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

206)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兵部咨會朝鮮詳閱日本情形咨」(崇德 7년 사월 1일), p.54b. "詳閱日本情形, 語言雖無大戾, 似亦有要挾之意. 然朝鮮與日本誼屬鄰邦, 着國王可斟酌行之, 勿聽群小之言."

207) 처르거이(Cergei)는 조선 사료에서 賤他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朝鮮國來書簿』・『朝鮮國王來書』에서는 陳檀阿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처르거이의 장남 이름이 천타이(Centai, 陳泰)이기 때문에, '천타이(Centai)의 아버지(만주어로 ama)'라는 뜻에서 賤他馬・陳檀阿馬 등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한다. 비슷한 사례로 홍타이지는 장남 이름이 호오거(Hooge, 豪格)이기 때문에, 호오거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호오거 아마(Hooge ama)'라고 불렸다(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734).

208) 『瀋陽日記』 임오년 삼월 29일; 『瀋陽狀啓』 임오년 사월 2일. 이하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왜정자문에 관한 문답의 내용은 이 기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통신사 파견 교섭 도중에 나온 차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전지보(流傳之寶)”·“중국 상인[商販漢人]”·“대장경(大藏經)” 등의 의미를 물었다. 자문의 자구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 “그밖에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此外別無他情]”라는 말이나, 서계를 인용한 부분 중 “옹용수공[雍容垂拱]”[209]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명을 바랐다. 이 밖에 천황가나 일본의 풍속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잉굴다이 등이 만문(滿文)을 아는 자에게 자문을 번역한 글을 읽게 한 다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이 대부분 “중국 상인[漢商]이 일본과 통교한다”라는 내용이나 “별다른 사정이 없다[別無他情]”라는 구절에 관한 것이었음이 언급되었다.[210]

잉굴다이와 범문정 일행은 같은 날 접수된 다른 자문들에 대해서도 문답을 주고받은 뒤 돌아갔지만, 『瀋陽狀啓』의 기사 상으로는 일본에 관한 문답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문정과 로쇼(Lošo, 盧施)는 그날 밤 다시 심관을 찾아 일본의 풍속에 대해 물었다. 『瀋陽日記』는 이것이 “한(汗)” 즉 청 황제 홍타이지의 명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11] 문답을 통해 얻은 답변은 『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해당 자문의 끝에 다음과 같이 부기(附記)되었다.

> 세자가 말하길 천황의 아들은 지난날 (말한) 왜왕(倭王)의 아들이다. 대군(大君)과 관백(關伯)은 같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권신(權臣)이다. 국가의 권력[權柄]은 모두 대군에게 있기 때문에 천황은 명성이 없다. 또한 천황의 장자가 자리를 잇고 그다음 (아들은) 모두 승려가 되니 대대로 그러하다. 이는 자문 내의 말이 아니라 세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를 기록하여 후의 물음을 헤아린다. 장한아마(長汗阿馬)가 말하였다.[212]

---

209) 앞서 崇德 4년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과 함께 전해진 대마도주의 서계를 해석하는 데에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청은 왜정자문에 인용된 대마도주 서계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雍容垂拱’은 ‘온화한 모습으로 옷자락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뜻으로, 前漢 宣帝 때 王褒의 「聖主得賢臣頌」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번 왜정자문에 인용된 대마도주 서계의 맥락에서는 일본의 태평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었다.

210)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崇德 7년 이월 24일), pp.54a-54b에는 청 측이 질문한 사항들이 대부분 등장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에 전달된 것은 『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崇德 7년 삼월 2일 자 왜정자문임이 확실하다.

211) 『瀋陽日記』 임오년 사월 1일.

212)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倭情事與兵部咨文」(崇德 7년 삼월 29

이는『朝鮮國王來書』에만 부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심관에서의 문답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답 내용을 통해 보건대, 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던 듯하다. 또한 청이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중요한 내원(來源)은 '세자의 입'으로 대표되는 조선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무렵 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조선 사료에서 계속 포착된다. 같은 해 오월 5일 심양에서는 송산(松山)에서 사로잡혀 투항한 명의 계요총독(薊遼總督) 홍승주(洪承疇)의 항복 의식이 거행되었다.[213] 이때 홍타이지는 홍승주에게 명과 일본의 통교에 대해 물었다.

> 황제가 박시(博氏, baksi)를 시켜 홍승주에게 묻기를, "너는 남방 사람이라고 하던데 일본인이 남방과 왕래하는가?"라고 하였다. 홍승주가 답하여 말하길, "(일본이) 조공(朝貢)하지 않으므로 어찌 왕래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214]

이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도 홍승주의 항복 의식에 소환되었고, 이 대화는『瀋陽狀啓』에 남게 되었다. 전후 맥락상 홍타이지는 한 달여 전 조선의 왜정자문에서 '중원 남방의 상인이 일본과 통교한다'라는 정보를 습득하고서, 복건 출신이자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던 명 조정의 수뇌부 홍승주에게서 명-일 통교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왜정자문에서는 명과 일본 사이에 "장사하는 한인[商販漢人]"이 오고 간다고 하였지만, 홍승주는 명과 일본 사이에 왕래가 없다고 대답하여, 두 가

일), p.474. "然世子所言天皇子, 卽先日倭王子也. 大君及關伯猶重地權臣. 國柄皆在大君矣, 故天皇無聞. 又言天皇長子嗣位, 其次皆爲僧, 世世如是. 此不係咨內語, 出於世子口中之言, 錄此以計後問. 長汗阿馬說." 정보의 출처로 지목된 '長汗阿馬'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측건대 '長汗阿馬'는 왜정자문에 관한 문답이 오고 갔던 崇德 7년 삼월 29일의 현장에 있었던 청 측 인사로 보인다. 처르거이가 '천타이(Centai)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賤他馬'·'陳檀阿馬'로 불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長汗의 아버지(만주어로 ama)'라는 뜻에서 '長汗阿馬'라고 불린 인물일 것이다.

213)『淸太宗實錄』권60, 崇德 7년 오월 5일. 이 기사에서는 홍타이지가 홍승주에게 명과 일본의 통교에 대해 묻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214)『瀋陽狀啓』임오년 오월 10일. "饋茶一器, 帝使博氏問於承疇曰, 汝是南方之人云, 日本人往來於南方耶? 洪答曰, 不爲朝貢, 豈有往來之事?" 참고로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博氏란, 문서의 생산·관리·번역 등을 담당하는 文官을 의미하는 만주어 baksi의 음차이다.

지 정보가 충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칠월 16일 자『仁祖實錄』의 기사에는 청 황제 홍타이지가 인평대군과 소현세자에게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215] 청 황제 홍타이지가 칙서를 보내어 대명 전쟁에서 금주와 송산 일대 네 개의 성(城)을 차지한 것을 알려오자, 조선은 인평대군을 진하사(進賀使)로 파견하였다.[216] 홍타이지는 진하사 인평대군과 소현세자 · 봉림대군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범문정 등을 시켜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첫 질문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자가 일본군에 사로잡혔다 탈출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차왜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벼슬[職秩]이 있는 자인지, 따라온 왜인은 몇 명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소현세자와 인평대군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로 간결하게 답변하였다.

또 홍타이지는 조선이 일본을 인도하여 '남조(南朝, 명)'를 침범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아 임진왜란의 병화(兵禍)를 입었다는 풍문을 "한인에게서 들었음"을 언급하였다.[217] 소현세자는 강하게 부정하며 사실을 바로잡았다. 곧이어 홍타이지는 일본군이 얼마나 오래 주둔하였는지, 바다를 건너온 일본군의 수가 '7만 명'이 맞는지를 물었다. 소현세자는 6년 동안 주둔하였고, 7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조선에 왔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홍타이지는 명이 일본과의 화의(和議)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다시 대군을 동원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소현세자는 사실이라고 짧게 응대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청 황제 홍타이지는 임진왜란의 정황을 자세히 물으며 일본의 군사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홍타이지가 질문 과정에서

---

215)『仁祖實錄』권43, 20년 칠월 16일. 이하의 서술은 이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216)『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表賀錦松杏塔四城降淸事」(崇德 7년 유월 23일), pp.484-485. 이 기사는 조선 국왕이 보낸 表文이지만, 그중에 청 황제 홍타이지의 勅諭가 인용되어 있다.

217)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 명을 침범하려 하였다'라는 풍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 명에서 심심찮게 나돌았던 듯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萬曆 26년(1598) 東征贊畫主事로 조선에 파견된 丁應泰는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 天朝를 침략하고 遼東을 탈취하려 하였다'라고 상주하였다. 조선은 이를 辨誣하기 위해 陳奏使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른바 '丁應泰 무고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내통설'은 한 세대가 지나서도 여파가 있었던 듯하다. '丁應泰 무고사건'에 대해서는 鈴木開, 「丁應泰の變と朝鮮: 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朝鮮學報』219, 2011, pp.39-71을 참고.

밝혔듯이, 정보의 출처는 “한인에게서 들은” 내용이라고 추정된다. 누르하치 시절 이미 임진왜란의 정황을 인지하였다고 한들, 청이 구체적인 임진왜란의 정황을 기록이나 구전으로 세대를 넘어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차라리 청이 금주·송산을 함락한 이후 새롭게 유입된 한인들에게서 정보를 습득하였고, 그것을 조선에 확인하고자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숭덕 8년(1643) 삼월 2일, 홍타이지는 조선이 통신사 파견 직전에 보낸 숭덕 8년(1643) 이월 1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5)에 대해서도 성지를 내렸다. 이는 숭덕 8년 삼월 3일 자 청 병부의 회자(<표 1>의 문서 5-1)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성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18]

> 사신을 보내어 축하함은 교린의 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세를 상세히 살피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너희 부(병부)에서 즉시 (조선 국왕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219]

이 성지에서 잘 드러나듯, 홍타이지는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통해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자 하였다. 한창 일본에 관심을 보이던 청 황제 홍타이지로서는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일본의 내부 사정을 파악할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220] 이번에도 홍타이지가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를 주선하라거나, 일

---

218)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兵部咨准朝鮮遣使日本詳查情形」(崇德 8년 삼월 3일), pp.56a-56b. 聖旨의 내용을 담은 崇德 8년 삼월 3일 자 병부 회자는 당시 심양에 와 있던 의주의 군관 崔鎭南에 의해 조선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瀋陽日記』 계미년 삼월 3일.

219) 『同文彙考』 別編 권4, 倭情, 「兵部咨准朝鮮遣使日本詳查情形」(崇德 8년 삼월 3일), pp.56a-56b. “遣使致賀, 固交鄰之道 , 然詳察情形, 尤爲緊要. 爾部裏, 可卽傳與知道.”

220)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淸太宗實錄』 권64, 崇德 8년 삼월 1일에 수록된 ‘崇德 8년 이월 1일 자 왜정자문’이 『朝鮮國王來書』·『同文彙考』에 수록된 해당 자문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淸太宗實錄』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조선인 인명의 誤記나 표현의 수정은 차치하더라도, 이 기사에는 명백한 ‘오류’가 포착된다. 『朝鮮國王來書』·『同文彙考』의 崇德 8년 이월 1일 자 왜정자문에 인용된 의정부 장계의 말미에는 “至於若君幼兒處, 書契通問, 禮無所據. 空幅踏寶別樣持去等請, 其情難測, 宜令東萊府使及譯官等, 開諭勿許.”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차왜의 ‘若君致書’와 ‘空張別幅’ 요구를 허락하지 말도록 東萊府使와 通官에게 명령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발언으로, ‘조선 국왕’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淸太宗實錄』에서는 해당 문장을 “但若君係幼子, 原無致書相問之道, 復索空紙押印, 未審是何主見. 皇上曾諭, 若東萊副使竝通官至, 不可輕許.”라고 옮겨놓아, ‘皇上’이 주어가 되었다. 『淸太宗實錄』의 해당 문장을 수용한다면, 청 황제가 조선 국왕의 신하인 東萊府使와 通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된다.

본에 청의 통교 의지를 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요컨대, 숭덕 7~8년의 시점에서 청은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2. 변화의 동인 : 청 · 조선의 대일 '현상 유지'

숭덕 7년 이후 청과 조선은 모두 일본 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숭덕 4년(인조 17년, 1639) 말부터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초 사이 청과 조선의 태도 변화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시점 사이 청과 조선의 외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숭덕 4년(1639) 십일월 24일 다시 칙사로 한양에 온 마푸타는 인조를 접견하여 숭덕 4년 시월 6일 자 청 황제의 칙서를 전하였다. 홍타이지는 이 칙서에서 1년 전 조선군이 출병 기한을 어긴 것을 질책하였다.[221] 곧이어 칙사 마푸타는 관소(館所)를 찾아온 도승지 이기조 일행에게 다음과 같이 청 황제의 파병 요구를 전하였다.

통신사 관련 왜정자문을 검토한 程永超의 연구는『淸太宗實錄』의 해당 문장을 근거로, 청 황제 홍타이지가 "통신사 파견의 결정뿐만 아니라 파견 준비 중에 발생한 여러 사태도 파악하여 컨트롤하고자 하였다"라는 해석을 도출하였다(程永超, 2016, pp.831-832). 후에 程永超는 이 논문을『華夷變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國三國關係史の研究』, 大阪: 淸文堂出版, 2021, pp.79-119에 재수록하면서, 위의 문장을 "홍타이지가 이번 통신사 파견에 대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조선 측은 홍타이지의 예전 명령에서 홍타이지의 의향을 읽어내었다"라는 서술로 대체하였다. 그러면서도『淸太宗實錄』의 해당 문장을 "황제의 上諭"라고 보는 해석에는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논문의 결론 역시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청 황제가 조선 국왕의 신하인 東萊府使와 譯官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淸太宗實錄』의 해당 기사 외에 청 황제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입관 이전 청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쉽게도 順治 初纂本『淸太宗實錄』의 해당 기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康熙 重修本과 乾隆 三修本에는 같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淸太宗實錄』의 오류가 해당 자문의 내용을 실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실록을 改修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順治 初纂本『淸太宗實錄』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을 듯하다.

221)『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4년 시월 6일), pp.85-86.

> 유월에 나올 때 상 앞에서 한 말을 돌아가 황제께 고하니, “군병 중 전마(戰馬)와 마군(馬軍)은 전쟁에 쓰는 데에 무익하므로 모두 부르지 말고, 오직 수군(水軍) 6천 명만 각기 12개월분의 양식을 가지고, 얼음이 녹자마자 이월 내에 안주(安州) 등 해변의 편리한 곳에 모이도록 하면 내가 중신(重臣)이나 장령(將領)을 보내 즉시 거느리고 가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222]

지난해 출병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칙서를 받자마자 이듬해 이월로 예고된 파병 요구를 전달받자, 조선의 입장은 더없이 난처해졌다. 청 황제의 파병 요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조는 “주사(舟師)를 조발하면 왜인들이 틈을 타서 올지도 모른다는 뜻을 대화하는 도중에 은연중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하며, 다시 한번 일본의 침입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청의 수군 조발 및 군량 조달 요구에 대응하려 하였다.[223]

하지만 ‘일본에 대한 방비’를 내세워 파병을 회피하려던 조선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차질을 빚었다. 같은 해 십이월 6일, 청의 칙사 마푸타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의 건립을 감독하러 가던 길에 남한산성에 들렀고, 그곳에서 성이 수리된 흔적과 식량이 비축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224] 조선에서 일본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지만, 칙사 마푸타는 남한산성에 새로 설치한 포루(砲樓)를 헐도록 하였다.[225]

홍타이지는 이듬해인 숭덕 5년(1640) 정월 12일 자 칙서를 통해 성지 수축을 강하게 질책하였다.[226] 조선은 곧바로 정월 22일 자 주문(奏文)[227]을

---

222)『承政院日記』 제72책, 인조 17년 십일월 25일. “六月出來時, 以上前之言, 歸告皇帝, 則以爲, 軍兵中戰馬及馬軍, 則無益於戰用, 故皆爲不徵, 唯水軍六(十)[千]名, 各齎十二朔糧, 趁解氷卽時, 二月內會于安州等海邊便好處, 則皇帝遣重臣或將領, 卽爲率去耳.”

223)『仁祖實錄』 권39, 17년 십일월 26일. “上引見備局堂上, 問之曰, 勅使所言事, 不可竝皆防塞, 將何以處之? 左議政申景禛曰, 夏間我旣以助糧爲言, 而彼乃使勿助糧, 以歲貢米爲辭. 臣則以爲, 別無他意. 上曰, 予意則以爲, 以若干助糧爲少, 故發此言也. 今只以軍兵減數爲請如何? 景禛曰, 十二朔糧餉, 一時輸運亦難, 竝言之爲當. **上曰, 然. 調發舟師, 則或不無倭人伺釁之端. 微以此意, 言及於說話間可矣.** ”(밑줄과 강조는 필자)

224)『仁祖實錄』 권39, 17년 십이월 6일.

225)『仁祖實錄』 권39, 17년 십이월 9일.

226)『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5년 정월 12일), pp.91-92.

227)『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世子歸省事與户部咨文」(崇德 5년 정월 30일), pp.389-391.『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의 편자인 張存武·葉泉宏은 이 문서를 호부 咨文이라고 보았지만, 글의 서두와 말미를 보았을 때 奏文의 형식을 갖추고

보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 전조(前朝) 이래 왜선(倭船)이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와 내지 주군(州郡)이 갑자기 공격당하는 화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왜정(倭情)이 더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방(小邦)은 상국이 도움을 주실 것을 믿지만, 원병이 오기 전에 잠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보수하고 망루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남변(南邊)의 근심 때문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칙사가 지시하여 즉시 허물었으니, 다시는 이 성에 뜻을 두지 않겠습니다.[228]

앞에서 서술하였듯, 청은 '정축약조'에서 조선의 성지 수축을 금지하였다. 숭덕 3년(1638) 삼월의 왜정자문에서 조선은 일본의 침입이 우려되니 "한강 이남 각지의 성지를 수축하겠다"라고 언급하였지만,[229] 청은 이에 대해 허락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조선은 이번에도 '일본 침입 시에 방어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앞세워 남한산성의 수리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았고, '일본의 침입 우려'를 성지 수축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였던 조선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230]

두 달 전만 해도 조선 조정은 눈앞에 닥친 청 황제의 파병 요구를 무마

있다. 『朝鮮國來書簿』에도 "户部承政英俄兒代送進朝鮮國王李係奏本封, 本日譯過奏訖." 이라고 부기되어 있어 奏文임이 확실하다.

228)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世子歸省事與户部咨文」(崇德 5년 정월 30일), p.390. "自前朝以來倭船由海入江, 內地州郡奄被襲掠之禍者, 非一再矣. 況今倭情益復不測. 小邦雖恃上國垂援, 援兵未到之間, 不可無倉卒藏身之地. 故略加補葺, 添設樓櫓者, 專爲南虞, 不得已之舉也. 然因敕使指揮卽行毁撤, 不復措意於此城矣."

229)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爲傳報倭情(島原之役)事與兵部咨文」(崇德 3년 사월 14일), p.278. "上年十二月倭差平成連又無端出來, 氣色與前頓異. 以唐貨不來, 隱然爲咎, 至於請改從來拜庭之禮, 本國於是不能無疑, 差遣巡檢使巡審海上防備. 又修築漢水以南各處城池, 以爲待變計."

230) 順治 7년 초 청은 조선이 왜정을 부풀려 성지를 수축하고 군병을 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查問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워 청에 성지 수축을 허락받고자 하였던 順治 6년 십일월 1일 자 奏文이 발단이 되었다(『同文彙考』 原編 권78, 倭情, 「陳請築城備倭奏」(順治 6년 십일월 1일), pp.6b-8b). 조선이 특정 시점에 일본의 침입이 우려됨을 구실로 성지 수축을 도모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崇德 4년 말 남한산성을 수리한 것이 발각되고, 順治 6년 성지 수축 요청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조선은 청에 성지 수축 허가를 거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하는 데에 '왜정의 우려'를 내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 수리의 발각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조선은 대명 전쟁에의 참전 회피를 위해 '왜정의 우려'를 거론하기 곤란해졌다. 조선은 어떻게든 참전을 회피할 다른 이유를 청에 제시해야만 하였다. 마침 조선 조정이 각지에서 조발한 선박은 풍랑을 만나 난파되거나 표류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군량 9천 3백 67석이 수몰되고 운반 인원 3백 명 이상이 익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조선은 이러한 사정을 숭덕 5년(1640) 삼월 4일 자 주문으로 알려 청 황제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231]

그러나 대명 전쟁에 조선군을 동원하겠다는 홍타이지의 의지는 확고하였다. 숭덕 5년(1640) 삼월 18일, 홍타이지는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려는 조선 국왕을 질책하는 칙서를 보냈다.[232] 이틀 뒤인 삼월 20일 홍타이지는 조선의 수군을 감독하고 인도할 청의 장수와 관원을 조선의 안주(安州)로 파견하였고, 이들에게 사월 25일까지 조선의 수군 5천 명과 미곡 1만 포를 대릉하(大陵河)와 소릉하(小凌河)의 하구에 도착시키도록 명하였다.[233]

대릉하와 소릉하 사이에는 명군의 최전선 방어기지인 금주성(錦州城)이 자리해 있었다. 숭덕 5년(1640) 사월 11일부터 있을 이른바 '금주 포위전'에 맞추어, 청은 조선에서 병력과 군량을 조달하고 이를 운반할 선박을 징발하려 하였다.[234] 조선에 칙사로 온 마푸타가 밝혔듯이, 청이 조선의 수군을 동원한다면 명이 영원과 금주 사이의 해로를 통해 군량을 보급하는 것을 견제할 수도 있었다.[235] 이제 조선은 그토록 피하고자 하였던 명과의 전쟁에 참전해야만 하였다.

당시 조선군은 청이 기대한 만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임경업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은 청 황제가 정한 기한에

---

231)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奏運糧船遭風敗沒事」(崇德 5년 삼월 17일), pp.395-400.
232)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崇德 5년 삼월 18일), pp.106-107; 『仁祖實錄』 권40, 18년 삼월 25일.
233) 『淸太宗實錄』 권51, 崇德 5년 삼월 20일.
234) 이른바 '錦州 포위전'의 전반적인 흐름은 閻崇年, 2014, pp.8-18을 참고.
235) 『承政院日記』 제72책, 인조 17년 십일월 25일.

한참이나 뒤져 출발하였다.[236] 『淸太宗實錄』에 따르면, 이후에도 조선의 수군은 항해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거나 좌초되기 일쑤였고, 심지어 명군 선박의 요격을 맞아 제대로 응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표류한 조선군 선박 중 3척은 명군에게 포획되었음이 청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 황제 홍타이지의 요구에 따라 조선을 떠난 115척의 선박 중 52척만이 남게 되었다. 숭덕 5년(1640) 유월 18일, 홍타이지는 본래 목적지에서 한참 떨어진 개주(蓋州)에 머물며 전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임경업에게 협박에 가까운 질책을 내렸다.[237] 인조는 숭덕 5년(1640) 칠월 18일자 주문을 통해 조선군의 '불성실한 태도'[238]를 해명해야 하였다.[239]

한편, 숭덕 5년(인조 18년, 1640) 칠월 5일, 청 황제 홍타이지는 '호의'를 베풀어, 조선에서 징발한 5천여 명의 병력 중 1천 5백여 명의 수군만 금주 방면에 남기고 나머지는 육로로 귀환하도록 하였다. 이때 홍타이지는 대명 전선의 조선군을 6개월마다 교체하게 하였고, 조선군이 먹을 식량, 입을 옷가지, 타고 나를 마필 등은 조선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였다.[240] 숭덕 6년(인조 19년, 1641) 팔월, 홍타이지는 영병장(領兵將) 유림과 휘하 장병에게 전공(戰功)을 치하하는 포상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241] 또한, 숭덕 6년(1641) 팔월과 숭덕 8년(인조 21년, 1643) 유월, 조선이 국력 소

---

236)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舟師上將爲船期事呈淸監軍文」(崇德 5년 사월 4일), pp.403-404; 『瀋陽狀啓』 경진년 오월 21일, 22일.

237) 『淸太宗實錄』 권52, 崇德 5년 유월 18일.

238) 崇德 5년 오월부터 칠월까지, 청 측은 빈번하게 심관을 찾아 조선군의 '불성실함'을 질책하였다. 심지어는 명과의 전투를 일부러 회피하고 명에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청은 가도 공략전에서 활약한 柳琳이 領兵將으로 파견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는데, 소현세자는 유림이 "남변의 방비를 위해 統制使로 파견되었다"라고 해명하였다. 『瀋陽狀啓』 경진년 칠월 3일.

239)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奏舟師軍務事」(崇德 5년 칠월 26일), pp.411-413. 인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의 불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청 황제 홍타이지는 잉굴다이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국왕의 죄목을 나열한 칙서를 전하게 하였고, 각 사안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金尙憲·申得淵·曺漢英·蔡以恒·朴潢 등 다섯 명의 조선 대신을 심양에 구류하였다. '1차 瀋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田川孝三, 「瀋獄問題について(上)」, 『靑丘學叢』 17, 1934, pp.116-151를 참고.

24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奏舟師軍務事」(崇德 5년 칠월 26일), pp.411-413. 이 기사는 조선 국왕이 보낸 奏文이지만, 그중에 청 황제의 聖旨가 인용되어 있다.

241) 『淸太宗實錄』 권57, 崇德 6년 팔월 29일; 『仁祖實錄』 권42, 19년 시월 22일.

진을 이유로 군병의 교체 주기를 12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홍타이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허락의 뜻을 밝혔다.[242] 이상에서 열거한 청 황제 홍타이지의 '호의'는 조선군을 대명 전선에 사실상 '상주'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숭덕 5년(인조 18년, 1640) 시작된 조선군의 대명 전쟁 참전은 입관 직후까지도 계속되었다.[243]

남한산성을 수리한 것이 발각되고 대명 전선에 군사를 보낸 이상, 조선은 '남변의 방비'를 청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제 조선이 왜정 보고를 통해 취해야 할 외교적 목표는 청과 일본의 통교를 막는 일뿐이었지만, 이마저도 숭덕 4년(1639) 이후로 청이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삼월, "청이 왜정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산천(山川)·도리(道里)·인물이 어떤지 알고자 함일 뿐이다"라는 인조의 발언은 일련의 사건들이 초래한 청-조선 외교의 변화를 포착한 데에서 나왔을 것이다.

숭덕 7년(1642) 삼월 이후 조선의 왜정 보고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조선은 숭덕 3~4년 세 건의 왜정자문(<표 1>의 문서 1, 2, 3)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숭덕 7~8년 세 건의 왜정자문(<표 1>의 문서 4, 5, 6)에서는 일관되게 이웃 나라 일본과의 '화호'를 내세우되,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과의 통교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은 상대하기 까다로우니,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청에 시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은 왜 특정 시점 이후에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지 않은 것일까? 더욱이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본에

---

242) 崇德 6년 팔월 청 황제 홍타이지는 기존 6개월의 교체 주기를 12개월로 늘려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崇德 7년 말 청은 다시 6개월 만에 조선군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崇德 8년 유월 조선은 앞서 있었던 청 황제의 聖旨 내용을 거론하며, 교체 주기를 12개월로 복구하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朝鮮國王奏請勿數替軍兵」(崇德 6년 팔월 11일), pp.450-452; 「朝鮮國王爲勿數替戍兵事與兵部咨文」(崇德 8년 유월 25일), pp.521-523.

243) 『瀋陽日記』 갑신년 유월 16일; 『仁祖實錄』 권45, 22년 칠월 4일. 崇德 8년 錦州로 교대하여 들어간 영병장 朴翰男의 군병과 청군의 북경 입성을 함께하였던 영병장 南斗燁의 군병은 이듬해인 順治 원년 칠월이 되어서야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통교 의사를 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은 의문을 자아낸다.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표 1>의 문서 3)과 함께 전달된 대마도주 서계를 통해, 청이 일본과의 소통에 '언어 장벽'이 있음을 체감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청의 일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사료의 제약 속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청이 일본과의 통교에 관심을 보인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 I 장에서 지적하였듯, 청의 대일 통교 시도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중에서 본고가 주목한 것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물산에의 관심이었다. 후자의 경우 조선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산 중 일부를 청에 세공(歲貢)으로 진상하였음이 확인된다.[244] 이외에도 청이 조선에 일본의 물산을 조달하도록 요구할 경우 조선은 가능한 협조하려 하였다.[245]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병자호란 이후 청이 일본과의 통교에 관심을 보인 데에는 전자의 이유인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 그중에서도 '명과 일본의 연합'에 대한 우려가 주요하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이 자체적으로 명의 내부 사정을 탐지하여 명-일 연합에 관한 정황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숭덕 7년(1642) 초 청은 금주·송산·탑산(塔山)·행산(杏山) 등 네 개의 성을 함락하였는데, 이때 많은 수의 명군이 포로가 되거나 투항하였다. 이 중에는 과거 명군 최고 지휘관인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하였고, 당시에는 계요총독(薊遼總督)을 맡고 있던 홍승주가 있었다.[246] 홍승주가 답변한 대로 명과 일본의 통교가 오랫동안 부재하였다면, 불과 40여 년 전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 사이의 군사 연합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았다.[247] 일본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갈수록, 청

244)『同文彙考』別編 권2, 節使,「定約條年貢諭」(崇德 2년 정월 28일), p.2a.

245)『承政院日記』제62책, 인조 15년 십일월 23일 丁亥;『瀋陽狀啓』임오년 십일월 9일;『仁祖實錄』권44, 21년 구월 1일.

246)『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朝鮮國王表賀錦松杏塔四城降淸事」(崇德 7년 유월 23일), pp.486-488. 이 기사는 조선 국왕이 보낸 表文이지만, 그중에 청 황제의 勅諭가 인용되어 있다. 崇德 7년 초 청이 명의 최전선 방어거점인 錦州·松山·塔山·杏山에서 거둔 승리에 관해서는 閻崇年,『淸朝開國史 4』,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pp.26-32을 참고.

은 명과 일본의 연합이 성사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였을 듯하다.

숭덕 5년(인조 18년, 1640) 조선군의 대명 전쟁 참전 역시 청의 명-일 연합에 대한 우려를 잦아들게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의 후방에서 명과 일본의 연합이 성사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 방면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일본이 대륙에 위협이 되었던 임진왜란의 선례를 고려하였을 때, 일본군의 진출 경로는 조선의 서해안을 통한 해로나 조선 땅을 경유하는 육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군의 대명 전쟁 참전이 성사됨으로써, 청은 심양의 소현세자 일행에 더하여 대명 전선에 파견된 조선의 군병까지 '인질'로 삼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청은 대명 전쟁에 조선의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조선의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명과 일본의 연합을 방조하거나, 그것에 가담할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248]

다만, 조선에는 여전히 명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다.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시월 청 황제 홍타이지는 소위 '2차 심옥(瀋獄)'을 통해 명과 조선의 연락을 확실하게 끝맺어 버렸다.[249] 그 후 조선은 서해안에 출몰하는 한선과 접촉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250] 숭덕 8

---

24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명이 실제로 일본에 원병을 요청한 것은 南明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에도막부는 南明 정권의 원병 요청을 거절하였고, 명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사 연합을 통해 청에 항전하는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藤井譲治, 1997, pp.179-183.

248) 崇禎 14년(1641) '2차 出使'에 나선 王武緯는 "조선이 倭兵 6백 명을 빌려 청에 대비하고 있다[麗國借倭兵六百名, 以備圖奴等情具報.]"라고 명 조정에 보고하였다(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編, 『明淸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시월),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8, p.83). 하지만 당시 조선이 일본에서 병력을 빌렸다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王武緯의 발언은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함일 듯하다. 이 사료는 이재경, 2017, p.256에도 언급되어 있다.

249) 崇德 6년 십일월, 청은 명과 조선의 바다를 오고 가던 밀무역 상인을 붙잡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명과 조선의 '비밀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였다. 게다가 崇德 7년 초 청은 松山을 함락한 후, 洪承疇 휘하의 명군에게서 명과 조선의 '通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崇德 7년 시월 청은 이 사건과 연루된 조선의 대신과 지방관, 상인 등을 구금하여 대대적인 査問을 벌였다. '2차 審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寺內威太郎, 「17世紀前半の朝中關係の一齣: 第2次瀋獄を中心に」, 『駿台史學』 96, 1996, pp.61-82를 참고.

250) 비슷한 시기 명 조정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崇禎 15년(1642) 구월 명 조정에서 조선과의 연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병부상서 陳新甲이 처형되었다. 곧이어 陳新甲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던 '宣諭朝鮮副總兵' 王武緯 역시 탄핵되었다. 같은 해 말 청군에 의해 산동 登州가 함락 당하자, 명은 사실상 해로를 통해 조선과의 연계를 추진할

년(인조 21년, 1643) 팔월에는 가도 인근에 나타난 명군 한선과 조선 수군이 교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251] 조선이 이 전투에서 명군 9명을 생포하여 청에 압송하였고, 청은 이제 막 황위에 오른 순치제의 이름으로 은(銀) 500냥을 지급하여 조선 국왕의 "충성"에 보답하였다.[252]

명-일본 혹은 명-조선-일본 연합의 가능성이 분명하게 줄어들자, 청으로서는 '비효율적'으로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여전히 청의 세력 범위에서 일본과 접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대마도주 서계의 해석 실패를 통해 경험하였듯 청은 일본과의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조선은 왜정 보고에서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누누이 언급하였다. 과거 명의 사례를 보아도 일본과 직접 통교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명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어 '임진왜란이 재연'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다지겠다고 보고하였다. 명과 일본의 연합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청은 조선을 통해 일본의 동향은 관찰하되, 공식 외교 관계의 수립은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요컨대, 청과 조선이 일본에 대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데에,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여력을 상실하였다. 이재경, 2017, pp.263-265.

251)『仁祖實錄』권44, 21년 팔월 18일.

252)『同文彙考』別編 권4, 軍務, 「陞賞摘船官兵勅」(崇德 8년 구월 15일), pp.42a-42b.

맺 음 말

병자호란은 동아시아 4국 공존의 시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막 황제의 나라가 된 청은 조선을 복속시키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명-조선 관계의 단절을 바랐다. 여기에 더하여 청은 조선-일본 관계를 발판 삼아 바다 건너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였다. 청이 조선을 강제로 복속시키자마자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한 데에는 명-일본의 군사 연합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는 동아시아 4국의 다자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청의 대일 통교 문제에 대한 조선의 계산은 그 이상으로 복잡하였다. 청에 강제로 복속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조선은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강요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청은 조선에 일본과의 통교 주선을 요구하여 조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은 대마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일 외교의 현안에도 대응해야 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대청·대명·대일 관계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라는 난제에 대처해야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대체로 청-조선/청-일본/조선-일본의 '양자관계' 속에서 조선의 왜정 보고가 갖는 의미와 효과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의 대일 통교 문제가 동아시아 4국의 '다자관계' 속에서 갖는 역동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연구는 청-조선 외교의 전개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아, 조선의 왜정 보고가 갖는 의미와 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입관 이전 조선의 왜정 보고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함으로써, 청과 조선이 목전의 구도 변화에 따라 일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대명 전쟁 참전을 전후로 조선의 왜정 보고가 갖는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병자호란 직후 조선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 중 하나는 청의 대명 전쟁 참전 요구를 무마하는 일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입 우려'를 내세워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려는 구상이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숭덕 3년(인조 16

년, 1638) 오월 이후 조선은 청에 의심을 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왜정 보고에서 '남변의 우려'를 내세우며 대명 전쟁에의 참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숭덕 4년(인조 17년, 1639) 팔월의 왜정 보고에서는 정보를 '가공'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갈등'을 청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숭덕 5년(인조 18년, 1640) 사월 조선은 마침내 청군의 일원으로 대명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제 조선으로서는 더 이상 '일본의 침입 우려'를 청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다만 청의 대일 통교 주선 요구가 철회된 것은 아니었기에 청이 조선을 배제하고 일본과 직접 통교하는 일은 없어야 하였다. 이에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이후 조선은 통신사 파견을 청에 보고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웃 나라 일본과의 '우호'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과의 '현상 유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청에 시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청의 대일 통교 문제 역시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청이 일본과의 통교에 관심을 보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명과 일본의 군사적 연합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명-일 연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의 군사력에 관심을 드러내었다. 청의 병부에서 조선의 왜정 보고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은 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군사적 동인에서 비롯되었음을 방증한다. 청이 명-일의 군사적 연합을 우려하여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였다면, 관건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조선 방면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

숭덕 5년(1640) 사월 조선군의 대명 전쟁 참전이 성사되자, 청으로서는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조선 방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청은 심양의 소현세자 일행에 더하여 대명 전선에 파견된 조선의 군병까지 '인질'로 삼을 수 있게 된 데다가, 대명 전쟁에 조선의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조선의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다. 조선은 더 이상 명과 일본의 연합에 '연결 고리'가 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청은 명에서 투항한 한인들에게서도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례로 숭덕 7년(1642) 초 과거 명군 최고 지휘관인 병부상서

를 역임하였던 홍승주가 청에 투항하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명과 일본 사이에 통교가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청으로서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갈수록 명-일 연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조선은 통신사 파견을 통해 일본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다지겠다고 보고하였다. 청으로서는 '비효율적'으로 일본과의 통교를 추진하기보다는, 조선의 대일 관계를 이용하여 '현상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입관 이전 청의 입장에서 대일 통교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대외적 구도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부차적' 문제에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청은 조선을 통해 일본의 동향을 관찰하되, 공식 외교 관계의 수립은 추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흥미롭게도 청은 입관 이후에도 이러한 대일 방침을 대체로 유지하였고, 조선 역시 일본과의 통교 상황을 청에 보고하였다. 물론 입관 이후 청의 세력 범위가 동남 연해 지역까지 확장됨에 따라, 청은 조선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일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조건을 마련하였다. 입관 이후가 되면 조선 역시 대청 외교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입관 이후 청의 대일 정책에 조선의 왜정 보고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는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명확해질 듯하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입관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므로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癸未東槎日記』(→ 민족문화추진회 編譯,『(國譯)海行摠載Ⅴ』,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5)

『光海君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內國史院滿文檔案』(→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京: 東洋文庫淸代史硏究委員會, 2003; 河內良弘 譯註·編著,『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崇德二·三年分』, 京都: 松香堂書店, 2010)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奎貴9764,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同文彙考』(國史編纂委員會, 1978)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國立北平歷博物館院 소장 鈔本, 1933년 重印)

『明神宗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明淸檔案存眞選輯: 初集』(李光濤, 李學智 編著,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59)

『明淸史料: 乙編』(中央硏究院曆史語言硏究所 編,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8)

『邊例集要』(→ 예조 전객사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옮김,『(신편 국역)예조 전객사 변례집요』,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別差倭謄錄』(奎12871,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備邊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瀋陽日記』(→ 김종수 등,『(역주)소현심양일기』, 서울: 민속원, 2008.)

『瀋陽狀啓』(→ 소현세자 시강원 지음, 정하영 등 역주,『심양장계: 심양에서 온 편지』, 파주: 창비, 2008)

『仁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明淸檔案卷』(中國國家博物館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朝鮮國來書簿』(古5710-5,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朝鮮國王來書』(→ (民國)北平故宮博物院文獻館 校印, 『朝鮮國王來書: 崇德七八年分』, 北平: 故宮博物院文獻館, 1932)
『淸太宗實錄』(乾隆三修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淸世祖實錄』(乾隆三修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淸太宗實錄』(康熙 重修本: 東京大學 人文科學研究所 附屬 漢字情報研究センター 東方學デジタル圖書館[http://kanji.zinbun.kyoto-u.ac.jp/db-machine/toho/html/top.html]의 內藤文庫本)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張存武・葉泉宏 編,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 1619-1643』, 臺北: 國史館, 2000)
『通信使謄錄』(奎12870,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通文館志』(→ 金指南 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 편집위원회 編, 『(국역)통문관지』 1-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대만중앙연구원 內閣大庫檔案 167445-001, 167568-001, 219829-001.

2. 연구서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조선 지배층의 중국 인식』, 서울: 푸른역사, 2009.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 명 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 분석』,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2019.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三宅英利,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서울: 이론과실천, 1991.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심양관, 김남윤 역해,『역해심양장계: 1637~1643년 심양에서의 긴급 보고』, 서울: 아카넷, 2014.
예조 전객사 엮음, 홍성덕・하우봉 옮김,『(국역)변례집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이훈,『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서울: 景仁文化社, 2011.
이훈,『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파주: 경인문화사, 2019.
Toby, Ronald P., 허은주 옮김,『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일본의 '쇄국'은 '쇄국'이 아니었다』, 서울: 창해, 2013.
허지은,『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서울: 景仁文化社, 2012.
한명기,『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藤井譲治,『德川家光』, 東京: 吉川弘文館, 1997.
松浦章,『海外情報からみる東アジア: 唐船風說書の世界』, 大阪: 清文堂出版, 2009.
辻大和,『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東京: 汲古書院, 2018.
田代和生,『書き替えられた國書: 德川・朝鮮外交の舞台裏』, 東京: 中央公論社, 1983.
程永超, 『華夷變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國三國關係史の研究』, 大阪: 清文堂出版, 2021.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下)』, 東京: 吉川弘文館, 1965 (1969 printing).

劉家駒,『清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薛明,『清前期的中日關係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2014.
閻崇年,『清朝開國史 3・4』,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陳文壽,『近世初期日本與華夷秩序研究』,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2002.

Toby, Ronald P.,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1984.
Wakeman Jr. Frederic,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ruy China*, Vol.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 연구논문

고명수, 「몽골의 일본인식과 蒙麗관계」, 『사총』 83, 2014, pp.231-267.
구범진, 「병자호란 종전 시 홍타이지의 국서 <定約條詔>에 대한 문헌적 고찰: 실물문서와 청조의 만문·한문 기록물의 비교 분석」, 『동아문화』, 2021, pp.119-164.
김강일, 「동래부사와 대일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8, 2012, pp.295-328.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휘고(同文彙考)』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pp.185-226.
김경록. 「17세기 朝·淸관계와 '倭情'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 94, 2015, pp.205-245.
김태훈,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pp.175-215.
문영규. 「倭情咨文을 통해 본 仁祖·孝宗代의 對外關係 硏究」,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민덕기, 「조선은 왜 일본과의 통교관계를 중국에 감추려 했을까?: 조선 前期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62, pp.99-134.
박민수,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박정슬, 「명·청교체기(1637~1647년)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보 활용: 대마도와의 교섭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64, 2018, pp.61-117.
이상규, 「17세기 倭學譯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pp.233-278.
이재경, 「삼번의 난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한국사론』 60, pp.185-237.
장순순,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pp.15-60.
정성일, 「국서와 서계로 본 조선후기(1600-1870) 대일외교」, 『명청사연구』 52, 2019, pp.107-142.
하우봉,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1991, pp.511-533.
홍성구, 「淸 入關 前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再編과 日本」, 『명청사연구』 33, 2010, pp.81-110.
홍성구, 「청조의 일본인식」, 『역사교육논집』 42, 2009, pp.153-186.
홍성덕,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pp.137-180.

丘凡眞・李在璟, 「崇德元年(一六三六)の外藩蒙古会盟と丙子胡乱」, 『史林』 100, 2017, pp.678-706.
鈴木開, 「丁應泰の變と朝鮮: 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 『朝鮮學報』 219, 2011, pp.39-71.
木村可奈子, 「日本のキリスト教禁制による不審船転送要請と朝鮮の對淸・對日關係: イエズス會宣教師日本潛入事件とその餘波」, 『史學雜志』 124, 2015, pp.1-39.
寺內威太郎, 「17世紀前半の朝中關係の一齣: 第2次瀋獄を中心に」, 『駿台史學』 96, 1996, pp.61-82.
程永超, 「通信使關係倭情咨文と明淸中國」, 『史林』 99, 2016, pp.803-836.
田川孝三, 「瀋獄問題について」, 『靑丘學叢』 17, 1934, pp.116-151.
浦廉一, 「明末淸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 (一)」, 『史林』 19,

1934a, pp.246-270.
浦廉一,「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 (二)」,『史林』19, 1934b, pp.534-558.

柳嶽武,「淸初淸, 日, 朝鮮三國關係初探」,『安徽史學』, 2005-04, pp.16-22.
沈玉慧,「從對日情報之蒐集與運用分析淸朝對日政策」, 劉序楓 主編,『亞洲海域間的信息傳遞與相互認識』,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18, pp.143-178.
岩井茂樹,「淸朝, 朝鮮, 對馬: 一六三九年前後東北亞世亞形勢」,『명청사연구』20, 2004, pp.87-102.
易惠莉,「論入關前後的淸與日本關係」,『學術月刊』, 2001-01, pp.62-67.
陳波,「淸朝與日本之間的情報搜集: 以淸朝入關前後爲中心」,『江海學刊』, 2014-04, pp.147-155.
陳波・袁一帆,「明淸鼎革期間朝鮮與日本的交隣關係: 以情報交涉與文化角力爲中心」,『學術研究』, 2020-06, pp.128-134.
陳波,「風說書的世界: 異域風聞所見之明淸鼎革」,『海洋史研究』, 2018-02, pp.291-316.
王曉秋,「試論淸代中日關係的開端」,『鄭州大學學報』, 2008-02, pp.137-139.
王剛,「明末王武緯出使朝鮮與"聯鮮圖奴"之議」,『溫州大學學報』, 2011-05, pp.111-116.

【부록 1】

숭덕 4년(1639) 팔월 13일 자 왜정자문

朝鮮國王爲轉報倭情事.
本年八月初六日, [據慶尚道觀察使李命雄狀啓,
東萊府使李民寏牒呈][253],
節該,「七月二十九日倭差平智連、藤智繩等持島主書自倭京出來, 即遣譯官洪喜男、李長生等就其館所相見. 平智連等說稱,
『上年大君少有疾病, 久不聽政, 今春始得快復, 山獵船遊與前無異. 島主輒得陪侍, 連被恩賞, 此誠一島之榮幸, 而大君左右用事之人, 需索貴國土産者甚多, 稍達其意, 讒謗隨之, 此島主之所深患. 而自調興、玄方兩人送使停廢以來, 貴國土産其數無多, 而唐貨交貿之路又爲頓絶, 大君左右所求無以應副. 調興、玄方兩人送使之代以麟書記等三人, 及島主管下三人, 遞相送船. 而乙亥以後未給之物, 一一追給, 然後兩國可保無事矣. 薩摩州太守主和琉球, 肥前州太守主和南蠻, 每歲所得不貲, 而島主名爲主和貴國, 而所得零星, 視彼二州何如哉! 自貴國被兵之後, 日本國中訛言甚多, 年少喜事之輩希望功賞, 做出不測之言, 處處蜂起, 而島主竭力周旋, 東遮西攔, 拖引時月. 島主爲貴國之誠, 貴國何以盡知之哉. 島主謂俺等曰, 今此所請送船事, 若不蒙許, 則不必強請, 快速回棹,直告大君, 庶克(王)[主][254]和朝鮮之責.』
恐喝之言不一而足云云.」等情.
具啓.
據此. 爲照, 所謂大君者, 乃日本國君之號, 所謂調興者, 乃島主副官之名, 所謂玄方者, 乃島主書記之名也. 當初約和時, 本國授兩人章服、圖書, 許令每歲送船來致胡椒、丹木等物, 本國因以土産計給. 曾在乙亥年間調興、玄方得罪國君, 流配遠方, 而島主猶望前給之物. 本國以爲兩人得罪遠謫, 則仍舊送使, 事涉無據, 須待其代差出, 方可許也. 自此絶不復言. 今忽訴于國君, 有此(未)[來][255]請之舉. 觀其書辭文字僻澁, 殆不可曉. 而差倭所陳說話, 情涉叵測, 着令邊臣照舊施行, 以冀彌縫, 一面戒飭防守, 以備不虞. 此後如有別樣所聞, 亦當隨即咨報. 係是倭情, 理宜轉聞, 爲此, 擬合就行, 煩乞貴部. 照詳咨內事意, 轉奏天聰施行. 須至咨者, 右咨兵部.
崇德四年八月十三日.

---

253) 각주 154번 참조.
254)『別差倭謄錄』권1, 기묘년 칠월 30일;『淸太宗實錄』권48, 崇德 4년 구월 11일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이다.
255)『淸太宗實錄』권48, 崇德 4년 구월 11일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이다.

【부록 2】

숭덕 7년(1642) 삼월 2일 자 왜정자문

朝鮮國王爲倭情事.
議政府狀啓,
本年二月初十日備慶尚左道水軍節度使宣若海馳報,
節該,「本月初四日准釜山鎭節制使鄭楷搪報, 該,『石城烽軍丁貴生告稱, 初三日後晌時, 有異樣船一隻行到杻島外洋, 遭東北風颶大作, 漂泊多大浦鎭前.』等情.
卽着通事崔義吉, 馳往泊船去處, 詳探事情去後. 回據本官口報,『本船係是倭差平成幸坐船, 封進押物人一名、侍奉一名、伴從三名、梢工四十名. 就盤問得本倭說稱, 俺有公幹出來, 事若得成, 有徐首座、藤智繩等, 亦當從後出來. 事若不成, 不必來了. 卑職又問, 所幹何事? 本倭回說, 本國君新生一子, 此是莫大慶事, 俺爲此出來, 多少說話當盡於洪、李兩譯, 面討之日不可造次說破. 終不明言, 所齎書契亦不傳授.』等情.」 備准.
具啓.
據此. 行據本府狀啓,
節該,「合差禮曹郎官一員, 與同譯官洪喜男、李長生等前往釜山, 細問本倭出來情由.」 等因.
據此. 卽着本府另差禮(部)[曹]佐郎李泰運, 同洪喜男等馳往本處, 上緊回報去後.
續據接慰官李泰運馳報.
「卑職蒙差馳到東萊, 與本府節制使丁好恕、釜山鎭節制使鄭楷一同會議, 着據洪喜男、李長生、崔義吉等手本. 卑職等先入本倭館所, 設茶後探問出來之意, 則本倭說稱, 大君久無適嗣, 上年八月生男, 此是本國大慶, 理宜轉報貴國, 請遣賀使. 近因長崎漢船得聞淸國消息, 而又有數件事. 上年十月分自江戶離發來了. 卑職等回言, 鄰國生男固是慶事, 淸國消息未知何語, 其所謂數件事亦是何情? 本倭說稱, 大君生子, 信使入送, 唯在貴國處分, 數件事當從容說道. 卑職等要見書契, 則本倭說稱, 江戶離發時, 島主與大君及僧人道春一同, 緘封以來, 茶禮之日當爲進呈. 卑職等再三請見, 堅執不許.」 等情.
據此. 續據東萊府節制使丁好恕馳報,
節該,「卽接洪喜男、李長生等手本, 卑職等更爲就館探問, 則本倭說稱, 大君年將四十, 每以無嗣爲憂, 上年八月始生一男, 名之曰若君. 大小將官鹹聚江戶致賀之際, 大君言於島主曰, 吾以無功無德之人, 承襲關伯三世於玆, 年將四十, 尙無一子, 惟得罪先世是懼, 幸而天佑神助, 晩得此男, 朝鮮聞之亦必喜悅矣. 有一執政言於島主曰, 此是日域大慶, 朝鮮必有送使致賀之擧. 諸將官齊聲並應曰, 此言誠是. 仍着島主卽爲委通, 故島主差俺出送. 且日光山有

家康廟堂，而廟堂之後，新創社堂，樑柱四壁皆以玉石營造，其爲華麗，萬古無比．有守僧二人，其一今年一百二十歲，卽家康生時親信者也．其一卽天皇之子也．上年冬，大君率諸將官親往焚香，後與諸將及兩僧會坐相賀．老僧言曰，今爲家康營建社堂，而家康爲朝鮮殲滅秀吉，和好誠信，於今四十餘年．朝鮮若聞大君爲家康至誠追遠之事，則必有相賀之禮，又有送物留跡之擧．令島主將此意報知朝鮮，請得國王殿下親筆一紙，及諸臣讚頌詩篇，以爲萬代流傳之寶．至如大藏佛經，乃是寺刹極重之書、大鍾、香爐、燭臺、花瓶等器，雖是我國易得之物，若得朝鮮所鑄，以爲社堂傳玩之寶，則此亦朝鮮之功德．將此事意使島主轉達朝鮮如何？諸將皆曰，此意正好．云云．又言，上年冬，執政等問於島主曰，近聞商販漢人之語,朝鮮與清國和好之事,島主何不報知於大君耶？島主答稱．朝鮮既與淸國相好，此外別無他情．執政但唯唯而已．所謂數件乃此事也.」等情．

據此．續據接慰官李泰運、東萊府節制使丁好恕等聯名馳報．

「卑職等就於本倭館所接見茶罷後，本倭所言大略與洪喜男等手本相同，卑職等答稱，貴大君生子果是慶事，大藏經則壬辰兵火之後，板本散失，今難印出．大鍾等器，我國元無産銅之地，如此大器決難鑄成．本倭回言，銅鑞當自鄙島量入送來，但欲得貴國之所鑄以爲流傳之物耳．卑職等再三搪塞，而至如殿下親筆，亦難准請云．則本倭多有慍色曰，島主欲爲朝鮮永結和好，以爲兩國安寧之計，有此數件之懇而終若不許，則從前相好之意盡歸虛地．任意爲之，恐喝之狀難以形言．

其書契,『有本邦雍容垂拱．去八月上旬，若君慶誕，曰域歡仰，太平盛事莫大於是．貴國亦豈勝懽愜，先奉賀緘以效雀舌，而委瑣付平成幸舌端.』等語．

平差又言，俺等不日當回棹轉報大君，愼勿以等閑視之．說罷，卑職等多般開論，仍爲罷出，姑待朝廷分付．」等情．

具報．

據此．竊照臣等伏見諸臣馳報內事意，

「彼方隆創佛宇，文具是尚，慶幸生男，撫弄爲樂．其在鄰國之道，惟當順適其心，助成其事，實合機宜．且其所欲者，俱非難辨難從之物，況倭性巧詐褊急，多張恐喝之語，今若不許，亦慮失其歡心．姑依其願，許以准請，而係是倭情．合無備將前因移咨該部，以便轉奏，允爲便益.」等因．

具啓．

據此，爲照．所據倭差所言，係是邊情，理宜轉報，煩乞貴部查界咨內事意，轉奏施行．須至咨者，右咨兵部．

崇德七年三月初二日．

(然世子所言天皇子，卽先日倭王子也．大君及關伯猶重地權臣，國柄皆在大君矣，故天皇無聞．又言天皇長子嗣位，其次皆爲僧，世世如是．此不係咨內語，出於世子口中之言，錄此以計後問，長汗阿馬說.)

Abstract

The Japan Issue between the Qing and Chosŏn, 1637-1644

Jung, Sangwo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taiji(皇太極, r.1626-1643)'s accession to the imperial throne led to a series of significant changes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Upon accession, Hongtaiji embarked on reorganizing his newborn empire's foreign relations. After the successful invasion of 1637(丙子胡亂), the Qing demanded that Chosŏn cut off its 200-year-old tie with the Ming. At the same time, the Qing tr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Chosŏn.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before the Entering the Shanhai Pass(入關), the Qing and Chosŏn exchanged a series of diplomatic letters to discuss various subjects, including "the Japan issue." The Qing seems to have been wary of Japan's military power, exhibiting concern over the possibility of an alliance between the Ming and Japan. The Qing also showed interest in Japanese products that had been imported through Chosŏn. As the Qing's territory at the time was not adjacent to Japan, it had to resort

to relying on Chosŏn to handle any matters regarding Japan.

However, there existed discord on "the Japan issue" between the Qing and Chosŏn. Chosŏn never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because of geo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1638, Chosŏn thus started to send the Qing dispatches about the situation of Japan(倭情咨文) to discourag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thesis, I refer to these "dispatches about the situation of Japan," sent from Chosŏn to the Qing, as the "Japan Report."

For over a year, Chosŏn took a passive approach to the issue, simply ignoring the Qing's request to intermediat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An incident that increased Chosŏn's anxiety over the potential invasion of Japan occurred in early 1638, when Tsushima requested Chosŏn for a revision of the diplomatic protocol. It was not long after that the Chosŏn court learned about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of Shimabara (島原の亂), the largest popular revolt in the early Tokugawa Japan. After much deliberation, Chosŏn decided to send the first ever Japan Report to the Qing's Ministry of War in the third lunar month of 1638. While the first Japan Report was primarily intended to prepare against Japan's attack, it also served as a mechanism for Chosŏn to replace the *diplomatic issue* of intermediat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with the *military issue* of reporting on Japan's situation.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1638, the Qing emperor Hongtaiji demanded that Chosŏn send troops to the war against the Ming, specifying the number of troops to be deployed and the time of operation. In the following Japan Report, Chosŏn addressed its

security problem at the southern border in order to avoid sending troops. Cross-checking the sources further reveals that the contents of the Japan Report written on the thirteenth day of the eighth lunar month of 1639 was *edited* to highlight the security threats at Chosŏn's southern border. In addition to dis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Chosŏn took advantage of the Japan Report to avoid sending troops to the war against the Ming.

The situation took a turn after Chosŏn complied with the Qing's request to dispatch troops to the war against the Ming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1640. Chosŏn no longer needed to emphasize the security problem at its southern border. The best strategy for Chosŏn during this time was to maintain the *status quo* by supress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Qing and Japan. In the third lunar month of 1642, Chosŏn reported to the Qing that Japan had invited Chosŏn's ceremonial envoy(通信使) to celebrate the birth of the Tokugawa Shogun's successor. In this Japan Report, Chosŏn mentioned that it would make efforts to strengthen its friendship with the Japanese neighbor by dispatching a ceremonial envoy. Up until the Entering the Shanhai Pass, Chosŏn sent the Qing two additional Japan Reports demonstrating its willingness to maintain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Japan.

Meanwhile, the Qing no longer exhibited much interest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but instead actively collected information on Japan through Chosŏn and defectors from the Ming. After Chosŏn's participation in the war against the Ming, the Qing could exert more dominance over Chosŏn with little fear that Chosŏn might passively allow, or even actively

facilitate, the alliance between the Ming and Japan. In early 1642, the Qing was informed by Hong Chengchou(洪承疇), the surrendered Ming's Jiliao Supreme Commander(薊遼總督) and former Minister of War(兵部尙書), that there had been n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Ming and Japan for a long time. The best strategy for the Qing was to let Chosŏn prevent any possible threats from Japan rather than "inefficiently" trying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the end, the Qing and Chosŏn both adopted the policy to maintain the *status quo* with Japan. Interestingly, even after the Entering the Shanhai Pass, the Qing merely observed Japan's situation through Chosŏn's irregular Japan Reports without establishing any form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Keywords :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Sino-Korean Relation, Sino-Japan Relation, Ming-Qing Transition, Tokugawa Bakufu Japan Report(倭情咨文), Hongtaiji

Student Number : 2020-21367